

생명샘 (living Stream)

(Korean and English)



Book 3 (1997)

White Young Jeon

Cambodia Reformed Faith Institutes

머릿말

목차

1.

1. 순교자나 불신자냐? (계6:9-17) 1997.12.7 주일

이제 남은 다섯째인과 여섯째인을 떼실 때 우리는 순교자의 부르짖음과 심판을 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는다. 이것은 복음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그들의 운명 을 결정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보인다. 전자는 복음에 대하여 순교하기 까지 충성함 으로서 하나님 이 그들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고 후자는 복음에 대하여 반 대하고 대적한 자들에게는 그에 상당한 심판이 따르는 것을 보인다. 어떤 대조적인 사건이 일어났는가?

1. 복음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상급을 준비하셨다는 것이다.

다섯째 인을 땔때에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에서 부르짖기를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 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럴때 흰 두루마리를 주셨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 리라고 하셨다. 이것은 복음운동이 완성되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을 보인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복음을 사랑한 자들, 다시말하면 참 교회를 가리킨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앞에서도 이 복 음을 진실되이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씀과 증거 때문에 순교했다. 무슨 상급이 주어졌는가? 현재는 칭의와 구원의 영광(넉넉한 구원)을 말하는 흰두루마리 가 각각 주어졌다. 미래에는 수가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우 리는 순교적 신앙을 그대로 파수하는 자가 되어야한다.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이런 순교자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2. 복음을 대적한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우리는 두 부류의 큰 사건을 본다. 불신자들의 심판과 택한자

14만 4천명의 구원의 역사를 본다(7). 오늘은 그 중에서 불신자들의 형벌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생각하려한다. 1) 그 날은 어린양의 진노의 날이라고 했다. 어린양의 진 실된 사역조차도 믿지 않는 자는 소망이 전혀 없다. 2) 큰 지각의 변동과 영적 세계 의 대 혼란이 일어난다. 큰 지진, 검은 해, 피와 같은 달, 하늘의 별들이 떨어짐,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떠나감,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김 3)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각 종, 자주자들이 심판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우리는 여기서 복 음에 대한 반응이 불신앙적으로 나타날 때 주어지는 두려운 결과를 본다. 무엇인가?

그 결과를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최대의 공포를 맞본다. 하나님의 최소한의 긍휼마저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지옥 형벌을 받는다. 보좌에 계신 분의 진노 를 피하려고 한다. 구더기가 죽지않고 불에 소금 치듯하리라고 했다. 그러나 죽지 않 는다. 영원토록 이를 삶이 있으리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이 땅에서 그 복음을 거절하 자는 그 진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죄사함, 삶의 목적, 능력, 참평안을 모르면서 살아가고있다. 이 두려운 심판의 손 아래서 벗어나 어린양의 복음을 받아드 려서 그 복음을 위한 순교자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다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앞에 두고 살아간다. 이 복음을 알 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경건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

1. Martyr or Unbeliever? (Revelation 6:9-17) 12. 7. 1997

Now, as He opens the remaining fifth and sixth seals, we hear the cries of martyrs and those who are being judged. This shows the important truth that how they respond to the gospel determines their fate. The former shows that God rewards them with a reward for being faithful to the gospel even to the point of martyrdom, and the latter shows that those who oppose and oppose the gospel are subject to a considerable judgment. What contrasting events occurred?

1. God has personally prepared a reward for those who are faithful to the gospel.

When the fifth seal was opened, the souls of the martyrs cried out from the altar, “How long will you avenge our blood?” At that time, he gave them a white scroll and told them to wait until the number was full. This shows what will happen to those who believed and followed until the gospel movement was completed and were martyred for the gospel. Who are they? They refer to those who loved the gospel, in other words, the true church. Why? This is because a Christian is someone who speaks this gospel truthfully in front of anyone. They were martyred for their words and testimony. What reward was given? Currently, each is given a white scroll that speaks of the glory of justification and salvation (ample salvation). In the future, we will wait until the number is full to receive the crown of life. We must become defenders of the martyrdom's faith. Do we live with this martyr-like attitude toward the gospel?

2. Those who oppose the gospel will definitely be punished.

When the sixth seal is opened, we see two major events. Judgment of unbelievers and the elect

We see the history of salvation of 144,000 people (7). Today, I would like to think about how severe the punishment of non-believers is. 1) That day was said to be the day of the Lamb's wrath. Those who do not believe in even the true work of the Lamb have no hope. 2) A great change in perception and great confusion in the spiritual world will occur. A great earthquake, the sun is shining, the moon is like blood, the stars in the sky are falling, the sky is moving away like a paper axis, the mountains and islands are moving out of place 3) The king of the earth, the royal generals, the rich, the strong, and all kinds of people. , he said that the independents are afraid of judgment. We see here the fearful consequences of an ungodly response to the gospel.

Something?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in two ways. 1) Experience the greatest fear. This is because they cannot experience even the minimal mercy of God. 2) Receive punishment in hell. Trying to avoid the wrath of the one on the throne. It was said that the maggots would not die but would be like salt in the fire. But it doesn't die. It was said that there would be this life forever. What is important is that those who reject the gospel are already receiving the wrath of this world. We live without knowing the forgiveness of sins, the purpose of life, power, and true peace. I hope that we all become blessed people who escape from under this fearful hand of judgment, accept the gospel of the Lamb, and live as martyrs for that gospel. We are living in a truly important time. We live in anticipation of the day the Lord will come. I cannot tell you

how happy I am now that I have come to know this gospel. I hope that all people of godliness will suffer along with the gospel.

2.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고백 (막8:27-33) 1997.1.12 주

첫 번 신앙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다"라는 고백이라면 두 번째 고백은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라는 삶의 계속 적인 결단을 보이는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신부 신랑이 결혼할때의 서약이 제 1의 고백이라면 서약후,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삶을 영위하는 평생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제2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속에서 우리는 이 두가지를 선명하게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시간 이 두가지 고백이 분명한가를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합니다.

1.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아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앞에 여러분은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으심을 받은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삼중직인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30-31절에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의 죽음은 선지자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은 왕으로서 의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세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교회가 주님처럼 잘 죽고 새생명가운데 거해야만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갈2:20)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고백이 확실하지 못한 슬픈 일들을 많이 봅니다.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예수님이 하 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당대 사람들이 고백한 대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들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는 그 를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있어야합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했습니다.(31-3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매"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그는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마태 16장에는 "그리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고백에 실패했습니다. 주 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 로 대답했습니다. 그 결과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뜻대로 살 겠다는 그의 고집은 마침내 연속적인 실패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청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보통 세가지의 통로를 통해 서 오는 줄 믿습니다. 1) 사탄의 유혹으로 옵니다. 2) 인정에 이끌릴 때 옵 니다.(감정) 3) 하나님의 생각에 둔해 있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각 이란 그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세에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도록 온갖 것 들이 매력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제 2의 신앙고백인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금년에 이루어짐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되기를 바랍니다.

2. Second Confession of a Christian (Mark 8:27-33) 1997.1.12 Week

If the first confession of faith is the confession,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the second confession can be said to be a confession that shows the continued determination of life, “I will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Lord.” It can be said that if the first confession is the vow that the bride and groom make when they get married, then the second confession is that they keep it for the rest of their lives as they lead a life of love and obedience to each other. In Peter's confession, we clearly discover these two things. We would like to take this time to examine whether these two confessions are clear.

1. There was a confession of true knowledge of who Christ is.

Peter confessed, “You are the Christ.” In response to the Lord's question, “Who do you say I am?” who will you say you are? The question is, can the answer be Christ? Christ is the anointed one. The fact that Jesus is the Christ means that he holds the threefold office of king, prophet, and priest in the Old Testament. This is a very important key to properly understanding the Bible. In verses 30-31, the Lord prophesies his death and resurrection. This means that only Christ can do what he can do. His death was that of a prophet and high priest. His resurrection is his coming back to life as a king. The church today only carries out the three duties of its head, Christ. The image of Christ is revealed only when the church dies well like the Lord and lives in new life. (Galatians 2:20) In today's church, we see many sad things that are not clear about this confession. This means that they do everything else but cannot believ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As the people of his time confessed, the

knowledge that he is Jeremiah, Elijah, or one of the prophets does not mean that he is known directly.

2. There must be a confession that one will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Lord.

What did Peter do next? The Lord spoke of his death and resurrection. (31-32)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He rebuked the Lord.

Matthew 16 says, “Do not do so.” At that time, the Lord rebuked him, saying, “Satan, you are the one causing me to stumble.” And it is said that you do not set your mind on the things of God, but on the things of men. He failed his second confession. He did not respond with a confession that the Lord's will be done, but with his own human thoughts. As a result, he lived a life of failure. His insistence on living his life the way he wanted eventually led to a series of failures. Where does this absurd request from Peter come from? I believe he usually comes through three channels. 1) It comes as a temptation from Satan. 2) It comes when you are led by recognition (emotion). 3) It happens when you are dull to God's thoughts. The mind of God refers to his word. In the last days, all kinds of things come with their charm to dull our minds. I hope that you will achieve great history this year by making the second confession of faith, “I will live not according to my own will, but according to the Lord's will.”

Let's follow the Lord's example (Mark 8:22-26) 1997.1.5 New Year's Sunday Sermon

On the first Sunday of 1997, New Year's Thanksgiving Day, I hope that God's grace will be with your family and business. We believe that in order to become a community of faith that creates history, we must follow the example

of the Lord's ministry. How does today's word show us an example of that ministry?

1. He set an example of secret ministry.

He asked people to bring him a blind man and lay hands on him to heal him. We see that all history always begins with prayer. Then the Lord took him to a quiet place and healed him. Why did the Lord go to a quiet place and heal? One is that he was worried that people would misunderstand during the healing process. This is because we tend to lose sight of our purpose. He has prevented the tendency to objectivize the means and instrumentalize the ends. The spirit of honorism, advertising, and greed is not the spirit of the Lord. The other is to guard against heroism, which is the temptation of the devil.

Our Lord accomplished great work through His ministry in complete secrecy.

We hope that our church will become a church that achieves secret yet great work and that experiences the answers that God will surely give.

2. He set an example of patient ministry.

The Lord healed the blind man by laying on his hands twice. He once said that he saw something like a tree walking before his eyes, and another time he said that his eyes were bright and he could see clearly. Why did the Lord touch us twice when He is so powerful? 1) It is because our depravity is so deep and it is for our perfection. He did not give it all at once. He took time to heal. That is why God has put in place a complete healing process. The doctrines of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are very important lessons in Christian salvation. Justification is something that is accomplished once and for all.

(Romans 3:21-22) It is said to be the righteousness of God that extends to all believers as it is confirmed by the law and the prophets. It's legal. However, sanctification begins with justification and covers a life that gradually becomes more like Christ (Romans: 29) (Ephesians 4:13) (Galatians 4:19). Therefore, we absolutely need the ministry of patience.

3. And he set an example of family (internal) ministry.

He warned the healed man not to go to the village and told him to go to his home. How can he help others if he cannot even take care of his own family? For church officials, taking care of one's own family is an important qualification. Church is like a home. There must be love and obedience (Acts 2:42-47). We hope that our church will have a great experience in family ministry this year. This is the secret to true revival.

3. 주님의 본을 따르자 (막8:22-26) 1997.1.5 신년주일설교

1997년도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위에 하나님
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사역의 본을 따라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역의 본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줍니 까?

1. 그는 은밀한 사역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소경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 든
역사는 언제나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데 리고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서 고치셨습니다. 왜 주님은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고치셨나요? 하나는 고치시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오해할 것 을
걱정하셔서 그러하셨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
입니다. 수단을 목적화하고 목적을 수단화하는 경향을 막으셨습니다.
명예주의, 광고주의, 한탕주의의 정신은 모두다 주님의 정신이 아닙니
다. 다른 하나는 마귀의 유혹인 영웅주의를 경계하시려는데 있습니다.
우리주님은 철저히 숨으시는 사역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교회는 은밀하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아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 그는 인내하는 사역의 본을 보였습니다.

주님은 두 번이나 안수하시면서 그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한번은 그의
눈에 나무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본다고 말했고, 다른 한번은 그 의
눈이 밝히 떠나 확실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은 능력이 많

으신데 두 번씩이나 안수(Touch) 하셨는가? 1) 우리의 부패성이 너무 나
깊기 때문이고 우리의 완전을 위해서입니다. 한꺼번에 주지않으셨
읍니다. 시간을 두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치료의 과정을
두신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칭의(Justification)는 단번에 이루는 일입니다.

(롬3:21-22)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으로 모든 믿는자에게 미
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Sanc-
tification)는 칭의로 시작하여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롬:29)(엡4:13)(갈4:19).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인내의 사역 이
절대 필요하다.

3. 그리고 그는 가정 (내적) 사역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마을로 가지말라고 경계하시고 자기 가정
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가정하나 건사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
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직분자는 자기 가정 건사가 중
요한 자격조항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사랑과 복종이 있어야
한다(행2:42-47). 금년에 우리교회는 가정 사역에 있어서 위대한 경험을
하기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비결이다.

3. Let's follow the Lord's example (Mark 8:22-26) 1997.1.5 New Year's
Sunday Sermon

On the first Sunday of 1997, New Year's Thanksgiving Day, I hope that God's
grace will be with your family and business. We believe that in order to

become a community of faith that creates history, we must follow the example of the Lord's ministry. How does today's word show us an example of that ministry?

1. He set an example of secret ministry.

He asked people to bring him a blind man and lay hands on him to heal him. We see that all history always begins with prayer. Then the Lord took him to a quiet place and healed him. Why did the Lord go to a quiet place and heal? One is that he was worried that people would misunderstand during the healing process. This is because we tend to lose sight of our purpose. He has prevented the tendency to objectivize the means and instrumentalize the ends.

The spirit of honorism, advertising, and greed is not the spirit of the Lord. The other is to guard against heroism, which is the temptation of the devil.

Our Lord accomplished great work through His ministry in complete secrecy.

We hope that our church will become a church that achieves secret yet great work and that experiences the answers that God will surely give.

2. He set an example of patient ministry.

The Lord healed the blind man by laying on his hands twice. He once said that he saw something like a tree walking before his eyes, and another time he said that his eyes were bright and he could see clearly. Why did the Lord touch us twice when He is so powerful? 1) It is because our depravity is so deep and it is for our perfection. He did not give it all at once. He took time to heal. That is why God has put in place a complete healing process. The doctrines of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are very important lessons in

Christian salvation. Justification is something that is accomplished once and for all.

(Romans 3:21-22) It is said to be the righteousness of God that extends to all believers as it is confirmed by the law and the prophets. It's legal. However, sanctification begins with justification and covers a life that gradually becomes more like Christ (Romans: 29) (Ephesians 4:13) (Galatians 4:19). Therefore, we absolutely need the ministry of patience.

3. And he set an example of family (inner) ministry.

He warned the healed man not to go to the village and told him to go to his home. How can he help others if he cannot even take care of his own family? For church officials, taking care of one's own family is an important qualification. Church is like a home. There must be love and obedience (Acts 2:42-47). We hope that our church will have a great experience in family ministry this year. This is the secret to true revival.

4. 주님을 따르려면 (막8:34-38) 1997.1.19 주

칠혹같이 어두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게는 등대가 유일한 소망인 것 처럼 어두운 세상, 어두운 인생에게 있어서 유일한 불빛은 주님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친히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며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오늘 주님은 친히 말씀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했습니다(34).

1. 그 의미

주님을 따르는 일은 목숨을 구하는 일입니다. 손해 보거나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어떤 수고라도 헛된 것이 전혀없습니다. 냉수 한그릇도 상을 잃지않는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구한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헛된 것을 구하고 가치없는 것에 모든 것을 힘을 쏟고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나 그 결과는 갈증입니다. 솔로몬의 결론처럼 해아래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결론에 도달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2. 그 방법

주님은 두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자아를 부인함(Self-denying)으로서 따라가야합니다. 이것은

자아학대와 자학행위가 아닙니다.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 다음에 두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는 자아부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막는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아부인의 절정은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에서 보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 결과는 향유요, 그의 인격은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과 온유가 나옵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짐(Cross-taking)으로서 따라가야 합니다. 먼저 자기가 부인된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가 허비, 손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란 사명(Mission)입니다.

명에이기에 무겁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천대받습니다. 절대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옵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수레바퀴 그림처럼 1) 말 씀과 씨름하는 것, 2) 기도하는 것 3) 교제하는 것 4) 전도하는 것 5) 교회의 맡은 직분을 충성하는 것이 십자가지는 것입니다. 마6:33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서 원천적 복을 받는 자리로 나가기 바란다.

4. To follow the Lord (Mark 8:34-38) 1997.1.19 week

Just as a lighthouse is the only hope for a ship sailing on a pitch-dark ocean, the Lord is the only light in a dark world and a dark life. So, the Lord Himself said that He is the light of the world, and He said that anyone who follows Me

will receive the light of life. Today, the Lord Himself spoke about how we must follow Him in order to follow Him.

In short, if you want to follow the Lord, he said,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34).

1. Its meaning

Following the Lord means saving his life. It's not about losing money or losing your life. No effort is in vain for the Lord. He said that not even a bowl of cold water would lose the prize. Saving one's life refers to the salvation of one's soul. "A well-being of the soul" is something that has value that cannot be exchanged for anything in the world. People are seeking vain things and putting all their effort into worthless things. Like the woman at the well, we pursue worldly pleasures, but the result is craving. Just like Solomon, we will come to the conclusion that all our efforts under the sun are in vain. Please follow the Lord at any cost to save your life.

2. How to do it

The Lord taught us two ways. What is the principle? First, we must follow through with self-denying. This is not self-abuse or self-torture. It refers to the act of placing one's position next to God. Peter also showed self-denial, saying, "I am a sinner." However, they also became Satan's puppets blocking the way to the cross. The peak of self-denial is seen in the Lord's prayer in the Garden of Gethsemane.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be done." The result is enjoyment, and his character becomes humble and meek, becoming more like the Lord. Second, we must follow our cross by carrying it. He who has first been disowned can do this. This is because for those who have not denied

themselves, the cross seems like a waste and a loss. The cross is a mission.

It is heavy because it is a yoke. I don't understand. I am treated with contempt. We demand absolute recovery. But after the cross comes the glory of resurrection. So what does taking up one's cross look like? As shown in the picture of the wheel, bearing the cross consists of 1) wrestling with the Word, 2) praying, 3) fellowshiping, 4) evangelizing, and 5) being faithful to the duties of the church. As written in Matthew 6:33, we hope that we will receive fundamental blessings by giving our all to seeking God's kingdom and righteousness in our hearts.

5. 하나님나라의 기초인 십자가 (막9:1-13) 1997.1.26 주

변화산의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나라는 권능의 나라라는 사실과 아울러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 위에 세워져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 나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1. 그 나라는 위엄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1-2절에 예언한 그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그 나라는 권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나라가 어떻게 권능으로 임했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했읍 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실 주님의 모습, 재 림주님의 모습입니다.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엘리야,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한계 속에 영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보는데서 변형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누누히 가르쳐주셨습니다. 누룩비유, 겨자씨비유 알곡비유는 작은 것이 갑자기 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초능력 으로 그렇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능력이 입히울때까 지 이 성에 유하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한다고 했습니다. 빌4:13절의 고백이 사실대로 일어납니다.

2. 그 나라는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찾아왔지만 그들은 모두다 주님을 증거하는 사환에 불과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했나요?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중심이 주님과 그의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황홀경에 떨어진 그들은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오직 너희는 저의 말만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통치하는 왕이 십니다.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인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죽습니다. 엘리야보다 더 큰 선지자인 주님의 권능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권능의 나라가 임한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순종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는 살길이 생깁니다.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왜냐? 그 나라의 왕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3. 그 나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이런 기적을 보이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이 사건,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사실상 구약의 주된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서도 주된 관심사도 주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나라가 왜 십자가의 사건을 기초로 해야합니까? 죄문제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면 그들의 죄를 처리하셔야 하는데 무엇으로 처리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도 십자가여야 합니다. 다른 것을 중시하고 자랑하면 그는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나라요 마귀의 나라를 세우는 자입니다.

5. The Cross, the Foundation of the Kingdom of God (Mark 9:1-13)

1997.1.26 Week

From the incident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we can see that the kingdom of God is a kingdom of power and that it is built on the incident of Christ's death. What kind of country is the kingdom of God?

1. The country is full of majesty.

According to the words prophesied in verses 1-2, that kingdom is clearly a kingdom of power.

How did the kingdom of God come with power? It came with supernatural power. Jesus' appearance changed. This is the appearance of the resurrected Lord, the Lord of the Second Coming. It was timeless. Elijah and Moses appeared.

An eternal event occurred within the limit. He was transformed when I saw him last time.

The power of this nation is at work within us today. Jesus repeatedly taught us that this power is already at work. The parable of the yeast, the parable of the mustard seed, and the parable of the grain are that just as small things suddenly become large, the kingdom of God grows that way with supernatural power. Therefore, Christ tells us to remain in reason until His power comes upon us. It is said that this power comes through the Holy Spirit. The confession in Philippians 4:13 comes true.

2. That country is a country where the Lord rules as king.

Elijah and Moses came, but they were all servants who testified for the Lord. What did you talk about? It was the Lord's work. The center was the Lord and His work. What was even more surprising was that they were in a state of ecstasy and were talking nonsense. Then a voice from heaven said, "Only listen to what he says." The Lord is still the center. Jesus is the king who reigns now. If we do not listen to the prophet who is greater than Moses, we will all die. There is no hope if you do not believe in the power of the Lord, who is a greater prophet than Elijah. That kingdom has already come to this land. So, the era has come to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How should you live in this era when the kingdom of power has come? It is only obedience. At that time, he will have a way to live. If you disobey, you will perish. because? This is because the reign of the king of that country continues to this day.

3. The country is founded on the death of the cross.

In today's text, the Lord spoke of the incident of death on the cross while showing this miracle. This incident in which people must die was their concern. In fact, the main concern of the Old Testament is the death of Christ. The main concern in the Lord's ministry is also the Lord's death. Why must the kingdom of God be based on the incident of the cross? It's because of the sin problem. To save his people, he must deal with their sins, but with what? It is because of Christ's death in His place. So the only thing Paul boasted about was the cross. Your pride must also be the cross. If you focus on other things and boast about them, you are not the one building the kingdom of God. He is the one who establishes his own kingdom, the kingdom of the devil.

6. 하나님나라 능력의 도구인 기도 (막9:14-29) 1997.2.2 주

기도의 달이다. 모두 기도의 사람, 기도의 가정, 그리고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 본문의 내용은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나라의 권능을 보여주고있다. 자아부인과 자기 십자가지는 것은 기도의 세계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하나님나라의 능력은 기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주님은 밝히 보여주셨다. "기도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수 없느니라." 하나님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오늘 현실에 나타나는가?

1.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19절에 주님은 믿음없음을 탄식하셨다. 23-24절은 믿는자에게는 능치 못할일이 없느니라 하고하셨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11:1)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신뢰, 사랑, 그리고 의지의 결단을 말한다. 행복을 의미한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믿음이 없으면 아비멜렉처럼 악신이 역사한다. 아비멜렉의 성공은 악신의 역사로 그 자신의 비참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믿음을 가진자를 통하여 그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다. 귀신이 도망갔다.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면 된다고 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이 대신 하신다. 우리는 수종자요 주님이 주체자이시다.

오병이어의 제자들의 수종처럼, 나사로 무덤에서의 수종처럼 우리의 공로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나라의 성취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2.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28-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고 했다. 변화산에서 기도 하시다가 변하셨다. 한적한 곳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40일 금식기도, 갯 세마네동산의 기도는 본을 보이심이다. 기도가 헛되지않았다. 씨를 심었다. 하 나님과 의 만남에서 일하셨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목표를 정해 기도하고, 기도의 수고를 드러라. 한나처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니까 해결된다.

(Pouring down my soul) 요담의 저주(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은 택한자 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에스더 역시 기도해서 구국하였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없이 살다가 마귀의 종 노릇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하라. 청교도들은 기도 가 뜨거웠다. 수많은 책과 학문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나타난다.

24-25절에 예수님이 현실이란 현장에서 그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셨다. 대상을 보고 명령하셨다. "나오고 들어가지말라." 성경암송은 그 방법 중의 하나다. 이 것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기독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사 용하라.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라. 말씀을 담대히 적용했다. "금과 은은 없거 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앓은 병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씀을 모든 문제에 적용하라. 하나님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야한다. 그러기위해 서 믿음, 기도, 말씀의 적용을 통하여 일어나야만 한다. 주님을 신뢰하라. 그 분 안에 거하라.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적용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맞보는자가 되기 바란다

6. Prayer, a tool of God's kingdom power (Mark 9:14-29) 1997.2.2 week

It is the month of prayer. I hope that everyone will become a people of prayer, a family of prayer, and a church of prayer. The content of the text shows the power of God's kingdom through the incident of healing a demon-possessed child. Self-denial and taking up one's cross are created in the world of prayer. The Lord clearly showed that the power of the kingdom of God is revealed through prayer. "This type cannot come out except through prayer." How is the power of God's kingdom manifest in reality today?

1. It appears through faith.

In verse 19, the Lord lamented over lack of faith. He said in verses 23-24 that all things are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What is faith? (Hebrews 11:1) It speaks of trust, love, and determination of will that God can do all things. It means surrender. The problem is not relying on His Word and Him. Without faith, evil spirits work like Abimelech. Abimelech's success resulted in his own miserable death due to the work of an evil spirit. The power of the country is revealed through those who have this faith. The ghost ran away. It was said that if faith is as small as a mustard seed, he can command this mountain. I am weak, but the Lord acts on my behalf. We are the servants and the Lord is the subject.

Like the attendants of the disciples at the Five Loaves and Two Fishes and the attendants at the tomb of Lazarus, our merits are not included there. The achievement of the country is achieved through this community of faith.

2. It appears through prayer.

Verses 28-29 say that this kind of thing cannot come out except through prayer. While praying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He was transformed. He prayed according to his custom in a quiet place. The 40-day fasting and prayer in the Garden of Gethsemane is an example. The prayer was not in vain. I planted a seed. He worked in an encounter with God. Set a time to pray, set a goal and pray, and give the effort of prayer. It will be resolved if you pray with your heart like Hannah did.

(Pouring down my soul) Our God, who heard Jotham's curse (prayer), releases the grudges of the chosen one. Esther also prayed and saved her country. If I die, I will die.

Do not live without prayer and become a slave of the devil. The Puritans were passionate about prayer. Even if there are countless books and studies, they are nothing without prayer.

3. It appear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Word.

In verses 24-25, Jesus gave a command to address the problem in the field of reality. He looked at the object and gave the command. "Come out, don't go in." Memorizing the Bible is one of those methods. This is applied in the field. Take the Christian Word and use it when the devil's temptation comes. Look at Peter in the Acts of the Apostles. He applied the word boldly. "There is no gold or silver, but walk in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Apply the Word to

all problems to solve problems such as the lame man. The power of God's kingdom must be revealed. For this to happen, it must happen through faith, prayer, and application of the Word. Trust in the Lord. Abide in Him. Apply the Word like a child. Therefore, I hope that you will experience the power of the kingdom of God.

7. 섬김의 길을 가자! (막9:30-37) 1997.2.9 주

람은 누구든지 앞서기를 좋아한다. 꼬리가 되는 것보다 머리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본래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위치 때문이고 그리스도안에서 거듭나 성령을 받음으로서 우리 수에 생기는 성령의 소욕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 들이 마땅히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섬김의 길, 곧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셨다.

1. 섬김의 도란 그리스도인이 가야할 당위의 길이다.(33-35)

노중에서 제자들은 서로 토론하기를 “누가크냐?”라고 논쟁을 했다.(33-35) 주님은 갈 바를 알지못하는 그들에게 켤레를 박으셨다. 첫째가 되고 싶은 자는 남을 섬기는 종이되어야한다고 했다. 정복자와 승리자는 모두 다 섬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일에 본을 보이셨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반드시 가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요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그리고 어 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소자를 주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안수받기 위하여 찾아 온 아이들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 셴다. 어린아이 처럼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복된 길을 믿지 않는다. 그 비밀을 모른다. 이 섬김의 길이란 자아부인의 길, 십자가 지는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공연히 이상한 진리,

반쪽 것, 한면만 알아 가지고 이 상한대로 치우쳐 있다. 바로 이길을 갈 때 주님을 하나님을 만난다.

2. 섬김의 길을 갈 때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35절에 보면 영적 지도자 되려면 이렇게 하라는 간접적인 암시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섬기는 자가 될 때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는 것이다. 겸손의 도가 섬김의 도다. 교만은 멸망의 압잡이요 겸손은 존귀의 압잡이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다. 입다라는 사사는 영적 지도자로서 어디에 있든지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갔다. 하나님은 그를 그 시대에 사용하셨다. 오늘 날은 이런 영적 지도자를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3. 섬기의 도를 가는 자가 소자를 용납 할 수 있다.

37절에 주님은 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소자를 환영하는 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성부를 용납하는 것이라고 했다.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소자를 결코 용납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 문제는 교회가 소자를 용납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고 강박한 마음입니다. 자아부인 의 마음이 아니라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찬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까지 다른 사람에게 지워놓으려는 마음이다. 주님은 마음이 강하고 믿음이 없고 자이를 부인할줄 모르는 시대를 향하여 탄식하신다.

왜 그럴까요? 소자를 용납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물과 기름이 혼합되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섬기는 도를 가는 것이어야한다. 그곳에 생명 의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에 위대해지는

비결이 있다. 이것이 교회의 재산이며, 교회의 불이며, 교회의 생명이며 교회의 능력인 것이다.

7. Let's take the path of service! (Mark 9:30-37) Week of February 9, 1997

Everyone likes to be ahead of others. He thinks it is a blessing to be the head rather than the tail. He has two reasons for thinking that way. One is because of the original position given to us by God and the desire for the Holy Spirit that arises in us as we are born again in Christ and receive the Holy Spirit. But today, our Lord presented a clear direction that all Christians should follow, which is to follow the narrow path, the path of service.

1. The way of service is the path Christians should follow. (33-35)

On the way, the disciples debated among themselves, "Who is the greatest?" (33-35) The Lord drove a wedge into them as they did not know where to go. He said that those who want to be first must become servants who serve others. Conqueror Jesus, who is the king of the kingdom of God, must go the way of death on the cross, saying,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Then he set aside a little child and said that whoever welcomes this little child in the name of the Lord welcomes me. The Lord did not turn away the children who came to be ordained. It is said that those who worship like children will enter heaven, but people do not believe in the secret of this blessed path, which is the path of self-denial, the path of truth, and the path of life. This is the way to live as a person used by God in this world. When you only know strange truths, half things, and are biased towards this limit, you will meet God.

2. You can become a spiritual leader when you follow the path of service.

In verse 35, we can see an indirect hint that we must do this if we want to become a spiritual leader. When you become a servant, you will become a ruler. The way of humility is the way of service. Pride is the oppression of destruction, humility is the oppression of honor. It is said that he defeats the proud and gives grace to the humble. A judge named Jephthah was a spiritual leader and lived with the attitude of a servant wherever he was. God used him in his day. Today, there is a desperate need for such spiritual leaders.

3. Those who follow the path of service can tolerate minors.

In verse 37, the Lord made a precious declaration. It is said that those who welcome children welcome the Lord, and those who welcome the Lord accept the Father. If you do not have a heart of service, you will never have the ability to tolerate children. The problem today is that the church is unable to tolerate minors. There is no humility and a strong heart. It is not a heart filled with self-denial, but a heart filled with pride in one's self. I am not someone who carries a cross, but rather I want to burden others with my own cross. The Lord laments toward an age where people are strong-hearted, faithless, and do not know how to deny themselves.

Why is that so? This is because they do not have the ability to tolerate minors. It's like water and oil don't mix. Our lifelong wish should be to follow the path of service. The history of life takes place there. Therein lies the secret to greatness. This is the property of the church, the fire of the church, the life of the church, and the power of the church.

8. 화목의 길로 가자! (막9:38-50) 1997.2.16 주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분쟁과 아울러 한사람의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온다. 주님은 안목이 좁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대로 두라고 하셨다. 도리어 소자를 용납하라는 권면하시기를 "누구든지 내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냉수 한그릇 준 그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않으리 라"고 했다. 소자에 대한 용납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 야할 길임을 가르쳐주셨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화평은 왜 그렇 게 중요한가?

1. 화평이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38-41)

38-41절에 보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면 비록 따르지 않는다해도 그것을 막는 것은 좁은 안목이라는 것이다. 제자들은 화목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가 되게하셨고 하나되도록 이끌어나가신다. 그렇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무작정 받아드리라는 말이 아니다. 기적이 일어났다해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났는가 가 중요하다. 참기적은 주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사는 순종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 거짓 기적은 사람의 유전이 앞서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넓은 안목이 요구된다. 화목케하는 눈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볼 수 있어야한다. 왜냐, 주님의 하나이 되게하시는 일을 힘써 지켜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용납의 마음을 거부하면 안된다.

이것은 그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일이다. 우리는 서로 부족한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한다.

2. 화평이란 지옥을 이기는 생활이기 때문이다. (42-47) 본문에는 영생과 영벌의 문제를 다룬다. 현재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어떠한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주님을 강하게 경계하셨다. 여기 손과 발과 눈은 우리의 마음을 지칭하는 말이다. 마음으로부터 독한 것이 나온다. 음란, 간음, 살인, 도적질이 나온다. 마음의 것이 이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화목을 추구하는 자는 먼저 마음에 평강이 가득차야한다. 특히 말이 중요하다. 길들이기 어렵고 지옥불이 거기서 나온다고 했다. 늘 마음에 화평이 지배할때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잘 통 하게된다. 왜 사람들이 지옥생활을 하는가? 평강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다투고 사람과 다투기 때문이다.

3. 화목이란 맛을 내는 생활이기 때문이다. (48-50) 여기 소금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심판의 도구(소금으로 치듯하리 라)로서 다른 하나는 은혜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 목하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살아갈 때 맛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교회는 평범한 삶 속에 맛을 내는 사람으로 가득차야한다.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복을 받는자가 되어야한다. 화목의 길이란 그리스도인 의 본질이기에 우리는 이길을 따라가 맛을 내는 삶을 영위해야하겠다.

8. Let's take the path of reconciliation! (Mark 9:38-50) Week of February 16, 1997

In today's text, there is a dispute between the disciples and the Lord's evaluation of casting out one person's demon. The Lord rebuked the disciples

for their narrow-mindedness and told them to leave it as is. On the contrary, he advised to tolerate the child, saying, “Whoever gives this child a bowl of cold water in my name will in no way lose his reward.” He taught us that acceptance of children and seeking peace is the path a Christian should take. Why is peace so important in the Christian life?

1. Because peace is the essence of the church. (38-41)

Verses 38-41 say that if you do it in the name of Christ, even if you do not follow it, what prevents it is narrow-mindedness. The disciples did not know that harmony was the essence of the church. The Holy Spirit came and made us one and leads us to become one. However, just because a miracle has occurred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blindly accept it. Even if a miracle occurs, it is important whether it happened in the name of the Lord. True miracles are the fruit of obedience by following the Lord and His Word. False miracles are human traditions taking precedence. Therefore, a broad perspective is required within the truth. We must be able to look at the incident with a reconciliation eye. This is because we must do our best to keep the Lord’s unity. Just because we have different opinions, we should not reject the spirit of acceptance.

This is about standing in the position of judge. We must not forget that we are all sheep that lack each other.

2. Because peace is a life that overcomes hell. (42-47) The text deals with the issues of eternal life and eternal punishment. The present choice determines eternity. The Lord strongly warned against falling into hell in any way. Here, hands, feet, and eyes refer to our mind. Something poisonous comes from the heart. Sexual immorality, adultery, murder, and theft appear. This is because

what is in the heart is expressed through this. Therefore, those who pursue harmony must first be filled with peace in their hearts. Words are especially important. It is said that it is difficult to tame and that hellfire comes from there. When peace always reigns in your heart, you can communicate well with God and with people. Why do people live in hell? Because there is no peace. This is because they fight with God and with people.

3. Because harmony is a life that gives flavor. (48-50) Salt here has two meanings. One was used as an instrument of judgment (like salt) and the other was used as an instrument of grace. (Be at peace with one another over salt) We can live a delicious life when we live with each other with a serving heart.

The church should be filled with people who bring flavor to ordinary life. Like Joseph, you must become a person who receives blessings wherever you go because of me. Since the path of reconciliation is the essence of Christians, we must follow this path and lead a life of flavor.

9. 건강한 가정의 요건 (막10:1-12) 1997.2.23 주

그동안 우리가 생각한 겸손과 화목의 길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원리가 이루어 질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주님은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으시고 당대의 팽배한 인본주의 가정관의 죄악성을 지적하시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길을 우리에게 계시해주셨다. 어떻게 그런 가정을 이루는가?

1. 성경의 권위에 복종함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인을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던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전혀 달랐다. 그들은 유전에 근거를 두었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성경관을 본다. 예수님은 모세의 가르침의 권위가 하나님의 가르침임을 인정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자기를 가리켜 더 권위가 있는 자로 주장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다. 더우기 예수님이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사실이다. 건강한 가정은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반석위에 집을 지은자를 지혜롭다 하셨는데, 이 반석은 성경이다. 성경의 가르침 위에 내 가정을 세울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사회도, 국가도 성경위에 세울때 든든하다. 우리의 가정이 성경의 권위에 순종할 때 건강해진다. 변화산의 황홀경에서도 주님의 말씀만을 들어야하고 평범한 가정 역시

"너희는 저의 말만 들어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하겠다.

2. 창조의 질서를 따라감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6-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님은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원리로 답하셨다. 창조의 원리란 무엇인가? 1)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못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이다. 중성은 없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말도 된다. 자기의 할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2) 일부일처의 가정의 연합이 힘써 지켜져야한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분을 품으로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라는 말씀은 사랑과 복종관계가 뜨겁게 이루어지라고 했다. 3) 가정파괴를 하나님은 엄중하게 다루신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다. 하나이 됨을 파괴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도전이다. 오늘날 이런 창조질서를 깨어버리고 가정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왕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자

3. 마음을 잘 지킴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모세가 이혼증서를 주라고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음을 잘 지킬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전 인의 좌소로서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 건강하게 된다. 보혈로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질 때 부드러워진다. 이런 마음에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 인본주의

가정관이 판을 치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성경 적 가정관을 계속
파수해나감으로 건강한 가정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9. Requirements for a healthy family (Mark 10:1-12) 1997.2.23 week

The path of humility and harmony that we have been thinking about can
become a healthy family when this principle is realized not only by
individuals but also by families. Here, in response to a question from the
Pharisee, the Lord pointed out the sinfulness of the prevailing humanistic
view of the family at the time and revealed to us the way to create a healthy
family. How do you make such an assumption?

1. You can create a healthy family by obeying the authority of the Bible.

Our Lord, who preached the word, taught, and healed the sick,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teachings of the Pharisees. Because they were
based on tradition, but Jesus was based on the Bible. We see Jesus' view of
the Bible here. Jesus acknowledged the authority of Moses' teachings as the
teachings of God. Jesus claimed to have more authority than Moses. This is
the claim that Jesus himself is the Son of God. Moreover, it is true that Jesus
believed the Old Testament to be the word of God. A healthy family is created
when one obeys the authority of the Bible.

He called the man who built his house on a rock wise, and this rock is the
Bible. This means that if you build your family based on the teachings of the
Bible, you can create a healthy family. A society and a nation are strong when
they are built on the Bible. Our families become healthy when they obey the

authority of the Bible. Even in the ecstasy of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we must only listen to the word of the Lord, and ordinary families must also

I must go out after hearing the voice of the Lord, “Listen only to what I say.”

2. You can create a healthy family by following the order of creation.

In verses 6-9, the Lord answered the Pharisees' questions with the principles of creation found in the Bible. What is the principle of creation? 1) Building a family is the principle of creation. It is not good to be alone, so God created man and woman. There is no neutrality. It can also be said that men and women have different roles. It is our job to do our job faithfully. 2) The unity of a monogamous family must be vigorously maintained. Leave your parents and become one flesh. Do not indulge in anything other than prayer.

The saying that if you are angry, let it out before the sun sets means that the relationship of love and obedience should be passionate. 3) God treats family destruction seriously. He said that man cannot separat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Destroying unity is a complete challenge to God's will. Today, breaking this created order and thinking carelessly about the family is a challenge to God's authority and following the devil. Let us live as subjects of His rule, knowing that we are the masters of our families and that the King is the Lord.

3. You can create a healthy family by guarding your heart well.

He said that the reason Moses asked them to give them a certificate of divorce was because their hearts were hard.

When you keep your mind well, you can create a healthy family. What is mind? It is the seat of all human beings and the source of life. When your

heart is filled with the heart of the Lord, you become healthy. We become soft when we are washed in the blood and filled with the grace of Christ. To this heart, the Lord gives grace. In these times when the humanistic view of the family is prevalent, we hope that we will continue to uphold the biblical view of the family and enjoy God's blessings given to healthy families.

10. 영생을 얻는 방법 (막10:17-31) 1997.3.2

오늘 본문은 세가지 문제를 분명히 말한다. 영생얻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다, 구원받는다 는 말이 모두 같은 의미라고한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원받 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서 내 속에서 봄철의 약동처럼 강하게 움직이 는 영생의 은혜를 확인하려고한다. 어떻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1.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한다.

17-22절까지 보면, 한 청년이 주님에게 나아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 영생 얻는 방법을 물어 보았다. 그때 주님은 계명을 지켰는지를 물어보셨고 그의 부족한 것을 하나 지적하시면서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좇으라고 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 행위 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운다. 그동안 행한 계명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재주를 동원하여 무엇을 이룬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 생각하고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수고를 부인할줄 모르고 주님을 따라 갈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는 자 들이 많다. 갈라디아 이단이 이런데서 나온다. 이 부자청년의 잘못은 바로 여 기에 있다. 바울이 말한대로 나의 나뉘는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하겠다. 그는 육체의 자랑이 많았지만 모든 것을 배설 물로 취급했다. 자기의 행위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보좌를 통과할 수 없 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로 자기의 행위를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할 수 이었다.

2. 우리의 구원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그 청년이 주님을 떠나가자 제자들은 주님에게 물어보았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하자, 주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고 했다. 인간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다. 전능 하신 하나님 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 약대비유가 나온다.

바늘 귀로 약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처럼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라. 인간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 얼마나 혼란과 혼돈이 거하는 시대인가? 그 시대에 왕이 없 음으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궁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보인다. 죄인은 아무 공 로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처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3.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주님은 이 청년에게 한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셨다.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 의 부족을 지적하신 것이었다. 그는 다른 것을 믿었다.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 에 대신 갖다 놓았다. 바로 이 한가지를 믿었던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믿 을 때 구원이 해결된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한가지 때문에 바른 자리에 못 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한가지 부족 때문에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 한가지 부 족은 명예욕일 수 있다. 이 한가지 부족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 랑일 수 있다.

우리는 이 한가지 부족을 찾아서 모두 포기하고 주님에게 돌아가야 하겠다. 그럴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것이다. 한가지 부족으로 매일 싸우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것을 포기하는 지도자가 되자

10. How to obtain eternal life (Mark 10:17-31) 1997.3.2

Today's text clearly addresses three issues. It is said that gaining eternal life, entering heaven, and being saved all mean the same thing. So, at this time, by thinking about how to be saved, I will try to confirm the grace of eternal life that moves within me as strongly as the pulse of spring. How do you get saved?

1. We must understand that we cannot be saved through our own actions.

Looking at verses 17-22, a young man came to the Lord and asked, "What must I do to receive eternal life?" He asked how to obtain eternal life. At that time, the Lord asked him if he had kept the commandments and pointed out one of his shortcomings. He told us to sell all our possessions and give them to the poor and follow me. We learn here that salvation cannot be achieved through human actions, such as keeping the commandments, doing good deeds, and using talents. However, there are many people today who think that they can be saved through works and who insist that they can follow the Lord without knowing how to deny their wealth, youth, and hard work. This is where the fault of this rich young man comes from. It is right here that we must make it our confession that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but although he was proud of his flesh, he treated everything as excrement. He

realized that he could not pass through his throne, so he could treat his actions as worthless.

2. We must know that only God can do our salvation issue.

When the young man left the Lord, his disciples asked the Lord. When asked who could be saved, the Lord said that people cannot, but God can do all things. This means that although humans are in despair, God can do anything. This means that only Almighty God can solve this problem. Here comes the analogy of medicine.

Just as a camel cannot pass through the eye of a needle, Christians cannot achieve salvation by their own strength. Look at the period of the judges.

What can humans do? How dark are these times? How much confusion and chaos is this era? It is said that since there was no king at that time, he did as he saw fit. God took care of these people and saved them. The cross of our Jesus shows this very thing. It shows us that the sinner has no merit, but only God has dealt with the matter.

3. We must know that our salvation comes only through faith.

The Lord pointed out one thing this young man was lacking. What is it? He was pointing out a lack of faith. He believed something else. He put matter in God's place. Salvation is solved when you abandon what you believed in and believe only in the Lord. How many people around us today cannot get to the right job because of one thing? No, how many people say they believe, but cannot enjoy the abundance of life because of one thing they lack? This one lack may be the desire for fame. This one lack may be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s, or the pride of life. We must find this one lack, give it all up,

and return to the Lord. At that time, you will experience the great work of God. Instead of living a life of fighting every day because of one lack, let's become a leader who gives up on this.

11. 대속물로 오신 예수 (막10:32-45) 1997.3.9 주

영생의 능력이란 언제나 지배자의 위치요, 첫째의 위치요, 정복자의 위치요, 왕의 위치이기 때문에 영생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첫째 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은 주님 역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방 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지 그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이런 고귀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부르심에 응 할 책임이 있다. "섬기는 자로 왔으며 자기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선언하셨다.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정복자가 될 수 있나?

1.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서 될 수 있다.

32-34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

그리스도의 고난 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마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영광을 구하는 자는 많은데 하나님의 정하신 과정을 통과하려는 자는 매우 적다.

하나님의 정한 그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무관심하여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거역한다.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1세들의 거역하는 마음과 같다.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한 것은 바로 강박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강박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길은 무엇인가? 그냥 되는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교통을 힘쓸 때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 라고 말하면서도

강하게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항상 기도하라. 성경을 주 야로
묵상하라. 계속 성령충만함을 받아라고 한다.

2. 섬김의 삶을 살므로써 지배자가 될 수 있다.

순종의 마음은 자연히 섬기는 삶을 만들어 낸다. 그리스도는 섬김으로
일관하셨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섬기셨다. 발을 씻기시고 침뱀음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셨다.

그래서 41-45절에는 이방인의 삶의 구조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전혀 반대 되는 것을 말해준다. 이방인은 섬김받는 자요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로 살라는 것 이 다르다. 요한과 야고보의 기도는 "예수님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겠다"는 것 이다." 그 동기가 정욕으로 쓰러는데
있다.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구할는지 알지 못하는도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선 자가 되기위하여 먼저 섬기는 것을 배우는 자 가 되자.
이것이 이 마음을 지배할 때 진정한 정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책임자로 충성할 때 지배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친히 대속물 되심으로 지배자가 되셨다. 순종의 마음으로
섬기시던 주 님, 섬김의 행동을 나타내셨던 주님은 그의 섬김이
진실이였음을 십자가의 죽으심 으로 증명하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사랑한 극치의 섬김 을 보이셨다. 바로
이것이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가 목적을

이룬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그는 온 땅을 지배하는 주가 되었다.

위치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셨고 실질적으로 그의 거룩케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게되었다. 대속물되신 주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서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야만 내 안에서 내 형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스 도안에서 이 땅에서 승리자요 지배자요 앞선자로 살기원하는가? 대속물되신 주님을 따라서 순종의 마음을 가지자. 섬김의 행동으로 살아가자.

11. Jesus came as a ransom (Mark 10:32-45) 1997.3.9 week

Since the power of eternal life is always the position of ruler, first, conqueror, and king, it is God's promise that a Christian who has received eternal life can be first anytime, anywhere. This is what the Lord also requires of us. This means that the method is wrong, not that the goal is wrong. Therefore, Christians know that they have received this noble calling and have a responsibility to respond to it. He declared, "He came as a servant,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How can one become a conqueror used by God on this earth?

1. It can be achieved by having a heart that completely obeys the will of God.

32-34 contain prophecies about the glory of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Christ's suffering does not end with suffering, but with the glory of resurrection. However, today there are many who seek glory, but there are very few who want to pass the process set by God.

When they hear God's command to follow the path God has set for them, they are indifferent and hard-hearted and rebel against it. This is like the rebellious heart of the first generation of Israel. They say that the reason they were all killed in the wilderness was because of their hard hearts. So what is the way to change a hard heart into a soft heart? It doesn't just happen; it happens when you make an effort to communicate with the Lord. So, although the Bible says that it is not achieved through human effort, it strongly demands human effort. Always pray. Meditate on the Bible day and night. He tells us to continue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2. He can become a ruler by living a life of service.

A heart of obedience naturally creates a life of service. Christ was consistent in service.

God served creation. He washed his feet, was spit upon, and was humiliated.

So, verses 41-45 tell us that the structure of Gentile life and the principles of Christian life are completely opposite. The difference is that Gentiles live as those who are served and Christians live as those who serve. The prayer of John and James is “to sit on the left and right sides of Jesus’ throne.” The motive is to use it for lust. The Lord said, “You do not know what you are asking.” In order to become leaders, let us learn to serve first. When you control this mind, you can become a true conqueror.

3. You can become a ruler when you are loyal to the person in charge.

Christ became the ruler by becoming the substitute. The Lord who served with a heart of obedience and the Lord who showed acts of service proved by his death on the cross that his service was true. He showed the utmost love and service to the point of giving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This was the purpose of his coming into the world. His death on the cross fulfilled his purpose. What was the result? He became Lord over all the earth.

He sat on the highest position positionally, and we were sanctified practically through His sanctification. This is possible by denying yourself and bearing your cross like the Lord who became the ransom. Only then can I create my brother within myself. Do you want to live as a victor, a ruler, and a leader on this earth according to the pattern of Christ? Let us have a heart of obedience following the Lord who was our ransom. Let us live by acts of service.

12. 한 소경의 믿음 (막10:46-52) 1997.3.16 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수 있다. 그가 당하는 온갖 고난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믿는 주님이 모든 것을 능히 하실뿐 아니라 지금도 성령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의 소경은 거듭난 신자의 모습을 보인다.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이 그 증거이다. 이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어떻 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지를 생각하려한다.

1. 그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계시의 앞으로 시작되었다.

소경은 나사렛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벌써 알고 있었다.(47, 46-48)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한 부자청년도 심지어 제자들 도 몰라서 예수님을 이용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소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 시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왜 그런가? 그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마태 는 말한바가 있다. 계시를 받을 때 그 계시는 반드시 일한다. 모세의 경우, 호렙산에서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놀라운 일을 했다. 바울의 경우, 삼충천의 계시를 받은 자인데 그는 가시 가운데서도 열매를 많이 맺혔다. 바로 이 계 시가 예수님자신이며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래서 바울은 알게해 달라 는 것이 에베소교회를 위한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다. "저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하시고" 당신은 이 계시를

받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가? 당신은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부활의 강력이 당신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참믿음은
이런 계시의 앞으로 시작된다.

2. 그의 믿음은 역사하는 행동으로 진행되었다.(49-50)

소경은 듣고 소리지르고 더욱 소리지르고 겔옷을 내어던지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갔다(49-50). 어려움이 많았다. 인내가
요구되었다. 그 과정에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고난이 와도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다.

그의 표어는 전진일뿐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다.

참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되어있다. 믿음의 역사(바울), 행함있는
믿음(야고보), 그 나무의 열매(예수님)을 성경은 강조하였다. 적극적인
사고와 믿음은 다르다.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적극적인
사고는 보장받지못한다.

그러나 믿음은 보장을 받는다. 믿음의 형태는 언제나 내면의 자기부정을
가지고 동시에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오는 강한 능력을 받아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신에게 이런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3. 그의 믿음은 마음의 강렬한 소원의 불을 가지고 있었다. (51-52)

소경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눈뜨기를 원한다"고 했다.
바로 이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정도가 아니다. 그것을

해결함으로 그것과 관련된 온갖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에 그는 어려운 것을 원했던 것이다. 그는 눈뜨는 것 말고도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었다.

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고 흔히 빠지는 운명론에 떨어 진자가 아니고 메시아왕국의 실재를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눈뜨는 것은 강렬한 소원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행하는 증거이다. 참 믿음은 이런 소원의 불이 반드시 있는 법이다.

12. The faith of a blind man (Mark 10:46-52) 1997.3.16 week

Christians can be saved from real-life problems through faith. The reason he can be saved from all the hardships he faces is because the Lord we believe in not only is able to do everything, but is still accomplishing it in the Holy Spirit. The blind man in today's text appears to be a born again believer. This is evidenced by his confession of Jesus, "Lord, Son of David." At this time, we would like to think about how Christian faith leads to salvation.

1. His faith began with the correct revelation of Jesus.

The blind man already knew that Jesus of Nazareth was Jesus, the son of David, the Son of God. (47, 46-48) This was something that the Pharisees, a rich young man, and even the disciples did not know, so they only used Jesus. However, this blind man clearly knew that Jesus was the Messiah. Why? Because he received a revelation.

Matthew said, "Only those to whom God and His Son have revealed Him according to His will know Him." When we receive revelation, it always

works. In the case of Moses, when he received a revelation on Mount Horeb, he did something amazing. In the case of Paul, he was a recipient of the revelation of the three heavens, and he bore much fruit even among thorns. This revelation is Jesus himself and the Bible, the word of Jesus. So, Paul's request for knowledge was the subject of his prayer for the Ephesian church. "Give them the Spirit of revelation to make them know God." Have you received this revelation? Do you know God? Do you know that the hope of your calling, the abundance of your inheritance, and the power of your resurrection are within you? True faith begins in the face of this revelation.

2. His faith progressed into working actions. (49-50)

When the blind man heard this, he screamed and screamed even more, threw down his cloak, jumped up and went to the Lord (49-50).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Patience was required. Can't you see him squirming in the process? I am not one to back down even when hardships come.

His motto is only forward movement. This is faith. Faith works.

True faith is bound to bear fruit. The Bible emphasized the work of faith (Paul), faith with works (James), and the fruit of the tree (Jesus). Active thinking and belief are different. Active thinking and action come from humans. But faith comes from God and His Word. Active thinking is not guaranteed.

But faith is guaranteed. The form of faith always appears as acting with inner self-denial and at the same time receiving the strong power that comes from trusting only in God. Do you have this kind of faith that works?

3. His faith had a fire of intense desire in his heart. (51-52) When the blind man asked the Lord what he wanted, he said, “He wants to open his eyes.” This is not just about solving the problem. He wanted something difficult to see that by solving it, all the problems related to it would be solved and history would take place. He could have asked for something other than opening his eyes.

This is because they had faith in waiting for the Messiah, and they were not people who fell into the common fatalism, but wanted to see the reality of the Messiah's kingdom. Therefore, opening his eyes was a strong wish. This is evidence of what God does within it. True faith must have this kind of fire of hope.

13. 다윗 나라의 그 왕 (막11:1-11) 1997.3.26 종려주일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이다. 역사의 중심이 되는 사건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이 시작되는 주간이다. 그는 왕이시지만 겐손의 왕이셨다. 그는 변성과 승리의 주인이셨지만 겐손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의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여 그분의 고난의 흔적(stigma)을 자신의 몸에 갖고 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 성 프랜시스 는 자기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갖기를 기도하다가 자기 양손과 발 그리고 허리에 고난의 흔적을 가지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다한다. 우리의 몸에 그런 흔적을 갖지않아 도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겐손의 흔적, 순종의 흔적, 그리고 종의 흔적을 가진자로 살아가야 하겠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는가?

1.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다윗나라란 육신적인 나라, 혈통적인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 곧 교회를 가리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다. 나단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했다. 바로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다니엘 7:13절의 인자같은 이가 나타나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고 했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거듭난 그 소경은 그 나라의 강림의 증거자로서 성령의 인도로 그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 수로보니게아 여인 역시 그렇게 불렀다. 그의 능력으로 문둥이, 소경, 병든자가 모두 치료됨으로 그 나라의 왕이 오셨음을 크게 증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그 나라의 왕은 오셨고 그 나라의 완성이 오고 있다. 예수님 십문 받았을 때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셨다." 이는 그 나라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말이다. 십자가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란 한 것은 바로 그 나라의 왕이란 말이다. 바울은 재림 나팔소리와 함께 그 왕이 오신다고 했다 다.

2. 그는 겐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 나라의 왕은 겐손의 왕이시다. 백마가 아니라 나귀타고 오셨다. 동정녀 탄생, 목수의 아들, 종으로 섬기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겐손의 모습을 보이셨다. 사 도신앙 고백속에 우리는 지옥까지 내려가신 그의 겐손을 본다. 왜 그래야만 했는가?

우리를 왕의 자리로 끌어 올리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겐손할 수 밖에 없다.

왕이 겐손하기에 그를 따르는 자도 겐손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을 모두 헌신 할 수 밖에 없다. 헌신 없이 겐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겐옷을 벗고 길에다 깔거 나 종려가지를 가져다 길에 깔 것은 수고없이 겐손의 왕을 모셨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가지고 주를 섬기자.

3. 그는 구원주로 오셨다.

무리들은 호산나라고 그를 향하여 찬송했다. 이 말은 "구원하소서(save us)"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스스로의 주장이다.

그의 이름 그대로 예수, 임마누엘을 모두 이루신 분이시다. 당신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영생을 즐기는가?
영생의 삶이란 임마누엘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두가지가
점점되기를 바란다. 공의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다. 공의가
무너지면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왕으로 겸손하게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 이해해야하겠다.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의 왕립을 환영한 것
처럼 해야 하겠다.

13. The King of David's Kingdom (Mark 11:1-11) 1997.3.26 Palm Sunday

It is a Sunday celebrated as Palm Sunday. It is the week when suffering begins
before the cross, a central event in history. Although he was a king, he was a
king of humility. Although he was the master of prosperity and victory, he
came in the form of humility and servant. I hope that all saints will meditate
deeply on His humiliation and live with the traces (stigma) of His suffering on
their bodies. It is said that Saint Francis prayed to have the marks of the cross
on his body and had a mystical experience of having marks of suffering on his
hands, feet, and waist. Even if we do not have such traces on our bodies, we
must live as people who have traces of His humility, traces of obedience, and
traces of servanthood in our hearts. How did Christ come?

1. He came as the king of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David refers not to a physical or lineage kingdom, but to a
spiritual kingdom, that is, the church. He said he was Jesus, the descendant of
Abraham and David. Through Prophet Nathan, God said that he would

establish a nation that would never be shaken. The king of that kingdom is Jesus. And in Daniel 7:13, someone like a son of man appears and rules, saying that a kingdom is coming. The king of that kingdom is Jesus. “To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who is Christ the Lord.” So the blind man who was born again, as a witness of the coming of the kingdom, called him,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Lord, son of David!” The Syrophenician woman also called him that. Through his power, lepers, blind people, and the sick were all cured, giving great proof that the king of the country had come.

Therefore, on this earth where we live, the king of the kingdom has come, and the completion of the kingdom is coming. When Jesus was questioned, he said, “My kingdom does not belong to this kingdom.” This means that the Lord has come as the king of that country. The word “King of the Jews” on the cross sign means the king of that country. Paul said that the King would come with the sound of the second coming trumpet.

2. He came as the king of humility.

The king of that country is the king of humility. He came not on a white horse, but on a donkey. He showed humility through his virgin birth, being the carpenter's son, serving as a servant, and finally bearing the cross. In the apostolic confession of faith, we see his humility in descending to hell. Why did it have to be like that?

It is to elevate us to the position of king. Therefore, we too have no choice but to be humble.

Because the king is humble, those who follow him have no choice but to be humble as well. And you have no choice but to dedicate yourself entirely. He cannot say that there is humility without devotion. Taking off one's outer garment and laying it on the road or taking palm branches and spreading it on the road means that it cannot be said that one has served the King of Humility without any effort. Therefore, let us serve the Lord with true devotion.

3. He came as a savior.

The crowds sang Hosanna to him. This means “save us.” It means that Jesus is salvation. And it is his own claim that Jesus is the savior.

As his name suggests, Jesus, Emmanuel, is the one who has fulfilled everything. Are you saved from sin? Do you enjoy eternal life by walking with Christ? Eternal life is none other than Emmanuel. I hope these two things are checked. We live in an era where justice is collapsing. When justice is broken, peace does not exist. This means there is no true peace.

Therefore, we must sincerely welcome Jesus, our Savior, who has come humbly as the King of the Kingdom of God. We must do as if we had spread out his own cloak and welcomed his coming.

14. 최초의 부활증거 (막16:1-8) 1997.3.30 부활주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보다 더 일찌기 부활사건을 증거한 자는 천사들이었다. 그 중 한 천사는 장차 나타날 부활증인들이 외쳐야 할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것이 무엇인가?

1. 그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실적인 부활을 증거했다.

6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죽은자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셨다는 너무 나 사실적인 사건이라는 말이다.

바울은 15:32절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왔다고 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조작극이요, 이념적인 것이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기독교는 윤리 적 종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거짓증인이 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했다.

2. 그는 확실한 부활의 증거물인 빈무덤을 보이면서 증거했다.

그는 죽은 자리에서의 부활을 증거했을 뿐 만 아니라 빈무덤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그 무슨 건물이나 유물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다. 바로 그의 부활증거인

빈무덤을 자랑하는 종교이다. 빈무덤 배후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다. 주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나?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무덤에 묻히셨다. 가이사의 명으로 인봉을 하였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다. 유대인 장례법에 의하면 완전한 죽음이었다. 그러나 3일째되는 새벽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리셨다. 외적으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돌을 굴러냈다. 수직하던 자가 거반 죽은 것 같이되어 버렸다. 그후 그들이 돈을 받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을 내라는 사주를 받았다. 내적으로는 죽은 주님의 시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살아나게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래서 부활은 "부활의 강력이 주님을 살리실 때 벌써 역사하였다고 선언했다. 이 능력이 무엇인가? 창조의 능력이다. 진흙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되게 했고, 에스겔 환상의 골짜기에 임하였던 바로 그 능력이었다. 바로 이 능력으로 주님은 살아나셨고 그 안에 있는 자 역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된 것이다. 엡2:3-4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앉은자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것을 자랑해서는 안된다. 빈무덤을 자랑해야 할줄 안다. 여인들이 아무말도하지 않았던 이유를 "무서움" 때문이다. 이것은 변화산의 두려움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런 두려움을 본 자들이다.

3. 그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감격스러운 만남을 증거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증거, 빈무덤의 물증을 가지고 증거한 그 천사는 부활하신 주님의 감격스러운 만남을 증거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뵈오리라는 말을 전하라고 부탁했다. 그 만남이란 어떤것인가? 이 만남자체가 부활의 최대의 증거이다. 앞서 말한 천사의 증거는 간접적 적극적인 부활증거 였지만 갈릴리에서의 만남은 가장 직접적인 부활증거이다. 그 이후 바울은 부활을 논할때 그 목격한 사실을 말한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모두 다 변했다. 그들은 부활증인으로 살아났다. 성령 안에서 이런 만남을 가진 우리도 부활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14. First evidence of resurrection (Mark 16:1-8) 1997.3.30 Resurrection Sunday

It was angels who testified to the resurrection event earlier than the women who followed Jesus.

One of them clearly shows the message that the resurrection witnesses who will appear in the future should shout.

What is it?

1. He testified to the realistic resurrection of being crucified and then coming back to life.

Verse 6 says, “They are looking for Jesus of Nazareth, who died on the cross. He is alive and is no longer here.” Here we can see that the resurrection of Christ is clearly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It is a very realistic event that Jesus of Nazareth rose from the dead. Paul says in verse 15:32, “He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was buried, and rose agai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What if the Lord’s resurrection was a fabrication and an ideological thing? Christianity may be an ethical religion, but it cannot

give true life. Therefore, Paul said that if there was no resurrection of Christ, our faith would be in vain, we would be false witnesses, and we would still be living in sin.

2. He testified by showing the empty tomb, a clear evidence of resurrection.

He not only testified to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but also testified to the resurrection of Christ by showing the sight of an empty tomb.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that boasts of any visible buildings or relics. It is a religion that boasts of the empty tomb as evidence of his resurrection. There is a tremendous event behind the empty tomb. How did the Lord die? He died miserably on the cross. He was buried in a tomb. He sealed it at Caesar's command. He could not be approached by anyone. According to Jewish burial laws, it was complete death. However, at dawn on the third day, God revived him with supernatural power. Externally, the stone was rolled away by a supernatural miracle. The person who was standing upright became almost dead. Afterwards, they received money and were instructed to spread the rumor that the disciples had stolen it. Internally, the Holy Spirit of God was present in the dead body of the Lord and worked to revive it. Therefore, the resurrection declared that "the power of resurrection was already at work when the Lord was raised to life. What is this power? It is the power of creation. It breathed life into the mud and made it into living life, and it was the same one who came to the valley of Ezekiel's vision. It was through this power that the Lord came back to life, and those in Him also became alive with the Lord. According to Ephesians 2:3-4, they died with Christ, lived with Christ, and sat on the throne of heaven with Christ. Therefore, we should not

boast about what we can see. The reason the women did not say anything is because of fear. These are the ones who have seen fear.

3. He testified of a thrilling encounter with the resurrected Lord.

The angel who testified with the physical evidence of the empty tomb, the proof that the dead had risen, testified to the thrilling encounter of the Lord who had given His blessings. He asked them to go and tell his disciples and Peter that he would see them in Galilee as he had promised. What is that meeting like? This meeting itself is the greatest evidence of resurrection. The evidence of the angel mentioned above was indirect and active evidence of the resurrection, but the meeting in Galilee is the most direct evidence of the resurrection. After that, when Paul discusses the resurrection, he talks about what he witnessed. Since then, all the disciples have changed. They came back to life as witnesses of the resurrection. We who have had this kind of encounter in the Holy Spirit must also live as witnesses of the resurrection.

15. 어린양의 인을 맞은 자들(계7:1-17) 1997.12.14. 주

여섯째 인을 때의 사건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놀랄일이 못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에게는 구원이 일어나지만 믿지 않는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은 정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큰 심판의 장면을 보았다. 어린양의 진노가 두려워하는 무리들을 보았다. 이제는 어린양의 구원과 어린양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택한자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시간이다. 7장은 이 점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받은 자가 누구이며 구속받은 자의 받는 어린양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한다.

1. 구속받은 자란 누구인가?

여기에 14만 4천의 사람이 나아와 인침을 받는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것이 꼭 이스라엘의 민족인 택한 자의 수라고만 말할 수 없다. 도리어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택함 받은 자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과 같은 인물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왜냐하면 인치는 일이 구원이고, 택함받은 자만이 구원 받는다면 곧 온 세계의 택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1) 칭의를 받은자이다. 흰두루마리를 입었다. 2)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것 으로 삼은 자이다.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있다. 3) 어린양의 피 공로로 구속받은 자이다.

이 구원 받은 자의 반열에 여러분은 들어가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가 에 달려있다. 그의 구원 역사를 감사하라. 찬양하라.

날마다 그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기르라. 교회 직분자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감격을 기초로 할 때 비로소 자격이 시작된다. 이런 감격이 없이는 주를 섬길 수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다른 탑을 세우는 자가 될 수 밖에 없다.

2. 구속받은 자의 받는 위로는 무엇인가?

그러면 어린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의 위로는 무엇인가? 본문에는 세가지를 말한다. 1) 하 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가 된다. 왕노릇한다는 말이다. 막을 치신다는 말이다. 임마누 엘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2) 절대보호를 받는다(16). 이사야11장에 나오는 신천신지의 모습속에서 우리는 그 나라는 화평과 진실과 무사기로 충만한 나라임을 본다. 어떤 원 수의 손아래서도 해됨도 상함도 받지 않는다. 3)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는다(17).

어린양의 인도가 있다. 어린양이 생명수강가로 인도하는 참목자로서 돌보신다. 그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위로가 지금 그리스도안에 있는 우리들은 맛보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있다할지라도 그 위로는 우리에게 늘 함께한다 당신은 그리스도안에서 구속을 받은 자인가? 그 구속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하는가? 당신의 봉사는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택한 자의 구원은 너무나 커기에 감격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구원의 소망을 인하여 그를 찬양하는 성탄 절기가 되기를 바란다.

15. Those who have been sealed by the Lamb (Revelation 7:1-17) 1997.12.14.
main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events of the sixth seal contrast with each other. It is ordained that salvation will occur to those who know the gospel of Christ, but judgment will be given to those who do not believe. We have already seen the great judgment scene. I saw crowds of people fearing the wrath of the Lamb. Now is the time to see how the salvation of the Lamb and the salvation of the elect who enjoy the comfort of the Lamb are achieved. Chapter 7 shows us specifically on this point. Here we discover who the redeemed are and what the comfort of the Lamb is like for the redeemed.

1. Who are the redeemed?

Here, 144,000 people come and are sealed. They said they were chosen from the 12 tribes of Israel. We cannot just say that this is the number of the chosen people of Israel. On the contrary, it seems more natural to view the chosen ones that follow as being like countless others. This is because sealing is salvation, and if only the elect are saved, it means that countless numbers of chosen people around the world will be saved.

Who are they? 1) A person who has received justification. He wore a white scroll. 2) He is one who has made Christ's victory his own. He holds a palm branch in his hand. 3) He has been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Are you among the ranks of these saved ones? How do you know? It depends on whether you believe in Jesus. Be thankful for his salvation work. Praise. Every day, drink the water of salvation with joy from the well of salvation. The foundation of church office is no different. Qualification begins only

when it is based on this kind of emotion. It is impossible to serve the Lord without this kind of emotion. A person without assurance of salvation has no choice but to build another tower.

2. What is the comfort that the redeemed receive?

So what is the comfort of those who have been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The text says three things. 1) Become one who stands before the throne of God. It means that he reigns as king. It means that he puts a curtain on the curtain. The grace of Emmanuel continues. 2) He is absolutely protected (16). In the image of Shincheon Shinji in Isaiah 11, we see that it is a country filled with peace, truth, and defense. It will not be harmed or damaged under the hand of any enemy. 3) Receive comfort from God's love (17).

There is the guidance of the Lamb. The Lamb takes care of us as the true shepherd who leads us to the river of life. He lives in his love. We who are in Christ are experiencing this kind of comfort right now. So no matter how much suffering there is, comfort is always with us. Are you a redeemed person in Christ? How grateful are you for that redemption? Is your service conditional or unconditional? The salvation of the chosen one is so great that one cannot help but feel moved. I hope this Christmas season will be a time to praise Him for this hope of salvation.

16. 성육신의 의미 (요1:1-14) 1997.12.21 (주) 성탄주일 메시지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을 가리킨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사셨음을 가리킨다. 1997년도 성탄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특히 18절에서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1.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위에 장막을 치시는 사건이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이다. 빌2:에는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것이다.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심은 임마누엘하려고 장막을 치심을 가리킨다. 장막하면 구약의 성막과 구름기둥 불기둥이 생각난다. 그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말이다. 계시록 7:15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심은 구속역사의 절정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친히 하나님이 구원역사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겠다는 것 만큼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리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했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의 평화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놀란다. 만신창이가 된 아골골짜기와 같고

이스라엘 골짜기와 같은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직접 나서서 소망의 문을 삼으며 은총으로 나아가게하신다고 하셨다. 인간의 도움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런 강력한 주권적 구원의 역사를 자기 백성에게 이루시겠다는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었다. 여러분은 이런 구원의 장막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자이심을 아는가?

2.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봄으로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건이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했다. 그 영광이란 무엇인가? 그 영광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킨다. 의와 거룩과 진실이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사랑을 받은 유일한 분이요 순종의 모본을 보이신 유일한 분이셨다. 그 영광은 성령의 영광이었다. 창1:2에 여호와와 신이 운행하셨음은 성령의 영광을 보이심이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일곱 영의 역사를 보라. 그리고 여기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안다, 믿는다는 말이다(요1:12) 이와같이 주님이 육체로 오심은 누구든지 그의 영광을 쉽게 직접 볼 수 있도록 오신 고마운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영광에 접촉함으로써 자신이 변화를 받았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의 영광에 접하였고 변화를 받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변화산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를 바라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앓은 뱃이가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베드로는 주목할 때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오신 그의 영광을 주목하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충만함으로 경험하게하는 사건이었 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고 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오는 열매들이었다. 은혜란 선물, 기쁨이란 뜻이다. 부드러운 것이다. 그 속에는 죄사함, 영생, 구원등이 포함 된다. 진리란 참이란 뜻이다. 분명하고 밝은 것이다. 이런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 진다. 간음한 여인에 대한 주님의 응답, 38년된 병자에 대한 주님의 방법,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에서 보여진다. 행2:42절의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의 가르침, 기도, 교제가 열심 이었다) 이런 모습은 구원의 완성시대에 더 분명히 보여진다. 계시록의 여섯째인을 뿔때 를 보라(구원과 심판) 우리 교회는 은혜와 진리를 받는 경험이 일어나야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16. The Meaning of the Incarnation (John 1:1-14) 1997.12.21 (Co.) Christmas Sunday Message

Incarnation refers to “the event in which God became man.” It indicates that the invisible God was born as a human being and lived on this earth as a person with human nature and Godly nature. As we celebrate Christmas Sunday in 1997, what does the incarnation of Christ mean to us? In particular, we find that important thing in verse 18.

1. The incarnation of Christ was an event in which God pitched his tent over his people.

He sai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What does this mean? God became man. Philippians 2: He emptied himself and came in the form of a servant. Being here among us refers to pitching a tent to be Emmanuel. When I think of a tabernacle, I think of the Old Testament tabernacle and the pillar of cloud and pillar of fire. It means that God will be present over them. In Revelation 7:15, it says that God pitches his tent over his people. Therefore, Christ becoming a man is an event that is the culmination of redemptive history. This is because the history of salvation is completed through God's sovereign intervention in it. There is no more direct expression than that God will live with his people. That is why the angels could not help but say that the birth of Christ was “good news of great joy to the whole world,” and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with whom He has chosen.” In the book of Hosea, we are amazed by God's work of salvation. When saving those who were like the Valley of Achor and the Valley of Jezreel, which were devastated, he said that God sovereignly came directly and made them a door of hope and led them to grace. He requires no human help whatsoever. The event of God accomplishing this powerful work of sovereign salvation for his people was the event of the incarnation. Do you know that you are happy people who live within this tent of salvation?

2. The incarnation of Christ was an event with the purpose of being transformed into the image of God's glory by directly beholding it.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ly begotten Son of the Father.” What is that glory? It refers to the character of God. It is righteousness, holiness, and truth. We must be able to see this in Christ. The glory was the glory of the only begotten Son, and the only one who showed an example of obedience was the glory of the Holy Spirit.

Look a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and the work of the seven spirits. And what does the word “see” mean here?

It means knowing and believing (John 1:12). In this way, the Lord's coming in the flesh was a thankful event in which everyone could easily see His glory. Therefore, when Moses touched that glory, he himself was transformed. Paul encountered His glory in Damascus and was transformed. Christians today see God's glory directly in Christ. Therefore, change cannot occur. Experiencing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is important, but seeing it in our daily lives is more important. A change occurred as Peter noticed the lame man speaking the Lord's name. I hope that we will make a decision to take note of the glory of Him who has come to make us so easily accessible.

2. The incarnation of Christ was an event that allowed us to experience fullness of grace and truth. “Full of grace and truth,” he said. These were the fruits that came as a result. Grace means a gift, a joy. It is soft. It includes forgiveness of sins, eternal life, and salvation. Truth means true. It is clear and bright. This change is seen in Christ. The Lord's response to the adulterous woman, the Lord's way to the sick man of 38 years, these are seen in the early church. The appearance of the early church in Acts 2:42 (the apostles were zealous in teaching, prayer, and fellowship) is seen more clearly in the era of completion of salvation. Look at the opening of the sixth seal in the Book of Revelation (salvation and judgment). Our church must experience receiving grace and truth. I hope you have this kind of grace.

17. 믿음의 위력 (막11:12-26) 1997.4.6 주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저주 당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 에게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다 는 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심이다.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가?

1. 믿음의 기도의 효력

믿음의 기도는 어떤 효력을 가져오는가?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게하는 능력이다.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 리어 바다에 던지우라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 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란 문제를 가리킨다. 육신의 질고를 온전케하는 일도 힘들다. 영혼의 구원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더 힘들다. 이런 불가능의 일이 믿음의 기도로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리라"는 것이다.

(24) 23절의 반복된 해석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 라"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엄청난 약속이다.

어떤 범위이든지 그대로 된다는 말이다.(요15:23-24)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효력을 믿는가? 무슨 문제의 산이 있는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산이 옮기워 질곳이다.

3. 믿음있는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할 때 이런 효력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가지를 말해준다. (1) 구해야한다(Asking).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마7:7-9절의 기도훈은 무엇인가? 인격자앞에서의 간구를 하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고 구하는 것이다. 정확한 언어로 구하라. 노트에 기록하여 구하라. 사계의 편지를 받은 히스 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주님은 이런 진실의 기도를 들으신다. (2) 받은 줄로 믿어야한다(Believing). 받지 않은 것을 어떻게 받은 줄로 믿는가?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오직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히11:

6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자에게 상주심을 믿어라 고 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죽은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불같은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보호를 받기도하고 순교를 당하기도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은 모두 다 장차 받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들은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고 싶을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의지적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싫을때도 간절히 기도하라. (3) 용서해야 한다(Forgiveness).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했다. 눅18:에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고 했다. 그러므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않고 구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예수님은 용서하고 와서 드리라고 했다.

야곱의 압복강 나루턱의 기도역시 원수를 용서할 때 일어났다. 이런 믿음의기도로 여러분의 생활에 위대한 허력을 맛보시기 바란다.

17. The Power of Faith (Mark 11:12-26) 1997.4.6 Week

In today's text, the Lord taught us a great truth through the curse of the fig tree. It teaches us how effective the prayer of faith is. How do you pray a prayer of faith?

1. The effect of prayer of faith

What effect does prayer of faith have? It is the power to lift this mountain and throw it into the sea. (23) “Truly I tell you, whoever says to this mountain, ‘Get up, throw yourself into the sea,’ and does not doubt in his heart but believes that what he says will happen, it will be done for him.” The mountain refers to the problem. It is difficult to relieve physical suffering. Solving the problem of soul salvation is more difficult. This impossible task can be accomplished through prayer of faith. “It will be whatever happens.”

(24) This is a repeated interpretation of verse 23. “Therefore I tell you,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it is irrelevant to the will of God. It's a huge promise.

This means that whatever the scope is, it will be the same. (John 15:23-24) Do you believe in the effectiveness of this kind of prayer? What problem is there? Pray and cry out. It is a place where mountains will be moved.

3. How to pray with faith

How does prayer have this effect? Today's text tells us three things. (1) Asking.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What is the prayer lesson in Matthew 7:7-9? It is said to make supplication in front of a person of character. Christians seek everything knowing that they have everything in Christ. Ask in the correct language. Write it down in your notebook and ask for it. Hezekiah, who received Shari's letter, went before God with the letter. The Lord hears these prayers of truth. (2) You must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How can you believe that you received something you did not receive? Because this is faith. Faith is not just moving according to what is visible, but living according to the invisible word of the Lord. Hebrews 11:

Verse 6 clearly states,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will reward those who seek Him." What Happened to Faith? Miracles occurred, illnesses were cured, the dead were raised, the nation was saved, fiery trials were overcome, protection was received, and even martyrdom occurred. But the surprising thing is that everything we receive on this earth is nothing compared to what we will receive in the future. We need this kind of prayer of faith. Pray not only when you want to pray, but also have a willing attitude and pray earnestly even when you don't feel like praying. (3) Forgiveness. Verse 25 tells us to forgive when standing and praying. In Luke 18, it is said that because of his persistence, he will be given as much as he needs. Therefore, it is an abomination to save a brother without forgiving him for his faults. Jesus told us to forgive and come and give.

Jacob's prayer at the ford of the Jabbok River also occurred when he forgave his enemies. I hope you will experience great power in your life through this prayer of faith.

18. 당신의 성전은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막11:15-19) 1997.4.13 주

히브리서 12:14는 성결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못하리라고 했다.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와 관련된 것이기에 성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마5:8절에도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 나님을 볼 것 임이요라고 했듯이 오늘 본문에도 이 성결의 중요성을 우리 에게 또다시 교훈하신다. 3년전에 성전청결 사역(요2:)을 하셨던 주님은 마 지막으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굴혈을 만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아 버지집의 성결 회복을 선언하셨다.

1. 왜 그리스도인은 성결을 힘써야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안에 있기 때문이다. 15-16절에는 성전 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고 기 구를 가져오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다. 여기 성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 활로 그리스도안에서 완성이된다. 요2:19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에 일으키리라" 마12:6에 성전 보다 더 큰이가 여기있다는 한것이 이것을 지 지한다. 계21:22에 그 성에는 성전이 없었다. 하나님과 그 어린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바로 참 성전안에 있는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있는가? 그러면 왜 주님은 이들을 쫓아 내셨는가? 바로 성결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구약의 성막을 보라. 얼마나 거룩하였기에 성소, 지성소라고 불렀는가? 실제로 성소에서 다른 일을 하였거나 잘못 드렸을 때는 별로서 죽음을 당하였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죽었다. 엘리와 그의 두아들이 제사를 경홀히 여겼을 때

전쟁에서 벌 받아 죽었다. 웃시야왕은 제사장 만이 드릴수 있는 제사를 자기 가 드리겠다고 경거망동하다가 문둥이가 되었다. 왜 이런 죽음이 일어났었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은 거룩하 곳이어야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임을 존중해야한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기를 힘써야한다.

2.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성결하게 되는가?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했다. (요17:17, 딤후4:5) 특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진다. 그러므로 향이 가득 차게해야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성전이 거룩해야하는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탐욕, 시기, 미움, 악독, 음란으로 채워져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자. 그런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기도의 흐름 속에서 호흡을 하며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인 당신의 마음을 기도의 향으로 채우라. 더우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안에서 성전인데 그 성전을 반드시 거룩해야한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기도를 통한 성결의 은혜를 힘써야한다.

18. What is your temple filled with? (Mark 11:15-19) 1997.4.13 week

Hebrews 12:14 says that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The fact is that sanctification is so important because it is related to whether we meet the Lord or not. Just as the Lord said in Matthew 5:8,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the Lord again teaches us the importance of holiness in today’s text. The Lord, who had done the temple cleansing work (John 2:) three years ago, entered the temple for the last time and rebuked them for creating a den of robbers and declared the restoration of holiness in the Father's house.

1. Why should Christians strive for holiness?

This is because Christians are in Christ, the true temple. In verses 15-16, He overturned the seats of those who bought and sold in the temple, the money tables and those selling doves, and He did not allow them to bring in any utensils. Here, the temple is completed in Christ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John 2:19 says, “Destroy this temple, and on the third day I will raise it up.” This is supported by Matthew 12:6, which says that something greater than the temple is here. In Revelation 21:22, there was no temple in the city. This is because God and the Lamb become the temple. So where are we? It is in the true temple. What a glorious position you are in! Then why did the Lord chase them out? Because it defiled holiness. Look at the Old Testament tabernacle. How holy was it that it was called the Holy Place or the Holy of Holies? In fact, if you did something different in the sanctuary or gave incorrectly, you were put to death as punishment. Nadab and Abihu went in with fire and died. When Eli's two sons disrespected the sacrifices, they were punished and died in battle. King Uzziah became a leper when he rashly offered to offer a sacrifice that only a priest could offer. Why did these deaths

happen? Because it is where God dwells. So church gatherings must be holy places. Because where we gather in the name of the Lord, the Lord is with us. Therefore, we must respect our gatherings. This is because here you can meet the Lord and become participants in the glory of the Lord. Christians must strive to be holy because they themselves are temples.

2. How do Christians become sanctified?

The Bible says that we become holy through the Word and prayer. (John 17:17, 1 Tim. 4:5) In particular, the temple of God becomes holy through prayer. Therefore, it must be filled with fragrance. But today our temples must be holy, so what are they filled with?

See if it is filled with greed, envy, hatred, malice, and obscenity. There is no glory of God in that. He has no grace from God. God's blessing cannot exist. Therefore, Christians must live normally, breathing in this flow of prayer. Fill your heart, the temple of God, with the scent of prayer. Moreover, Christians are temples in Christ, and that temple must be holy. Therefore, the Christian mind must strive for the grace of sanctification through prayer.

19. 권세자를 따르라! (막11:27-12:12) 1997.4.20 주

바리새인 일당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랍비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질 문하심으로 자신의 신적권세를 은근히 주장하심으로 응수하셨다. 권위부재시 대에 살고있는 우리들은 진정 의지할 대상은 주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한다.

1. 참된 권세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알아야한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가 참된 권세자인 까닭, 두가지 이유를 밝힌다.

(1) 첫 제 이유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세를 받은 분이기 때문이다. 27-33절 에서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은근히 증거하셨다. 너의 권세가 위로부터냐, 땅으 로부터냐라고 질문하자, 주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직접 보낸 분임을 말한다. 침 묵하시지만 자신의 권세가 신적(Divine)이란 사실을 말한다. 단 7:13-14절에 나 오는 인자같은 이가 오신다고 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터이요"라고 했다. 공관복음에 69번, 요한복음에 12번 나오는 인자라는 말은 모두 주님에게 적용되었다. 십자가 지실 때에도 주님은 침묵하셨지만 여러형태 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 마침내 그는 부활하심으로서 직접 하나 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분이라 하셨다. 우리는 그 권세안에서 권세를 받은자 들일 뿐이다. (2)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신저로 오셨기 때문이다. 1-

12절에 보면 많은 메신저를 보내셨다.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만이 보내었으나 그들이 때리고 죽였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냈으나 죽임을 당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6절 에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 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 메신저로 오셨다. 히1:1-2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을 참된 권세자로 믿는다.

2. 그 권세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오직 복종 뿐이어야한다.

성경을 읽다보면 우리는 이 권세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 순종과 불순종자들을 본다. 불순종한다하여 그 권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의 끊임없는 불복종으로 (12) 그들은 그들은 모퉁이 돌을 버린 건축자와 같다. 왜 그들은 복종할 수 없었는가? 알고보니 그들에게는 분명한 이 유가 있었다. 이미 다른 권세에 복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른 권세는 무엇 인가? 탐욕이었다. 성전에서 왜 주님은 책망하셨나? 탐욕 때문이다. 강도의 굴혈, 물질주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주가 다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전적인 복종을 하지않는다. 그런 제자들 처럼 진정으로 그의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 는 자에게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산들이 옮기워진 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라도 그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롬8:), 이런 절 대 권세자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분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란다.

19. Follow those in power! (Mark 11:27-12:12) 1997.4.20 week

The Lord's answer to the Pharisees' question was to subtly claim His divine authority by asking questions in the traditional rabbinic way. We who live in

an age of lack of authority would like to reconsider the fact that the only one we can truly rely on is the Lord.

1. You must know that the only true authority is Jesus.

Today's text reveals two reasons why Christ is the true authority. (1) The first reason is because he received authority directly from God. In verses 27-33, the Lord remained silent and testified secretly. When asked whether your authority is from above or from the earth, the Lord's answer is that He is sent directly from God. Although he is silent, he says that his authority is divine. In Dan 7:13-14, it is said that someone like the Son of Man is coming. He said, "It is an everlasting dominion, it shall not be removed." The word 'Son of Man', which appears 69 times in the Synoptic Gospels and 12 times in the Gospel of John, is all applied to the Lord. Although the Lord was silent when He was crucified, He testified in many ways that He was God. Finally, he was said to have received authority directly from God through his resurrection. We are only those who have been given authority within that authority. (2) And because he came as God's final messenger. One-

In verse 12 we see that he sent many messengers. He planted a vineyard and rented it out to farmers. He sent his servants to collect rent, but they beat him and killed him. He sent his son one last time, but he was killed. Who is that son? It is Jesus. Verse 6 says, "But there was one man, his son whom he loved, whom he sent last of all, saying, 'My son will be revered.'" He came as the final messenger. Hebrews 1:1-2 says that at the end of these days He has spoken through His Son. In this way, we believe that Jesus, who came as the last messenger, is the true authority.

2. Our attitude toward the authority must be one of submission.

As we read the Bible, we see two types of people: obedient and disobedient, those who recognize this authority and those who do not. Disobedience does not mean that authority is lost. Because of the constant disobedience of the Pharisees, (12) they are like a builder who rejected the cornerstone. Why couldn't they obey? It turns out that they had a clear reason. This is because they were already subject to another authority. What are those other powers? It was greed. Why did the Lord rebuke in the temple? Because of greed. Robber's den, materialism, the same is true today. Because their Lord is different, they do not submit completely to Him. Great works happen to those who truly acknowledge and obey His authority, like those disciples. What kind of history takes place? Mountains are moved. No power in the world can destroy that power (Romans 8:). Please believe that you are a blessed person who lives in this absolute power and seek His power.

20.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막12:13-17) 1997.4.27 주

말씀을 책잡으려고 목적에서 바리새인들은 올무가 있는 질문을 던졌다. 가 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가 이사야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사회에 대한 책임 둘다 이행할 자라는 사실이다.

I. 그리스도인은 양면의 책임을 다하도록 부름받았다.

산상보훈에서 주님은 팔복에 대한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 하라하시고 다음에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다 하도록하셨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역시 사회적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심을 간접적으로 듣는다. (1) 먼저 교회적 의무를 다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에는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말한다.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물질 그리고 나의 재물이 그것이다.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오늘날 청지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 손해 보는 일이 얼마 나 많은지 모른다. 특별히 나의 몸을 주를 위해 바치기 바란다.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했다. (2) 둘째 사명은 사회적인 의무이다. 가이사야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이다. 권위에 대한 복종이 필요하다. 오늘날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 의무를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가? 돈 벌어 세금도 내고 구제도하고 돕기도 해야한다. 북한 땅의 내 동족에게 이런 손길이 닿 게해야한다. 정말

우리의 시대에는 정말 다윗왕처럼 나단선지와 같은 책망의 사람이 필요하다. 세례요한과 같이 목숨내대고 말하는 참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2. 그러면 어떻게 이런 책임을 다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성결을 힘씀으로 이 책임을 다 할 수 있다.

바리새인의 태도, 그들은 외식자였다. 그들의 경건은 능력이 없었다.

성결이 없기 때 문이다. 주님은 심중의 경건을 찾으셨다.

나다나엘에게서는 진실을 찾았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외식을 찾았다.

주님은 외식을 매우 미워하신다. (마23:)

오늘날 우리는 일보다도 주님 앞에서의 개인 경건생활을 더 가치있게 여기는 삶이 일어나야한다. 업적이나 일이 먼저가 아니다. 신앙이란 감정의 아니고 의지의 삶이다. 교리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한다. 사회적 책임과 봉사를 하면서 자기 개인의 신앙성장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경건생활에 힘쓰는자가 되어야한다. 그래야만 바른 열매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

오늘날 사회적인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점점 불투명해지는 이러한때, 우리는 감정적이 되지말고 윤리적이 되어야한다. 신앙의 의리와 뼈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주님의 사랑처럼 네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카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 밝게 하는 줄 믿는다. 모세 한사람의 하나님과의 교통의 성공은 전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게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 는 분명한 책임자로서
살아감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능력자들이 다 되기 바란다.

20. Christians wh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Mark 12:13-17) 1997.4.27
Week

In order to catch the Word, the Pharisees asked snaring questions. Is it right to pay rent to a director? is not it? The Lord's answer to this is, "Render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Here we receive a clear answer from the Lord on how the church in the world should live. It is true that we are people who will fulfill both our responsibility to God and our responsibility to society.

I. Christians are called to fulfill a double responsibility.

In the Sermon on the Mount, the Lord told us to fulfill our responsibilities to God through the teachings of the Beatitudes and then to fulfill our mission of being the salt of the world and the light of the world.

In this respect, today's text indirectly hears God asking us to fulfill our social mission. (1) He tells us to first fulfill our church duties. Offering to God what is God's means that we are stewards. These are my body, my time, my material, and my wealth. It is to fulfill the mission of a steward. You don't know how many people today suffer losses because they are unable to fulfill their mission as stewards. I especially want to dedicate my body to you. He told you to present your body as a weapon of righteousness. (2) The second mission is a social duty. What is Caesar's is to be given to Caesar. Obedience to authority is necessary. To what extent are we in America today carrying out this duty? You have to earn money, pay taxes, provide relief, and help others. I

must allow this kind of touch to reach my people in North Korea. In our time, we really need a man of rebuke like the prophet Nathan, like King David. We need someone like John the Baptist who has a true prophetic mission and speaks at the risk of his life.

2. So how can one fulfill this responsibility?

Christians can fulfill this responsibility by striving for personal holiness. The attitude of the Pharisees was that they were hypocrites. Their piety was powerless. This is because there is no holiness. The Lord sought piety in his heart. He looked for truth in Nathanael and hypocrisy in the Pharisees. The Lord hates hypocrisy. (Matthew 23:)

Today, we must live a life that values personal piety before the Lord more than work. Achievements or work do not come first. Faith is a life of will, not emotion. It must be firmly established in doctrine. While carrying out social responsibilities and service, we must strive to lead a pious life so as not to neglect our personal growth in faith. Only then will the right fruits and good fruits appear.

Today, when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Christians are increasingly unclear, we must be ethical, not emotional. How important are the principles and framework of faith? I love you despite what you have done, just as our Lord loves us. We believe that the love of acafe continues to brighten and fulfill our social responsibilities. The success of one man, Moses, in communicating with God had an impact on the entire nation. I hope that we all become powerful people who can save this era by living as clear responsible people who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21. 사랑의 계명을 지키자 (막 12:28-34) 1997. 5.11

본문은 유월절 식사 전에 네가지 방법의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전통에 따른 것으로서 세번째 것에 해당되는 질문과 답변이다. 거기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려고한다.

1. 십계명은 사랑으로 요약된다.

서기관이 질문에 대한 주님은 답하신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구분을 하 시면서 답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두 계명은 서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배운다.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이고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임을 보여준다.

수평적관계를 잘 이루려면 수직적인 관계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응답을 받을 때 그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라 고 말한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인본주의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니까 문제다. 신비주의는 하나님과 자기를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 속셈을 차리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더해가는 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끊어 드려야한다.

여기서 두 계명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서기관의 요약적답변, 내면적요소가 더 중요한 것을 보인다. 주님은 칭찬하셨다. 이것은 첫째와 둘째가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 잘 섬기면 자연히 사람 관계에도 그 영향이 미친다는 말이다. 하나님 잘 섬길 때 도덕적, 영적으로 강해진다. 계 명의 실천적 실마리가 다음에 있다고 보여진다.

첫번째명은 안식일을 잘 지키면되고 두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할 때 이 일이 풀려간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때 그 사랑을 배우고, 공간적으로 부모를 부지런히 효도하면 역시 사랑을 배운다. 그 결과 다른 유혹을 이길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계명이란 괴로운 명제가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해 주는 피난처요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2. 사람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까?

공경과 순종으로 지켜진다. 첫째도 경외와 복종으로, 둘째도 공경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은 공경과 순종의 마음을 가질 때 되 어진다. 성령충만이란 사랑이 부은바 됨이다. 그럴 때 공경과 순종의 마음이 생긴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을 바로 섬겨야한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인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가지면 사람에 대한 공경은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요셉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3.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나라에 멸치않도다"고 했다. 이런 고백으로도 칭찬을 받았다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얼마나 복되겠는가? 하나님나라의 복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약속했다. 성경에 나오는 룯을 보라 그는 이 두가지 계명을 잘 지킨 샘플이다. 그는 며느리인데도 어려운 길을 택했다. 어머니 죽는데 나도 죽는다고 했다. 이것은 인간을 잘 섬기는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셈이

된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 인가? 장수와 평강이 하늘나라의 복으로
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늘 복을 받자.

21. Let us keep the commandment of love (Mark 12:28-34) 1997. 5.11

This text follows the tradition of asking and answering four types of questions before the Passover meal, and the third question and answer is the question and answer. From there, I try to think about how important it is to keep the commandment of love.

1. The Ten Commandments are summarized in love.

The Lord answers the scribe's question. He answered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commandments. Here we learn that the two commandments are distinct from each other.

It shows that the vertical relationship comes first, followed by the horizontal relationship. In order to achieve a good horizontal relationship, you must establish a good vertical relationship and show that it is possible through the power of receiving a response of love from God. It tells us to give to God what is God's,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ive to God our love for God. Many problems arise today because so many people are unaware of this distinction. Humanism is problematic because it puts self before God. Mysticism considers God and self as one. It is a plan to exploit God. At a time when this phenomenon is increasing, we must cut off what belongs to God. Here, the two commandments are shown to have a deep relationship. The scribe's summary answer shows that the area element is more important. The Lord praised. This means that there is a deep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This means that if you serve God well, it will naturally have an

effect on y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When we serve God well, we become morally and spiritually strong. It appears that the practical clue to the commandment lies in the following. The first commandment can be solved by keeping the Sabbath, and the second commandment can be solved by honoring your parents. Because when you worship God right away in time, you learn that love. In terms of space, if you are diligent in being filial to your parents, you will also learn to love them. As a result, you gain the strength to overcome other temptations. This is because the commandments are not a painful yoke, but a refuge and a resting place that allows us to rest.

2. How does a person keep the commandments?

It is observed with respect and obedience. The first consists of reverence and obedience, and the second consists of respect and obedience. Concrete acts of love are achieved when one has a heart of respect and obedience.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means being poured out with love. At that time, a heart of respect and obedience arises. We must not lose this heart and serve God and people properly.

They taught that if you respect God, which is the teaching of the Pharisees, you do not need to respect people. This was wrong. The great thing about Joseph is that he had this heart and character.

3. What are the results given to those who keep the commandment of love?

He said, "It is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If you are praised for this kind of confession, how blessed will you be when you keep the commandment of love? The blessings of the kingdom of God are given to those who keep the commandment of love. He promised prosperity and long

life on earth. Look at Ruth in the Bible. She is a fountain who kept these two commandments well. Even though she was his daughter-in-law, she chose the difficult path. He said that when my mother dies, I die too. This is not the level of serving humans well. This means serving God well. What is the result? Longevity and peace came as blessings from heaven. Let us receive this kind of blessing from our loved ones.

22. 사두개인의 오해 (막12:18-27) 1997.5.18.

바레새파는 유대인 청교도들이라고 말한다면 사두개는 세속주의자 곧 유대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두개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에게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의 세가지 오해, 즉 성경의 오해, 하나님의 능력의 오해 그리고 내세의 오해를 지적해 주셨다. 창립 11주년을 맞이한 우리교회는 3가지 오해의 특성을 이루는 이 시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깊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바란다.

1. 성경에 대한 오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이 주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한다.

일곱형제가 있는 가정에 맏형의 아내가 일찍 중임 당한 일곱 형제들의 아내가 되었다면, 사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라는 질문이다. 그때 주님은 성경을 너희가 오해하였다고 했다. 여기 성경의 오해란 무슨 뜻인가? 1)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않는다는 뜻이다. 2) 그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한 모퉁이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3) 그들은 성경자체가 가르치는 근본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요사이 우리 주변에 독버섯 같은 그릇된 성경관이 있다. 자유주의 성경관과 신정통주의 성경관이 그것이다.

우리의 성경관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관이다. "성경을 대할 때 지금 내게 말씀을 통하여 찾아 오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우리는 주님의 성경관을 따르는 자로서 에스라와 같은 결심이 있어야 할 줄 안다.

2.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

사도개인의 또 다른 오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오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영과 부활을 믿지않았기에 사후의 세계의 윤리를 걱정한다. 그들은 죽은자가 영과 같아 지는 것을 알지못했다. 이해 안되니까 믿지못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해 안되어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강림은 모두 다 초자연적인 일이다. 더욱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을 받아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다는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교회는 이런 능력을 믿는 교회로서 그런 신앙으로 충만해야한다.

3. 미래 지향적 신앙에 대한 오해

사도개인의 또 다른 오해는 세속주의자의 현실지향적인 신앙이었다. 한 부자가 자기의 소출의 풍성함을 보고 나의 평생먹고 즐기자고 한 것처럼 내 세의 펼쳐지는 세계에는 무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지향적 신앙은 매우 위험하다. 기복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다. 미래지향적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다. 어떤 사건은 현실에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대표적 요소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누가 아무도 그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현 실의 삶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22. Zaccarius's misunderstanding (Mark 12:18-27) 1997.5.18.

If we say that the Pharisees are Jewish Puritans, then the Sadducees can be said to be secularists, that is, Jewish liberals. A Sadducee came to see the Lord and asked Him a question about the resurrection. At that time, the Lord pointed out three of their misunderstandings: misunderstanding of the Bible, misunderstanding of God's power, and misunderstanding of the afterlife. We hope that our church, celebrating its 11th anniversary, will not follow this era characterized by three misunderstandings but will move forward with deep confidence.

1. Misunderstanding of the Bible.

The Sadducees, who believe there is no resurrection, come to the Lord and ask him a question. The question is, if in a family with seven brothers, the wife of the eldest brother becomes the wife of the seven brothers who were reappointed at an early age, whose wife will she be after death? At that time, the Lord said that you had misunderstood the Bible. What does misunderstanding of the Bible mean here? 1) This means that they do not believe the Bible to be the word of God. 2) It means that they use a corner of the Bible to assert their opinion. 3) This means that they misunderstand the fundamental meaning taught by the Bible itself. These days, there is a wrong view of the Bible around us, like a poisonous mushroom. These are the liberal view of the Bible and the neo-orthodox view of the Bible.

Our view of the Bible is that of Jesus and the apostles. “When I read the Bible, I hear the voice of the Lord coming to me through the Word.” As followers of the Lord's view of the Bible, we know that we must have the same resolve as Ezra.

2. Misunderstanding the power of God

Another misunderstanding of individual apostles was to misunderstand the supernatural power of God.

Because they do not believe in spirits and resurrection, they worry about the ethics of the afterlife. They did not know that the dead become like spirits.

Because I don't understand, I don't believe it. However, our faith is believed even if we do not understand it. The Lord's birth, death, resurrection, ascension, and descent of the Holy Spirit are all supernatural events.

Moreover, if you do not have confidence in the Bible, you cannot accept the power of the Lord. However, what the Bible requires of us is faith in the almighty and powerful God. What do you mean you can do it? All things are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How precious is faith in the almighty power that can do anything? As a church that believes in this power, our church must be filled with such faith.

3. Misunderstandings about future-oriented faith

Another misunderstanding of the Sadducees was the reality-oriented faith of secularists. Just as a rich man saw the abundance of his produce and said, “Let me eat and enjoy it for the rest of my life,” I have become ignorant of the unfolding world of the next world. Therefore, reality-oriented faith is very dangerous. Faith in blessings and fortunes is not a biblical faith. Future-

oriented faith is biblical faith. How many events are incomprehensible in reality? The representative element is the cross incident. Other than God, no one could know at all whether that event was an event that would save humanity. I hope to become a person who lives with a clear view of the future that actual life determines the future.

23. 외식의 껍질을 벗으려면 (막12:35-44) 1997.5.25 주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외식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 주님으로 부터 배우고자한다. 어떻게 이 외식을 이길 수 있는가?

1. 은밀주의를 생활 표준으로 삼는 자가 이길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외식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38-40절에 5가지 실예가 나온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회당의 상 좌와 잔치의 상석에 앉는 것,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사람 위주의 생활이다.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까지 도 이용하려는 교묘한 수법이 외식이다. 오늘날 이런 것이 당신에게는 없는가?

이런 외식주의는 스스로 자기의 과멸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간의 경우나 아나니 아와 삽비라 부부의 경우, 둘 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때에 된일이고, 둘 다 외식으로 치우치다가 심판 받았다. 둘 다 현금(물질)과 관련되었고 둘다 경건 을 표방하고 외식을 따랐고 순수치 못하였다.

우리 주님은 생활의 외식을 철저히 경계하셨다. 사람에게 칭찬 받는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는다고 하였고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했으며 낮은 자리를 찾아서 앉으라고 했다.

왜 그랬을까?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나갈 때 만날 수 있고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2. 헌신주의를 추구함으로 이길 수 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연보를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참된 연보가 어떠함을 평가하신다. 부자들은 돈을 많이 드렸다. 그러나 외식된 연보였다. 과부는 작은 돈을 드렸다. 그런데 주님은 부자들 보다 더 많은 연보를 하였다고 평가하셨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의 헌신주의의 행동을 보고 하시는 평가이다. 여기서 일 해 놓고도 헌신주의가 아닐 때 헛수고라는 원리를 발견한다. 물질만 드려선 안된다 자기와 그 생명을 제단에 드려야한다. 인심쓰며 드리는 것, 남아서 드리는 것은 진정한 제물이 아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벨과 가인은 똑같은 제물, 똑같은 제단, 똑같은 방법으로 드렸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왜냐? 거기에는 진정한 헌신주의가 없었다. 성령안에서는 진정한 헌신주의 만이 용납된다. 진리를 따를 때 진정한 헌신주의가 된다. 수가성 여인은 왜 그의 가슴에 생수의 강이 흘러났는가? 바로 헌신주의였다. 진리를 따라서 나아갈때만 제물은 제물이되는 것이다. 엘리야 제단에 불이 응답된 것은 바로 이 헌신주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엘리야의 장작 위의 제물은 바로 엘리야 자신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3. 그리스도 주권주의가 인정될때 이길 수 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주님이 스스로 주장하신다. 그리스도는 모든일의 주인이시다. 구약시대의 인물이나 신약시대의 인물이나 모두 그리스도를 주 라고 불러야한다. 서기관들의 외식은 이 문제가 분명치

못하여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기독교인이 분명치 못하면 그는
외식하게된다.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인정 하느냐? 그렇다면 거기에는
진실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승리의 삶의 비결 이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요, 우리의 직장의 주요, 우리의 삶의 주는 예수님 이심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은 물론 거기에 따른 삶으로 결단이 있어야하겠다.
그럴때 거기에 사도행전의 부흥이 일어난다.

23. How to get rid of hypocrisy (Mark 12:35-44) 1997.5.25 week

As we spend the last week of May, Family Month, we would like to learn
from our Lord how to overcome eating out. How can you beat this restaurant?

1. Those who make secrecy their standard of living can win.

What was the hypocrisy of the scribes in today's text? Five examples appear
in verses 38-40. These include wearing long robes, receiving greetings in the
market, sitting at the head of a party and at a banquet, swallowing a widow's
family fortune, and praying long while eating out. All of this is not a life
before God, but a life centered around people.

Hypocrisy is a subtle method of revealing oneself in front of people, making
oneself known, and even using God for one's own greed. Do you have nothing
like this today?

This type of hypocrisy is choosing one's own destruction. In the case of Achan
and the couple of Ananias and Sapphira, both happened at a time when
spiritual revival occurred, and both were judged for leaning towards hypocrisy.
Both were related to money (material things), both advocated piety, followed

hypocrisy, and were impure. Our Lord was completely wary of hypocrisy in life. He said that those who are praised by others will receive evil from God, and when praying, he was told to pray in secret and to find a low place to sit.

Why did they do that? This is because we can meet God who is in secret when we truly come before Him, and when we do that, the work of life takes place.

2. You can win by pursuing devotionism.

In today's text, the Lord points out two types of charity and evaluates what true charity is. Rich people gave a lot of money. However, it was a dishonest report. The widow gave a small amount of money. However, the Lord judged him to have donated more than the rich. The reason is the evaluation of the woman who reports her devotional behavior. Here, we discover the principle that even if you work hard, if you are not devoted, your efforts are in vain.

You must not only offer material things; you must offer yourself and your life at the altar. Offering generously or offering extravagantly is not a true offering. It must be something that represents my heart and my life. Abel and Cain offered the same wealth, at the same altar, and in the same way.

But the result was just the opposite. because? There was no real devotionism there. In the Holy Spirit, only true devotionism is acceptable. When you follow the truth, you become a true devotee. Why did the Sychar woman pour rivers of her living water into his chest? She was truly dedicated. A sacrifice becomes a sacrifice only when you follow the truth. The reason fire was answered at Elijah's altar was because this devotionism appeared. The riches on Elijah's wood were meant to represent Elijah himself.

3. We can win when Christ's sovereignty is recognized.

In the text, the Lord himself claims that Christ is Lord. Christ is Lord of all things. Both people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must call Christ Lord. The hypocrisy of the two secretaries brought about this result because they were not clear about this issue. If Christology is not clear, he becomes a hypocrite. Do you recognize Christ as sovereign? Then, the history of truth takes place there. This is the secret to a victorious life. We must not only make a confession of faith to acknowledge that Jesus is the main person in our family, the main place in our workplace, and the Lord of our lives, but we must also make a decision to live our lives accordingly. At that time, the revival of the Acts of the Apostles occurs.

24. 말세를 당한 성도의 자세 (마13:1-13) 1997.6.1 주

지금 कै톨릭의 종주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남미에서 청교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에서도 예수 믿는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어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왔다는 느낌을 갖는다. 우리가 생각하려는 종말시대란 사실상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히1:1-2) 신약시대가 종말시대이며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난 때다.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님의 재림직전의 말세가 언제인가를 생각하려는 것이다. 그 날과 그 시는 알지못하나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징조를 보고서 알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중에 우리는 가장 큰 증거가 만국에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할 줄 안다. 왜냐하면 복음전파가 극도의 열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

1. 마지막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2. 마지막 때를 맞는 성도의 자세

을 잃지않으려고 힘써야 하겠다.

주님은 여기서 네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말씀하셨다. (1) 거짓선지자의 출현과 그들의 맹렬한 활동(5-6)이 일어난다고 했다. 거짓교훈과 이단이 극성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여호와증인, 몰몬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통일교, 뉴에이지운동과 같은 거짓교훈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아간다. 고로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하는 그런 복음의 위력을 깨달아야한다. (2) 재난이 극심함 (7-8)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극도의 환난 이 일어난다고 했다. 북한의 굶주림이나 텍사스의 토네이토로 한 마을이 모두 죽은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3) 복음화운동과 배교운동(10-13)이 일어난다. 복음화운동과 배교운동은 영적전쟁을 가 리킨다. 이런 운동이 활발한 이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 왔음을 알아야한다. 우리는 이런 긴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혼돈 과 공허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신다.(마24:24)

세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다. (1) 경계심의 필요(11) 덮어 놓고 받아드리는 것은 위험하다. 교묘한 마귀의 공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스스로 조심하라. 어려운 일 당하면 당장에 진리를 포기하는 배교의 일이 극 심해진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 길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는 몰려 오는 외적 내적 환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계심을 갖도록하자. (2) 화평의 필요. 큰 핍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화목을 배워야한다. 마귀는 언 제나 가정을 파괴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다. 진리 위에 설때에 바 른 화평이 찾아온다. 서로 잡아주는 사랑이 필요하다. 극도의 이기주의가 난무한 세상이다. 그러자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한다. (3) 인내의 필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오늘날 목회사역이나 선교사역에 얼마나 배교행위가 많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갈 때 욕과 같은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런 급박한 시대이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는 때다. 우리는 그 날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날의 임 박함을 느끼고 살아가야한다. 우리는 베드로의 권고대로
충성심과 경건함을 잃지 않으려고 힘써야하겠다.

24. The attitude of saints in the last days (Matthew 13:1-13) 1997.6.1 week

It is said that a Puritan movement is currently taking place in South America, which can be said to be the suzerain of Catholicism. The good news is that the gospel of faith in Jesus is being spread widely in Russia, and the number of believers is increasing. Every time I hear news like this, I get the feeling that the Lord's second coming is getting closer. The end times that we are about to think of actually began with the Lord's coming to this earth. (Hebrews 1:1-2) The New Testament era is the end times and is a time when great works of salvation take place. What we are trying to think about is when the end times will be right before the Lord's second coming, as our Lord said in today's text. He says that he does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but he can know the time to some extent. This means that you can tell by looking at the signs. Among them, we know that the greatest proof is that the end will come after the gospel is preached to all nations. Because preaching the gospel is extremely passionate.

1.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st days?

2. The attitude of believers facing the end times

I will have to work hard not to lose it.

The Lord mentioned four salient characteristics here. (1) It is said that false prophets will appear and their fierce activities will occur (5-6). We live in an era where false teachings and heresy are extreme. We live in an era where false teachings such as Jehovah's Witnesses, Mormonism, Christian Science,

Unification Church, and New Age Movement are prevalent. Therefore, we must realize the power of the gospel that captures all theories and makes them obey Christ Jesus. (2) Disaster is severe (7-8) It is said that famine and earthquakes will occur and extreme tribulation will occur. Shocking events such as starvation in North Korea or an entire village dying from a tornado in Texas occur. (3) The evangelization movement and the apostasy movement (10-13) take place. The evangelization movement and the apostasy movement refer to spiritual warfare. At a time when these movements are active, we must realize that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is getting closer. We are living in such urgent times. However, even in this chaos and emptiness, the Holy Spirit guides us to the truth (Matthew 24:24).

He taught us three postures. (1) The need for vigilance (11) It is dangerous to cover it up and accept it. This is because a subtle attack by the devil occurs. Take care of yourself. When faced with difficult times, apostasy, giving up the truth immediately, becomes more severe. Like the seed that fell on stony ground or the seed that fell on the path of thorns, let us be alert to overcome the external and internal tribulations that come our way. (2) The need for peace. When great persecution occurs, we must learn true reconciliation. The devil always destroys families. This is a characteristic of this era. True peace comes when you stand on the truth. We need love that holds each other. It is a world filled with extreme selfishness. To do this, you must receive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3) The need for patience.

Those who endure until the end will be saved. How much apostasy is there in pastoral or missionary work today? Therefore, when we live in the last days, we need patience like Job. The times we live in are such urgent times.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is getting closer. We must look to the signs of that day and live with the sense of its imminence. As Peter advised, we must strive not to lose loyalty and piety.

25. 성도의 종말준비 (막13:14-31) 1997.6.8 주

본문은 계속해서 재림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준다. 기독교의 극도의 타락 (14), 큰 환난이 발생하고 (19) 거짓선지자의 활동이 극심함 (29)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하는가? 본문에는 세 가지의 기본자세를 더 말해준다. 그것은 절제하는 생활과 준비하는 기도를 하는 생활 그리고 말씀에 붙들린 말씀화한 생활을 무엇보다 요구한다.

1. 절제하는 생활이 있어야한다.

14-16절을 보면 극도의 종교적 외식과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타락이 일어날 때 유대에 있는자는 산으로 도망하지 말고, 지붕에 있는자는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이 비유의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이것은 절제를 요구하는 말이다. 사실상 이런 절제의 삶은 말세를 당한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정상적인 생활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긴장감을 가진 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일년 먹을 양식, 일 평생 먹을 양식보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 했다. 만나를 그날 그날 주신 것은 의미가 있다. 영적 긴장감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다. 기드온 300명 용사만을 선정한 기준, 바로 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었다.

주님은 한 날을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의식주를 가지고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관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다. 한 날만이 나의 최선의 날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말이다.

2. 준비하는 기도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17-22)

17-18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젓먹이에게 화가 있고, 이것이 겨 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한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했다.

그래서 주님 은 우리에게 예비하는 기도를 요구하셨다. 모든 일에 미리 기도를 많이 해 두 면 그 기도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은 놀라움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야곱의 경우도 압복강에서 형님 만나기 전에 미리 기도했다. 에스더도 하만의 궤계 앞에서 미리 기도했다. 주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미리 기도해 두셨다. 겿 세마네 동산은 기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 는 미리 기도하였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와같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예비하 는 기도를 해야한다.

3. 말씀에 붙잡힌 생활이어야합니다. (28-31)

28-3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한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 저도 내입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다. 인자의 말씀으로 생활화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말씀화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계시의존사색이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우리의 모든 토론의 결론이 말씀으로 정리해야한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원인은 어 디에 있었나? 큰 것이 아니었다. 바로 말씀을 떠나려는 운동, 계시이탈사색이 었기 때문이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마귀를 말씀의존사색으로 이겼다. 지금도 그렇다. 교회의 구원운동은 말씀화하는 운동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말세에 이 런 활동이 더

극심해진다. 거짓선지자의 활동이 극심해진다. 우리는 성경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되기를 바란다.

25. Saints' preparation for the end (Mark 13:14-31) 1997.6.8 week

The text goes on to tell us about the phenomenon that occurs just before the Second Coming. It points out the extreme corruption of Christianity (14), the occurrence of great tribulations (19), and the extreme activity of false prophets (29). In the midst of this, what attitude should we live with? The text describes three more basic postures. Above all else, it requires a life of moderation, a life of preparatory prayer, and a life of Word-oriented life that is held fast to the Word.

1. There must be a life of moderation.

Looking at verses 14-16, when extreme religious hypocrisy and corruption that degenerate into political means occur, those in Judea should not run to the mountains, those on the roof should not go down, and those in the fields should not go into the house to get their clothes. *did*. What do the words of this parable refer to? This is a call for moderation. In fact, this life of self-control is the most normal life that a believer in the last days should have. So the Bible asks us to live a life with this kind of tension. It was said to seek only daily food rather than food for a year or food for a lifetime. It is meaningful that manna was given on that day. He valued spiritual tension so highly. The criterion for selecting only Gideon's 300 warriors was whether they had this sense of tension.

The Lord wants us to be people who live well each day. To those who are worried about food, clothing, and shelter, the Lord taught them an outlook on

life that should not worry about tomorrow and that each day's suffering is enough for them. This means living as someone who realizes that only one day is your best day.

2. You must have a prayer life of preparation. (17-22)

In verses 17-18, it is said that on that day woe to those who have been bereaved and to those who are nursing, and that this is an unprecedented tribulation that we are told to pray for so that it does not occur in winter. So the Lord asked us to pray in preparation. You should know that if you pray a lot in advance about everything, God will work amazingly because of the gift of prayer.

In Jacob's case, he prayed before meeting his brother at the Jabbok River. Esther also prayed in advance before Haman's trick. The Lord also prayed before carrying the cross. The Garden of Gethsemane was an important time to prepare for prayer. When Peter was imprisoned, the church prayed in advance. A miracle happened. Likewise, in times of trouble, we must pray in preparation.

3. You must live a life that is held captive by the Word. (28-31)

In verses 28-31, it tells us to learn the parable of the fig tree. He said, "Even though heaven and earth pass away, the words of my mouth will not pass away, until everything is accomplished." He asked us to live a life that lives by the Word of the Son of Man. A life that lives by the Word is required of us.

I don't know how important revelation-dependent contemplation is. The conclusion of all our discussions must be summarized in words. This is the way to live. What was the cause of Adam and Eve's failure? It wasn't a big

thing. This is because it was a movement to break away from the Word, a movement to think outside of revelation. Jesus, the second Adam, defeated the devil through contemplation dependent on the Word. It still is. The salvation movement of the church is nothing other than a movement to convert it into the Word. In the last days, these activities will become more extreme. The activities of false prophets become more extreme. If we do not hold on to the Bible, it has no meaning. I hope that you will be armed with the Word.

26. 깨어 있어라 (막13:32-37) 1997.6.15. 주

예수님의 재림 날과 시를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에 대한 숫자 놀음에만 정신을 파는 비성경적인 길을 달리고 있다. 왜 그 날과 그 시를 모르는 것을 만족해야하는가?

1. 그것은 성부의 주권을 신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32절에 보면 주님은 성부만이 그 날을 아신다고 주장하셨다. 분명히 성자 성령하나님도 아시는 일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성부의 주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것이고 그날과 그 시를 모른 것이 우리 에게 더욱 더 주님을 신뢰하는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한 율법사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존중하자 주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날과 시를 아는 문제에 대하여 다른 것을 예언할때도 그런 원리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 도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몰랐다. 바로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고 말할 필요도 없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보라. 이 사건에 대하여 구약도 예언했다. 요나의 표징, 이사야53:10은 주님의 부활예언이다. 주님 의 재림의 날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으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존중하 고 날에다 우리의 삶을 걸지말고 오직 주님에게만 우리의 삶을 걸게하려 는데 있는 것이다.

2. 그것은 탐욕을 경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학생이 미리 답을 알려준다면 노력을 더 안하는 것 처럼 마귀는 언제나 미리 답을 보여주는 것을 유혹의 도구로 삼는다. 33절에 "그날이 언 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방탕과 탐욕을 경계할 수 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 여 다음 세가지 사실은 우리의 태도를 방탕하게한다.
더디온다는 말, 안온다는 말, 이미 왔다는 말은 모두 우리를
방탕하게만든다. 성경은 지금이란 시 간에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면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게한다. 특별 히 그 날과 그 시를
알려고 할때 우리는 탐욕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다.

더 경건한 것 같은데 더 탐욕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탐욕은 얼마나 교묘한지 모른다. 성령의 소욕은
탐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물질적인 면만이 아니다. 경건을 가장하여
나타나는 온갖 탐욕이 얼마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 우리는 그날
그날을 항상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어야한다.

3. 깨어 있는 삶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성부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내 속의 탐욕을 경계할 뿐 아니라 늘 깨어
있어 있도록 하기위하여 그 날과 그 시를 가르쳐주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에는 깨 어 있으라는 말이 여러번 나온다 (33, 35, 37). 이것은
만민에게 주는 것이라 했다(37).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세가 지 요소를 갖춘다. 1) 내게 맡긴
일을 열심히 하는 청지기로 살라는 것이다.

(예: 달란트비유) 2)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하라는
말이다(성령교통).

3) 말씀에 따라 사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말이다(적용하는 삶). 우리 모두
현재 있는 거기에서 감사를 배우고 긴장을 배우며 그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바란다.

26. Stay awake (Mark 13:32-37) 1997.6.15. main

It is said that no one knows the date and hour of Jesus' second coming, only the Father, but some people are following an unbiblical path, focusing only on playing with numbers. Why should we be content with not knowing the day or the hour?

1. Because it is a matter of trusting in the sovereignty of the Father.

In verse 32, the Lord claimed that only the Father knows the day. Clearly, Go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lso know this. Why did he say that? He said this out of respect for the sovereignty of the Father, and because not knowing the day and hour is beneficial to us in trusting the Lord even more. This can be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as when a lawyer was respected as a good teacher, the Lord said that there is no one who is good except God. In this way, even when he prophesied other things about the matter of knowing days and hours, he showed the same principle. Even when Jesus was born, no one knew the day or the hour. I didn't say exactly what day and hour it was, and there was no need to say it. Also look at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 Old Testament also prophesied about this event. The sign of Jonah, Isaiah 53:10, is the prophecy of the Lord's resurrection. The reason the Lord does not specifically announce the day of His second coming is to respect the sovereignty of the Lord and not to bet our lives on the day, but to bet our lives only on the Lord.

2. Because it can make us wary of greed.

Just as a student who studies will not put in more effort if the answer is given to him in advance, the devil always uses showing the answer in advance as a

tool of temptation. Verse 33 says, “Because we do not know when that day will be, we can guard against debauchery and greed.” The following three facts about the Lord's second coming should dissipate our attitude: Saying that it is delayed, that it will not come, and that it has already arrived all lead us to debauchery. The Bible maintains spiritual tension by pointing to the fact that He can come at this time. Especially when we try to know the day and the hour, we can become obsessed with greed.

How surprising is it that appearing more godly can make you more greedy? You don't know how cunning greed can be. The desire of the Holy Spirit does not manifest itself as greed. It's not just the material aspect. How much all the greed that appears under the guise of godliness ruins us? We must become wise people who always live faithfully each day.

3. Because it creates a waking life.

In order to respect the will of the Father, to guard against greed within me, and to always be alert, He did not teach me the day or the hour. In today's text, the word to stay awake appears several times (33, 35, 37). This is given to all people (37). What is waking life? It's like waking up from a coma. It has three elements. 1) It means living as a steward who diligently does the work entrusted to me.

(Example: Parable of the Talents) 2) It means living a life devoted to prayer every day (communication of the Holy Spirit).

3) It means to be zealous in living according to the Word (applied life). I hope we all learn to be thankful and relax where we are, and enjoy the grace of God that is given there.

27.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 (막14:1-9) 1997.6.22 주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한 여인의 헌신의
을 비교함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들
죽이려 했으나 (1-3) 그 여인은 옥함을 깨뜨렸다(4). 그 여인의 헌신 어떤
헌신이었나?

1.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오르내리는 헌신이 아니었다.

절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를 깨트리자 사람들이 비난했다. 허비인줄 고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를 들먹거렸다. 사람들이 무엇이라해도 하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행위이다. 그런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 난다.
교회 생활은 사람들의 평가에 오르 내리면서 하면 실패한다. 그 므로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 두려워해야한다. 벨사살왕이나 느브갓네살
그리고 헤로왕은 사람에게 충찬듣기를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망했다.

한 책망과 난관이 올 때 인내해야 한다. 두로 여인의 경우, 그는 시험 새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게해야 한다. 다윗의 경우, 베들레의 우물 을
가져왔을 때에도 먹지않고 땅에 쏟은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었인
줄을 아는 행위였다. 그의 망명생활에 비난당하였을 때 다윗은 하 님의
손인줄 알고 그대로 받아드렸다. 이런 사람이 봉사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 다.

2. 그것은 주님이 친히 중요한 일에 사용하시는 헌신이였다.

-님의 평가를 보라.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했다(6-9) 주님의 장 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7-8). 주님의 죽음만큼 귀한 사건이 어디 있 =가?

역사가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그 효능으로 자기 백성이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그 효력으로 새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것은 여인의 후손의 죽음이었다. 마귀는 무너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우리의 값진 삶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복된 헌신을 하는데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서야 할 줄 믿는다.

3. 그것은 영원히 남는 헌신이었다. (9)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일을 기념하리라고 했다. 주님이 이런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할 제물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하여 드리는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우리의 교회가 영원히 남는 기념비적 결과를 남길 정신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여인과 같은 기념비적 헌신이 함께하기를 축원한다.

27. Devotion desired by the Lord (Mark 14:1-9) 1997.6.22 Week

In today's text, Mark talks about the high priests, the scribes, and a woman's devotion.

- By comparing, it shows what the dedication of God's people is. They tried to kill them (1-3), but the woman broke her prison box (4). What kind of devotion was that woman's devotion?

1. It was not a commitment that rose or fell depending on people's evaluations.

People criticized me when I broke a very valuable perfume in a temple.

Thinking it was a waste, they talked about relief for the poor. It is an act of

giving one's all to one person no matter what others say. The history of life takes place in such places. Church life will fail if you go up and down in people's evaluations. Therefore, we should be afraid when we receive praise. King Belshazzar, Nebuchadnezzar, and King Hero loved to listen to people's praise, but eventually they fell into ruin.

We must be patient when rebukes and difficulties come. In the case of the woman of Tiro, he must let her test be an opportunity to receive new grace. In the case of David, the reason he did not drink from Bethlehem's well and poured it on the ground was because he knew that it was his devotion to God. When David was criticized for his exile, he accepted it, thinking it was God's hand. Such a person can perform the work of service. We hope that our church will become a church that serves God right away.

2. It was a dedication that the Lord Himself used for important work.

-Look at your evaluation. He said that he had done a good deed for the Lord (6-9) and that it was to prepare the Lord's throne (7-8). Is there any event as precious as the Lord's death? History progressed around it, and through its efficacy, the people were saved from sin, and through its efficacy, they were able to live a new and abundant life.

It was the death of the woman's descendant. The devil was defeated and the history of new life arose. We believe that we must stand before the Lord and spend our precious lives in blessed devotion to Him.

1. It was a dedication that would last forever. (9) The Lord said that this event would be commemorated where the gospel is spread. This means that the Lord requires this kind of dedication from us. This is the sacrifice that

God's people must offer. We must live a meaningful life in order to preserve our lives forever. We must live with a spirit and attitude that will leave monumental results in our prayers, our service, and our church that will last forever. I hope that the same monumental dedication as this woman remains in your hearts.

28. 언약의 피 (막 14:10-31) 1997. 6.29

언약을 성취하는 죽음을 바로 이해함으로서 언약의 피의 효능을 실제의 삶에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려한다.

1. 언약의 피란 무엇인가?

언약에 대하여 성경은 크게 둘로 구분한다. 행위언약은 범죄하기 전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맺은 언약이고 은혜언약은 범죄한 후 하나님이 인간을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다(창3:15). 옛언약과 새언약은 모두 다 은혜언약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알리는 말이다.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로 보여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약시대에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서 완성된 것을 보여주셨다. 오늘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언약은 언제나 피와 관련이 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하시고 그 가운데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했다. 유월절 어린양의 죽음의 결과로 얻은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를 때 심판의 사자는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갔다. 그들이 살아난 것은 이 때문이다. 수 천년이 지난 유월절의 양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음을 주님이 친히 선언하셨다.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만이 이 은혜언약을 효력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다.

2. 언약의 피의 효능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효능이 있는가? 1) 용서 받은 자의 체험이 일어난다. 24절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라는 말은 제한된 부류를 가리킨다.

그들의 죄로부터의 용서를 체험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부음바 되는 은혜를 가리킨다 (롬5:5). 우리는 이 용서 받은자의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줄 믿는다. 2)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난다. 26절에 성찬식을 마친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찬미하면서 가셨다고 했다. 누구를 찬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 증거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죄문제가 해결되었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말이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을 따라 담대히 나가시기 바란다. 3) 바른 봉사를 할 수 있다. 베드로의 큰 소리는 결코 주님의 봉사에 보탬이 되질 못했다. 그는 봉사와 헌신 역시 그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가 주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갔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주님이 주는 힘으로 주님을 따라 갈 수 있다는 바른 자세를 배웠을 것이다. 그러지 못한 그는 실 패했다. 나중에 그는 주님의 피가 얼마나 보배롭다는 것을 알았다. 죄사함 뿐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에도 여전히 그 피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던 것이다. 4) 넉넉한 구원을 이룬다. 25절에 보면 성찬식은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의 전주곡임을 말한다. 주님은 하나님나라에서 일어나는 잔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우리는 시작한 자이고 그 피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자이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자임을 알고 바울처럼 "나의 자라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한다.

28. The blood of the eye salve (Mark 14:10-31) 1997. 6.29

By properly understanding the death that fulfills the covenant, we will try to think about how we can enjoy the efficacy of the blood of the covenant in our actual lives.

1. What is the blood of the covenant?

The Bible largely divides the covenant into two parts. The covenant of works is the covenant that God made with man before he sinned, and the covenant of grace is God's promise to save man by grace after he sins (Genesis 3:15). Both the Old Covenant and the New Covenant are words that show how the Covenant of Grace developed over time. In the Old Testament era, God gave grace by showing us as a shadow, but in the New Testament era, God showed us that he was completed as a reality rather than a shadow. The Holy Communion established by the Lord today refers to this very thing. And this covenant always involves blood. When establishing the covenant on Mount Sinai, he made the people stand before God and slaughtered animals among them to shed blood. When the blood obtained as a result of the death of the Passover lamb was applied to the doorposts and lintels, the angel of judgment passed over when he saw the blood. It is because of this blood that they are alive. The Lord Himself declared that the Passover lamb, thousands of years later, was completed through Christ. Only the death of Jesus can make this

covenant of grace effective. So he said, “My blood is the blood of the covenant.”

2. Efficacy of the Blood of the Covenant

So what effect does Christ’s death have? 1) The experience of the forgiven takes place. The words “for many” in verse 24 refer to a limited group.

Let them experience forgiveness from their sins. This refers to the outpouring grace of God’s love (Romans 5:5). We believe that we must live with the love and emotion of this forgiven person. 2) Communication with God occurs.

Verse 26 says that after completing the Holy Communion, he went to the Mount of Olives with his disciples, singing praises. Who are you praising? It is to praise God. This is evidence that communication with God has taken place. The fact that communication with God has been achieved means that the problem of sin has been resolved and one has moved into a deeper position of grace. I hope you boldly follow the new, mountainous path that has been opened in the midst of the veil. 3) You can provide proper service. Peter’s loud voices were in no way helpful to the Lord’s service. He did not know that service and dedication also depended on his contributions. If he had gone forward relying on the blood and merits of the Lord, he would have learned to deny himself. He would have learned the right attitude to follow the Lord with the strength the Lord gave him. He failed because he couldn’t do that. Later he learned how precious the Lord’s blood was. He knew that the blood was still the only way not only to commit sin but also to serve the Lord. 4) Achieve ample salvation. Verse 25 says that the Holy Communion is a prelude to the coming kingdom of God. The Lord speaks with the banquet taking place in the kingdom of God in mind. We complete our salvation

through that blood. Those who know that only the precious blood of Jesus is the one who began, that we live only because of that blood, and that we complete our salvation through that blood, and who confess like Paul, “I boast only in Christ and his cross.” It should be.

29. 겹세마네의 기도 (막14:32-52) (51) 1997.7.6. 주

우리 주님이 겹세마네 기도로 십자가를 이기셨듯이 우리는 겹세마네의 기도 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1. 그 기도는 간절한 간구였다.

감람산으로 나가신 주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나의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았으라"고 했다. 이것은 기도하라는 말이다. 또 제자에게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엎드려 기도하셨고(자세), 세 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방법), 될 수 있는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고(35). 땀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다(정도). 기도란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것 처럼 기도없이 는 제대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간절한 간구는 건 강한 성도의 표징이다. 남의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 자기 호흡 유지만을 위 하여 근근히 살아가는 성도의 차원을 넘어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 는 자리로 나가는 주님의 뜻이다.

2. 그 기도는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간구였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다.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는 간구이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일관했다. 기도는 복종이다. 내 뜻을 먹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 는 작업이 기도이다. 오늘날 인간에게 주어진 큰

문제는 자유의지의 문제이다. 자유의지란 고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바른데다 고착시키면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의지가 되어 마침내 불행하여 진다. 이것은 돌에다 계란을 던져 부수어 버리겠다는 것과 같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무엇을 함으로 고집을 피우는가? 주의 약속이나 그의 말씀에 고착하여 고집을 피우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는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는 여지없이 불행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엘 리야의 간구를 보라. 그는 자기의 고집으로 비오기를 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약속을 믿고 구한 것이다. 이런 간구가 여러분의 기도여야만 한다.

3. 그의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받는 간구였다.

35절에 "시험에 들지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 다"는 말은 우리의 최대의 원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육신이 약한것"이 다. 다시말하면 마음의 소원을 따르지 못하게하는 "육(부패성)" "이 우리의 속에 놓여있다는 말이다. 여기 "약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이룰수 없는 "무력 무능"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시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수 없도록하는 육이 문제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 고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부르짖었다. 주님도 간구를 통하여 이 능력을 받았다. 기도 후,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왔다고 했다. 자기를 꺾는 고백을 할 때 주의 사자가 돕는다. 자기를 공격할 때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한다. 갯세마네 동산에 몰려오는 원수를 이 응답으로 이겼다. (44) 기도로 시험을 이기자.

그리스도인의 침묵일관 (막14:53-72) 1997.7.13 주

본문은 두가지 사건을 비교하여 설망한다. 그것은 대제사장 앞에선 주님의증거와 대제사장 종 앞에선의 베드로의 부인이다. 마가는 ○ 둘을 비교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 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 가라고 말하는가?

1. 침묵함으로 정진해야한다.

53-65에 보면 거짓증거를 받은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면전에서 침묵을 지키 다가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 간단한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다"고 증거하시었다. 이것을 가리켜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인 스킨더는 3대 침묵이라고 해석했다. 1) 선지자의 침묵(56-61상), 참 선지자는 말함으로 진리를 증거하지만 침묵으로도 설교한다. 일찌기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예언한 그 선지자는 바로 주님이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고야만다 (요14:6). 스테반집사님의 침묵일관은 무력해서 그런것이었나? 그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되어 버렸는가? 아니다. 그는 돌탕에 맞았지만 그의 순교의 침묵은 영원한 효력을 가져왔다. 2) 왕의 침묵 61상-63), 그는 선지자로서 침묵 하셨을 뿐 아니라 그는 왕으로서 침묵하셨다. 왕은 호령도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심으로서 그의 통치를 더 깊이 있게 하신다. 그는 침묵일관하심으로 자기 나라의 의를 세운다. 대제사장이 정색하고 "네가 영광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질문하였을 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는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며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고 했다(단7:13). 주 님의 왕 되심을 친히 증거하는 것이다. 정말 그만이 하나님나라의 왕이다.

3) 대제사장의 침묵, 또한 그리스도는 백성의 죄를 책임진 대제사장의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64-65절에 보면 그는 사형판결을 받는다. 죄 없으신 그 분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자기백성의 죄를 책임진 대제사장으로서 받은 판결이다. 우리가 잘 아는데로 구약의 대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짊어진 것 처럼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 분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그 길을 가셨다. 정말 요17장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는 과거, 현재 그리고 장래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은 자가 되었다. 이와같이 그리스도가 침묵일관함으로 아버지를 섬겼듯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향한 책임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위하여 침묵일관이 요구되는 것이다.

2. 겸손으로 정진해야한다.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무력과 무능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겸손히 침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겸손으로 정진하는 것을 배워야한다. 겸손이 무엇인가? 자아부 인이다. 자아부인이란 무엇인가? 겸손을 가리킨다. 자아부인은 자아말살이 아니며 자아의 뜻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앞에 압도되는 반응이 겸손이다. 바울의 체험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는 삶이다(갈2:20)". 본문의 베드로는 이 자아부인을 몰랐기에

주님을 부인하고야 말았다. (14:31, 14:54, 14:68, 70, 71), 주님을 따르는 데는 겸손으로 정진해야 한다.

29. Prayer in Gethsemane (Mark 14:32-52) (51) 1997.7.6. main

Just as our Lord overcame the cross through the Gethsemane prayer, we can walk the path of the cross before us through the principles of the Gethsemane prayer. What kind of prayer was this?

1. The prayer was an earnest request.

The Lord who went out to the Mount of Olives had a clear purpose. It was a prayer to Heavenly Father. He asked his disciples, “Sit here while I pray.” This means pray. He also said to his three disciples, “Watch and pray, for my soul is sorrowful unto death.” Then he bowed down in prayer (posture) and repeated the same words (method) three times, praying that this time would pass from him as much as possible (35). He even changed his sweat into blood (to this extent). Prayer is the breathing of the soul. Just as it ends when breathing stops, it is impossible to live a proper religious life without prayer. So earnest prayer is a sign of a strong believer. It is the will of the Lord to go beyond the level of saints who live off the prayers of others, who barely survive just to maintain their own breathing, and to move into the position of becoming people of prayer who intercede.

2. The prayer was a request to submit one's will to the Father's will.

What is the content of the Lord's Prayer? The prayer was, “Not my will, but thine be done.” It is a request to submit one's will to the will of the Father. It happened three times consistently. Prayer is submission. Prayer is the work of eating my will and aligning it with the Father's will. The big problem facing

humans today is the problem of free will. Free will can manifest itself as stubbornness. This is good if you stick to it correctly, but if you don't, it will become a will that opposes God's will and will ultimately lead to misfortune. This is like throwing an egg at a stone and trying to break it. What does your free will insist on doing? I believe that we must become wise people who stick to the promises of the Lord and His words and are stubborn. A foolish person who opposes his will to the will of God will find himself inevitably unhappy. Look at Elijah's plea. He did not save the rain out of his own stubbornness. He believed and sought God's clear words and promises. This request should be your prayer.

3. His prayer was a request to receive the power to overcome temptation.

Verse 35, "Watch and pray that you may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shows us our greatest enemy. "The flesh is weak." In other words, the "flesh (corruption)" that prevents us from following the desires of our heart lies within us. The word "weak" here refers to "powerlessness and inability" to achieve God's will even though one knows it. Therefore, the test is not scary, but the problem is the flesh that prevents you from overcoming the test. Knowing this, Paul cried out, "Oh, wretched man that I am!" The Lord also received this power through prayer. After praying, he said an angel appeared and gave him strength. When he made a self-defeating confession, an angel of the Lord When we attack ourselves, the power of the Lord comes upon us. With this answer, we overcome the temptation through prayer.

Christian silence consistency (Mark 14:53-72) 1997.7.13 week

The main text explains by comparing the two incidents. It is the Lord's testimony before the high priest and Peter's denial before the high priest's servant. By comparing the two, Mark shows that those who follow Christ must follow Christ's methods. How do we tell people to follow the Lord?

1. You must move forward in silence.

In verses 53-65, Christ, who had received false testimony, remained silent in the presence of the high priest, and then testified in simple words before the high priest's question, "I am the Christ." Schilder, a famous Dutch theologian, interpreted this as the three silences. 1) The silence of the prophet (56-61a). A true prophet testifies the truth by speaking, but he also preaches in silence. The prophet whom Moses once prophesied in Deuteronomy 18 was the Lord. Therefore, anyone who does not listen to Christ must perish (John 14:6). Was Deacon Stephen's consistent silence due to helplessness? Has the result become meaningless? no. He was pelted with stones, but the silence of his martyrdom had eternal effects. 2) The king's silence (61a-63), not only was he silent as a prophet, but he was silent as a king. The king gives loud commands, but sometimes he deepens his rule by remaining silent. He establishes the righteousness of his kingdom by his silent consistency. When the high priest asked with a straight face, "Are you the Christ, the Son of the Glorified One?" what did the Lord answer? He was see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Powerful One, and he was said to see the Son of Man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Dan. 7:13). It is a personal testimony that the Lord is King. He alone is truly the king of God's kingdom.

3) The silence of the high priest. Christ was also consistent with the silence of the high priest who took responsibility for the sins of the people. In verses 64-

65, he is sentenced to death. It was not because he had no power that he, who was sinless, suffered such a thing. It is a judgment he received as a high priest responsible for the sins of his people. As we all know, just as the Old Testament high priest carried a jewel with the names of the 12 tribes on his shoulders, Christ took responsibility for all of our problems and went down that path. Indeed, thanks to the prayer of the high priest in Chapter 17 of John, we have become those who have had our past, present, and future problems solved forever. In this way, just as Christ served his father with consistent silence, Christians are required to remain silent in order to live a life as a responsible person for this generation.

2. We must move forward with humility.

Christian silence is not silence because of powerlessness or incompetence, but humility because we see God working among us. So we must learn to move forward with humility here. What is humility? It is self-denial. What is self-denial? It refers to humility. Self-denial is not self-annihilation, but submission of the will of the self to the will of the Lord. After discovering God, the overwhelming response before Him is humility. Like Paul's experience, "I die and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Peter in the text did not know this self-denial, so he ended up denying the Lord. (14:31, 14:54, 14:68, 70, 71), following the Lord must be pursued with humility.

30. 고난 당하는 유대인의 왕 (막15:1-23) 1997.7.20 주

주님이 주장하신 유대인의 왕을 바로 이해할 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빛을 본 것 처럼, 큰 구원의 영광을 본다. 오늘 본문에는 유 대인의 왕에 대한 세 견해를 서로 비교함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그리스도관을 생각한다.

1.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로 생각하는 견해 예수님이 잡힌 다음 가야바 대제사장뜰에서 판결을 받고 이제 빌라도 에게 보내졌다. 거기서 역시 불법재판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넘겨졌다.

하나는 유대인의 견해인데 그들은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네가 찬송받을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이 그 대표적이었다. 거짓말쟁이로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장인 하나 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지않았다는 말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 자신의 주장 마저 거절하는 셈이 되었다. 다른 하나는 로마군 병들의 견해이다. 그들은 조롱하면서 그를 미치광이로 생각하여 예 를 취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온갖 희롱을 다했다. 그들 역시 그를 바로 알지못했다. 유대인들과 군병들과 같은 견해가 오늘날 교회에 많이 팽배해 있다. 자유주의 성경관이나 신정통주의 성경관은 그렇 게 보는 견해이다.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람 역시 신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이다.

2. 민족주의자로 보는 견해

빌라도의 견해였다. 쉽게 생각하고 바라바대신 놓아주려 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반문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그들의 요구를 허락했다

다. 이 견해는 제자들의 견해이기도 했다.(행1:6)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육신주의적 메시야로 생각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믿게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억지로라도 임금 삼으려고 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자리에 서 벗어나야한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 오신 것이다. 해방신학, 민중신학은 모두 민족적인 메시야관에서 시작한다. 개인 구원은 상관없다. 결국에는 모두 다 잘 살아보자는 것이다. 우리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 귀한 믿음을 개인적인 단체적인 기복주의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줄 안다.

3.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견해

예수님 대답의 진의가 그 말이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인자로 오셨다(단7:13). 그는 구속주로 오셨다. 그래서 마취약을 마시지 않으셨다. 그는 영광의 주로 오셨다.

에스겔에게 보인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왕의 모습이였다. 그런데 왜 그 왕은 이렇게 수모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 나라의 왕은 세가지 방면의 왕이시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영광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큰 축복이다. 에스겔의 새성전 구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위치를 바라본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미 그 영광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30. The Suffering King of the Jews (Mark 15:1-23) 1997.7.20 Week

When we correctly understand the King of the Jews claimed by the Lord, we see the great glory of salvation, just as a person in darkness sees the light. In today's text, we consider the correct view of Christ we should have by comparing the three views of the Jewish king.

1. The view that Jesus is a liar or a lunatic. After Jesus was caught, he was judged in the court of the high priest Caiaphas and was now sent to Pilate. There he was also crucified for an illegal trial.

One is the Jewish view, which is that they treated the Lord as a liar. The high priest's question, "Are you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One?" was representative of this. Recognizing him as a liar means that he did not believe that Jesus claimed to be the Son of God. This amounts to a rejection of Jesus' claims and even Jesus' own claims. The other is the opinion of Roman soldiers. They ridiculed him, thinking he was a madman, made him bow to him, dressed him in purple clothes, and made all kinds of mockery to him. They didn't know him right away either. The same views as those of the Jews and the soldiers are prevalent in the church today. The liberal view of the Bible and the neo-orthodox view of the Bible view it that way. Their view is that it is impossible for God to become a human being, and that humans also cannot be gods.

2. Nationalist view

This was Pilate's opinion. I thought it was easy and tried to let go instead of Barabbas. So I ask myself several times. In order to win people's hearts, their requests were granted. This view was also the view of the disciples. (Acts 1:6)

“Is it at this time that you will restore the kingdom of Israel?” They thought of it as a carnalistic Messiah. What is the purpose of the miracle of the five loaves and two fish? It is to make them believe. However, they tried to make him a king by force. Today's church must not only come for the Jews, but also for the sake of their people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It doesn't matter about personal salvation. In the end, we must all strive to live well so that our precious faith in Christ does not become biased toward personal or corporate blessings.

3. The view of being the king of the kingdom of God

That is the true meaning of Jesus' answer. Christ is the one who came as the king of the kingdom of God prophesied in the Old Testament. He came as the Son of Man (Daniel 7:13). He came as the Redeemer. So he didn't drink the anesthetic. He came as the Lord of glory.

The image shown to Ezekiel was that of Christ as King. But why did the king have to suffer such humiliation and suffering? The king of that country is a king of three aspects. He is the King of righteousness, the King of peace, and the King of glory. Therefore, it is a great blessing to be abiding in Christ. In Ezekiel's new temple structure, we see our glorious position.

By accepting Jesus, we have already become those who dwell in His glory.

31.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증거 (막15:24-47) 1997.7.27 주

마가복음 10:45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실제로 자기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심을 통하여 그 가 하나님되심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생각해 보자.

I.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하여

24-47절은 십자가상의 죽으심에 대하여 6시간의 과정을 간단히 언급한다. 그는 강도들과 함께 매달려 있었고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가 붙여져 있었다. 처절한 치욕의 모습이다(사53:1-3), 행인들, 지도자들, 곁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강도들도 조롱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주장"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이다.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잔을 받아 마신 것이다. 사람에게 당하는 수치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 더 큰 고통이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신 것을 보아서 믿을 수 없는 자리일지라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다. 왜 그런 고통을 대신하셨는가?(사53:12)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니라. 우리는 6시간의 장면을 묘사한 마가의 증거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든 고난, 최대의 고난, 거기에 덧붙여 백성의 조롱과 고난을 그대로 감수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의 모습을 본다.

2. 십자가상의 죽음 직전부터 장사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 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주목해보자.

38-47 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와 관련된 세가지 중요한 사건을 언급한다. 1) 첫째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죽으심의 효력있는 최초의 증거이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이제는 정상화되었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 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성소 안에서 그 영광을 보며 사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않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분과 기도함으로 그 가슴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의 산경험을 가지고, 그 분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 가는 자가 되었다. 2) 둘째, 백부장의 감격스러운 신앙고백이 일어났다. 모두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증거하는데 백부장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 같다. 주님이 하시는 태도를 보고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 그의 어두운 눈이 뜨여졌던 것이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이다. 3) 세 제, 여인들과 요셉의 행동 (40-41) 침묵가운데 있던 헌신된 여인은 그런 현장을 지켜보기만 했다. 조용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최초의 부 활증인이 된다. 무덤 속을 들여다 보았을때 입이 막혔다.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목격한 것이다. 요셉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증인이었다. 그의 몸을 세마포에 싸서 자기 무덤에 숨겼다. 이 분 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을 확실히

증거한 자는 없다. 그는 참사람, 참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죽으신 분을
목적한 자이기 때문이다.

31. The testimony of Christ on the cross (Mark 15:24-47) 1997.7.27 week

According to the purpose for which the Lord came in Mark 10:45, the Lord actually bore the cross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Let us consider how God was revealed through His death and burial on the cross.

I. Through death on the cross

Verses 24-47 briefly mention the six-hour process of death on the cross. He was hung with the robbers and branded with the inscription "King of the Jews." It was a scene of grievous humiliation (Isaiah 53:1-3), and passers-by, leaders, people nearby, and even robbers mocked him. It is asking for evidence for the claim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This is the devil's temptation to trip up Jesus.

He could have proven it as much as he wanted, but now he has received and drank the cup of God by remaining silent. The pain of being abandoned by God is a greater pain than the shame of being suffered by others. He cried out loud and saw His fate, so even though it was an incredible position, He asked His Father for everything. Why did you take on such pain? (Isaiah 53:12) He hath abandoned his soul unto death, and i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yet he beareth the sin of many, and prayeth for the transgressors. Through Mark's testimony depicting the six-hour scene, we can see the image of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who endures all suffering, the greatest suffering, and even the ridicule and suffering of the people for the sake of his people. see the appearance

2. From just before death on the cross to burial

Let's pay attention not only to the event of Jesus' death, but also to what happened afterward.

Verses 38-47 mention three important events related to the testimony of the Son of God. 1) The curtain of the first sanctuary was torn. It is the first effective evidence of death.

God's relationship with his people was now normalized. I was able to come boldly before God. Therefore, he became a Christian living in the Holy of Holies, seeing its glory. As a Christian, even though I do not see God with my eyes or hear His voice, I pray with Him in the name of Jesus and have the living experience of communication with God in my heart, and I have become a person who lives while experiencing the grace that He gives. 2) Second, the centurion's touching confession of faith occurred. Everyone testified that he was not the Son of God, but the centurion said that he was "the Son of God." It seems that he had a change of heart. When he saw the attitude of the Lord, his dark eyes were opened through Christ's act of love. Such a confession was made in the face of an undeniable fact. 3) The actions of the women and Joseph (40-41) However, the devoted woman was the first to observe such a scene. When he looked into the tomb, he became a witness of the resurrection and witnessed his glorious presence. He wrapped his body in linen and hid it in his own tomb. There is no one who clearly testified to the complete death of Christ like this person. This is because he is a true man and a true God whose purpose is to become the One who died completely.

32. 하나님나라 왕의 지상명령 (막16:14-20) 1997.8.3 주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위치와 교회에 부탁하신 마지막 지상명령을 생각한다.

오늘날 교회는 그의 위치와 명령을 바로 알 때 지금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를 분명히 알게된다. 이는 그의 위치가 우리의 위치이며 그의 명령이 내게 주신 긴급한 부탁이기 때문이다.

1. 예수님의 높아지신 위치

예수님의 높아지신 자리는 어떤 위치인가? 죽음과 장사를 기초로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되셨다. 에베소서 2:

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연합되었기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했다. 19절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했다. 마가는 그것을 본 일도 없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 자리는 권위의 자리이며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자리이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알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정 치, 경제의 흐름, 기후의 변동 등 모두를 주님이 주관하신다. 또한 이 땅에 서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라는 사실이다. "주는 영이시다"(고후3:17)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라. 주님의 행전이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지도하셨다. 베드로의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역을 보라.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사역은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록 낮은 자리 부족해 보이는 자리에 있다해도 여전히 주님은 권위로서 일하신다.

2.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 분은 왕으로서 무슨 명령을 하셨는가? 14-18절에 보면 "온 천하 만민에 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다. 대상: 만민, 방법: 다니면서, 내용: 하나님나라의 복음(16), 증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안수할 때 병이 낫는다. 교회는 바로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3 가지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야한다. 우리교회는 가르치는 사역, 설교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다. 하나님나라의 왕은 지금도 종처럼 일하신다. 강한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다. 세상 끝날 때 까지 일하신다. 우리는 그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주님을 받들어 그 사역에 순종 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섬김의 사역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맞보아야 하겠다

32. The Great Commandment of the King of God (Mark 16:14-20) 1997.8.3 Week

Think about the exalted position of Jesus and the last great command he entrusted to the church.

Today's church will know clearly what to do when it knows his position and commands. This is because his position is our position and his command is an urgent request to me.

1. Jesus' exalted position

What is the exalted position of Jesus? The Lord, who was resurrected on the basis of death and burial, ascended to heaven and became the one who sat at the right hand of God's throne. Ephesians 2:

Paul said that because Christians have been united with Christ's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he now sits at the right hand of God's throne. He also says in verse 19, "After the Lord Jesus had finished speaking, he was taken up into heaven and sits at the right hand of God." Mark interprets it that way by faith, even though he never saw it. This is a position of authority and a position to rule over his people. It is surprising to know that everything in the world today flows from this throne. World politics, economic trends, climate changes, etc. are all governed by the Lord. He is also the one who works on this earth through the Holy Spirit. "The Lord is the Spirit" (2 Corinthians 3:17). Look at the history of the Acts of the Apostles. It is the act of the Lord. The Lord Himself spoke and guided. Look at Peter's ministry of healing the lame man. He healed in the name of the Lord.

Therefore, the ministry of the church today is the Lord's ministry. So, even though the church is in a low position and seems inadequate, the Lord still works as an authority.

2. Jesus' Great Commission

What commands did he give as king? In verses 14-18, he sai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in the whole world." Subject: All peoples, Method: Going around, Contents: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16), Evidence: Casting out demons, speaking in new tongues, picking up snakes, drinking poison and not being harmed, laying hands on the sick, The disease is cured when The church is an institution that exists to carry out this Great Commission. Therefore, the church

Three ministries must occur vigorously. The Lord wants our church to flourish in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ministries.

The Gospel of Mark is the gospel of the servant. The King of God's kingdom still works like a servant.

Let us build the Lord's church through strong service. He works until the end of the world. We are those who have received his orders. Therefore, let us be those who serve the Lord and obey His ministry. You and I, who have been called as God's servants, must experience the work of establishing the Lord's kingdom wherever we go through this ministry of service.

33.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교회는 항상 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두아디라교회에 나 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며 새벽 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새벽별이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안에 의 승리를 가리킨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란 그리스도안에서의 교회의 왕 1권위를 가리킨다고 말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안에서 이

1상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새 생명이 근데서 왕노릇하게 하려함이라고 했다.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에 열 아나 이 영적권위를 사용하느냐에 놓여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이 영 적권위를 사용함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개인의 관계의 삶에서 왕으로 사는 것 보다 패배자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어떻게하면 우리교회가 왕적권 위를 활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1. 바른 성장을 함으로서

19-20절 보면 주님은 두아디라교회의 영적성장을 칭찬하신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에베소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였다. 당시 가장 작은 도시였지 만 비단 만드는 공장(자주장사 루디아)이 거기에 있어 상업이 성행한 곳이라한다. 많

1은 부자들이 나와서 봉사도하고 섬기기도 한 교회인 것 같다. "네 처음보다 나중이 많도다"고 말한것을 보아 그 교회는 첫 사랑의 감격을

가진 교회인 것 같다. 그러나 그 교회는 성장하는 중에 거짓교훈을 받아드려서 병들어 버렸다고 한다. 20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잘 용납했다고한다. 음과 우상제물을 먹는 일이 있었다.

이 교회는 바로 시작한 것 같은데 성장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바른 성장이 가능한가? 1) 그리스 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서 시작된다(요1:12) 2) 말씀공급을 잘 받음으로서 세워 진다(마13:).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엡4:). 3) 영적분별력을 가짐으로서 이루어진다(롬12:1-2). 4) 고난을 통과함으로서 빛어진다.

2. 바른 회개를 통하여

성장하는 중에 교훈이 잘못 들어 왔을 때 두아디라교회는 넘어지는 자가 되었다. 성 장이 잘못된 것이다. 교회는 이 교훈 때문에 행음하게 되었고 우상숭배가 판을 치게 되었다. 그때 주님은 회개하라고 권면하셨다.

다윗의 경우처럼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왕권을 회복하나 사울처럼 회개하지 못하면 망한다. 22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세 가지 환난이 일어난다고 했다. 1) 병, 2) 환난, 그리고 3) 자녀를 죽인다고 했다. 우리교회는 회개를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한다. 고집을 부리지말고 즉각 회개해야한다.

회개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왕권이 세력을 얻는다.

3. 바른 확신을 가짐으로서

에베소교회에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다. 24절에 보면 처음 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다.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처음 것을 버림으로 새로운 것을 지니는 줄 알고 있다 히브리서 6:에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자리에 나아가라는 말은 기초적인 지식이 성장한 이후에는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을 기초로하여 완성된 자리에 나아가라는 말일 뿐이다. 그러므로 왕의 권위를 활용하는 자는 처음 받은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만 한다. 왕적권위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 그리스도의 승리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우리는 바른 성장을 해야한다. 더욱이 바른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처

33. When we look at what is given to those who overcome, it clearly shows that the church exists as a church that always fights at the table. What did the Lord say to the church in Thyatira? He said,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authority over the nations, and I will give him the dawn." The morning star points to Christ and at the same time points to victory in Christ. And the authority over all nations is the king of the church in Christ.

1 It can be said that it refers to authority. God wants the church of God to exist in Christ

He wants to reign as king in the first phase. It is said that the Lord died for us and was resurrected so that we could reign as kings in new life. The problem lies in how much this spiritual authority is used in the individual lives of today's Christians. Although many people are Christians, we do not know how many people use this spiritual authority to live as losers rather than as kings at

home, at work, or in their personal relationships. How can our church become a church that utilizes royal authority?

1. By growing properly

In verses 19-20, the Lord praises the spiritual growth of the Thyatira church. It was a church with business, love, faith, service, and patience. It was a beautiful church like the church in Ephesus. Although it was the smallest city at the time, it was said to be a thriving place for commerce because there was a silk manufacturing factory (Jajujangsa Lydia) there. a lot

1 seems to be a church where rich people come out and volunteer. Seeing that he said, “You are more at the end than at the beginning,” it seems that the church is a church with the emotion of first love. However, it is said that the church accepted false teachings while growing and became sick. Verse 20 says that he tolerated Jezebel, who called herself a prophet. There was a case of eating food sacrificed to idols.

This church seems to have started right away, but problems arose as it grew. It shows us that the beginning is important, but the process is also important. So how is proper growth possible? 1) It begins by accepting Christ personally (John 1:12). 2) It is established by receiving a good supply of the Word (Matthew 13:). We must be one in what we believe and in what we know (Ephesians 4:). 3) Having spiritual discernment

It is accomplished as 1 (Romans 12:1-2). 4) It is created by going through hardships.

2. Through proper repentance

When the teachings were wrongly received during growth, the Thyatira Church fell. Seong Jang made a mistake. Because of this teaching, the church committed fornication and idolatry became rampant. At that time, the Lord advised us to repent. As in the case of David, those who repent well will regain their royal authority, but those who fail to repent like Saul will perish. Verse 22 says that if we do not repent, three tribulations will occur. It was said to cause 1) illness, 2) tribulation, and 3) death of children. Our church must become a church that is good at repentance. Don't be stubborn and repent immediately.

Where there is repentance, the kingship of God gains strength.

3. By having the right confidence

He also told the Ephesian church to restore their first love. Verse 24 tells us to hold fast to the first things. The reason the church becomes weak is because they believe that they gain something new by abandoning the first. Hebrews 6: says to abandon the basics of Christ and move on to perfection, which does not mean that basic knowledge is not necessary after you have grown. It just means that you should move to a completed position based on that. Therefore, those who utilize the authority of the king must firmly hold on to the gospel they first received. In order to live in the grace of Christ's victory over all nations with royal authority, we must grow properly. Moreover, through correct repentance and faith,

34. 사는 최대의 인본주의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미 성경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부인하는 모든 활동, 모든 사건, 모든 동기를 죄악으로 취급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우리에게 사단의 체계의 상태가 어떠한지,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방법과 승리자에 게 주어질 약속된 축복을 보인다.

1. 사단의 체계의 상태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가 서 있는 교회라고 했다. 사단의 위가 있다는 말은 사단의 보좌,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란 말이다.

다시말하면 사단의 체계와 활동 이 극심한 곳이란 말이다. 1) 어떤 사단의 체계인가?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따르는 이단이였다. 그릇된 교훈 하나로 이스라엘은 죽음의 자 리에 떨어졌었다.

2) 어떤 열매인가? 두가지 뚜렷한 사망의 열매가 나타났다. 우 상숭배의 재물을 먹는 것과 음행이였다. 오늘날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 현대 문명은 고대바벨탑 고대로마와 같이 발전되었지 만 우상으로 가득찬 문화이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엘의 우상숭배 요청을 받고 이 미 넘어간자도 있고, 넘어가려는 자도 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정절을 배우지 않 으면 안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는 사단의 위와 싸우다가 순교를 당했다. 너 자신 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경건이다.

2. 사단의 체계를 이기는 방법

사단의 위가 있는 교회를 향해 친히 나타나신 인자 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으시며, 그분이 주시는 방법만이 이길 수 있는 줄 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다. 양검으로 수술과 치료를 한다. 이 검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사탄의 궤계를 바로 분별하고 우리 주변에 범람한 사탄의 유혹을 공격하여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여러분되기를 바란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궤계를 이기는가? 이것이 실제의 경험인가? 요사 이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비교할 때 성도의 무기가 말씀이란 사실을 새롭게 배운다. 사울의 경우, 그는 겸손하였으나 시기와 분노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그는 자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는 마음의 시기를 이길 힘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고난을 당해도 용서한다. 도망다녔지만 자유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시119:의 주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주의 말씀은 노인보다, 스승보다,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고 했다.

3. 승리자에게 약속된 축복

버가모 교회가 사단을 이기는 것은 자기 생존을 위해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길 때 마다 주님은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두가지이다. 하나는 감주인 만나이고 다른 하나는 새이름이

적힌 흰돌을 준다는 것이다. 1) 감추인 만나란 놀라운 양식이다.

이스라엘이 40년간을 광야에서 먹고 생계를 유지한 것 처럼 환난 중에 있는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음으로서 살아간다는 말이다.

감춰있던 선물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주님은 그 때 그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해 주시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2) 그리고 흰돌을 주신다. 이것은 점점 더 의롭게 되는 확증을 가진자로 살아가게하신다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영적거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기는 것으로 점점 더 큰 용사가 되는 것이다.

영적생활에 있어서 벼락부자란 없다. 티끌모아 태산이 라는 원리가 경건생활에 있어서는 절대진리의 길이다. 이 영적거인이 되는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가리킨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영적거인으로

34. t is not surprising that history presents itself with maximum humanism.

The Bible already knew this, so it treated every activity, every event, and every motive that denied God's mastery as sin. The Lord who appeared in the church at Pergamum shows us the state of Satan's schemes, the method of victory over Satan, and the promised blessings to be given to the victor.

1. The state of Satan's schemes

The church in Pergamum was said to be a church where "the throne of Satan" stood. The existence of Satan's throne means that it is Satan's throne and the place where Satan's authority is located. In other words, it is a place where Satan's control and activities are extreme. 1) What kind of Satan's

commandment is this? This is the lesson of the Nicolaitans. It was a heresy that followed the teachings of the prophet Balaam. With one wrong teaching, Israel fell to its deathbed. 2) What kind of fruit is it? Two distinct fruits of death appeared. It was eating idolatrous goods and fornication. The church today seems to be located where Satan's throne is. Modern civilization has developed like the ancient Tower of Babel and ancient Rome, but it is a culture full of idols. In today's church, some have already turned over to Daniel's call for idolatry, and some are trying to turn over. Therefore, we must learn from Daniel's chastity. Daniel made up his mind to refuse the king's delicacies so as not to defile himself. Antipas of the church at Pergamum was martyred while fighting against Satan. The greatest piety is to keep yourself uncontaminated by the world.

2. How to overcome Satan's tricks

I know that only the Son of Man, who personally appeared to the church where Satan is based, can overcome this, and that only the method He provides can overcome this. The Lord appeared at the church in Pergamum. He appeared as "one with a two-edged sword." He performs surgery and treatment with a double sword. This sword is the living word of God. I hope that by combining your faith with these words, you will be able to correctly discern Satan's schemes within you, attack the temptations of Satan that are flooding around us, and capture all theories and make them obey Christ. Can we really overcome Satan's schemes with the word of God? Is this a real experience? When we compare the cases of Saul and David, we learn anew that the weapon of believers is the word. In Saul's case, he was humble, but his jealousy and anger showed in his actions. He tries to kill David. He tried

to kill him by any means necessary, even though he knew it was wrong. He did not have the strength to overcome the envy of his heart. In other words, he could not use the sword of God's word. But David's case was different. He forgives even when he suffers. He ran away, but he was free. This is because the word of God captured him. I knew the power of your word in Psalm 119: It is said that the word of the Lord makes us wiser than an old man, a teacher, or an enemy.

3. Blessings promised to the victor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Pergamum church to overcome Satan for its survival. Despite this, every time we won, the Lord promised us abundant life. There are two things. One is manna, a sweet drink, and the other is a white stone with a new name written on it. 1) Hidden manna is an amazing food. Just as Israel survived by eating in the wilderness for 40 years, the church in tribulation survives by eating the grace given by the Lord. How thrilling is it to see a hidden gift revealed? The Lord helps us understand His words at each time, and we live in this world with that power. 2) And he gives you a white stone. This means that God allows us to live as those who have the assurance of becoming more and more righteous. You do not become a spiritual giant overnight. By winning one battle at a time, you will become a greater warrior. There is no such thing as becoming rich overnight in spiritual life. The principle of gathering dust into a mountain is the path of absolute truth in living a pious life. The life of becoming a spiritual giant

It refers to “a life of walking with God.” Become a spiritual giant like Enoch and Elijah

35. 진정한 부요자 (계2:8-11) 1997.9.7 주

서머나 감독인 폴리잡의 순교 이야기가 있다. 그가 마지막 심문을 받는다.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마!" 그때 그는 "89년 동안 나의 부탁을 한번도 거절한 일이 없는 그리스도를 어찌 부인할 수 있습니까?"라는 반문을 했다. 곧이어 그는 불에 태움을 당하며 장렬한 순교를 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의 상태를 잘 말 해주는 사건이라고 보여진다. 죽기까지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약속 은 이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임을 보인다. 어떻게하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생 명의 부요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1. 부활한 주님의 위치에 섬으로서 부요를 얻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 고 했다. 창조주요 심판주라는 말이다. 모든 일의 주권자이심을 보인다. 부활의 주 란 말이다. 자신도 친히 살 뿐 아니라 그 자신 손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주시는 주님이란 말이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주시며 살려주는 영이며 생명의 원천이시다. 그리스도인, 교회는 바로 이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 안에서 공급되는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사는 자이다. 이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다. 진정한 부요는 다른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안에 얼마나 잘 머물러 있느냐에 달 려 있음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란다.

2. 시험의 연단을 통해서 부요를 얻을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는 교회였다. 초대교회의 10대박해나 영국의 청교도들의 박해라든가 일제시대의 한국교회의 박해가 여기에 해당되는 줄 안다. 지금도 박해 속에 있다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삼으시기 바란다.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붙들고 계심을 믿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란다. 여기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네 환난과 네 궁핍과 네 궤방당함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부요자라고 평가하셨다. 왜 그럴까? 부활의 주님이 그를 붙들고 있으시기 때문이다. 지금 당하는 환난이 도리어 그의 신앙을 연단시켜 마침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진 금보다 귀한 것이 연단된 믿음이라고 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성도가 당하는 시험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

시험 기간을 아신다. "10일간"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도 아신다. "옥에 들어가는 시험" 시험을 통하여 하시고자하는 목표를 정해 놓으셨다.

"연단된 믿음을 가지게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데 있다."

시험당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 주님이 주시는 잔성한 부요의 축복을 누려야 하겠다.

3. 진리를 끝까지 파수함으로서 부요를 누릴 수 있다.

여기 2:10절의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했다.

무엇에 충성 한다는 말인가? 주님의 진리에 충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진리는 그 분과 그의 말 씀이다. 그래서 가장 복있는 자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다(시1:) 형통 자는 누구인가요? 주의 율법을 입에 두고 지키는 자라고 했다(수1:8) 그래서 시19 편에는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했다. 이번에 다이애나 비가 죽 어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많은 비밀들이 알려졌는데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윤리가 복수물이나 인본주의화 되어가는 것을 우려해야 할 것이 다. 진정한 부요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이다. 어떻게 이 생명을 누리는가? 주 안에 바로 서있을 때 누린다.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연단 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린다. 그리고 진리를 끝까지 지켜 나갈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35. Truly Rich (Revelation 2:8-11) 1997.9.7 Week

There is a story about the martyrdom of Polyzab, the bishop of Smyrna. He undergoes his final interrogation. “If you deny Jesus even now, I will save your life!” At that time, he asked, “How can I deny Christ, who has never once refused a request from me for 89 years?” Soon after, he suffered a brave martyrdom by being burned. This seems to be an incident that speaks well of the state of the church in Smyrna. The promise to give a crown of life to those who are faithful until death shows that this is the Lord's promise to this church. How can we live as rich people who enjoy an abundant life?

1. You can gain wealth as an island in the position of the resurrected Lord.

The image of the Lord revealed in today's text is “the First and the Last, who died and rose again.” It means creator and judge. He shows that He is sovereign over all things. It is the week of resurrection. He is the life-giving Lord who not only lives himself but also raises the dead by his own hands. So, he is the giver of life, the life-giving spirit, and the source of life. A Christian,

a church, is a person who stands in the Lord. These are people who live by receiving the infinite power of life provided within. Although we live on this earth, we still live in the resurrected Lord. Anyone who knows this is a Christian. I hope that you will strive to remain in Christ, knowing that true wealth does not lie elsewhere but in how well you remain in Christ.

2. Wealth can be gained through trials.

As already mentioned, the church in Smyrna was a church experiencing tribulation. I know that this includes the 10 great persecutions of the early church, the persecution of the Puritans in England, and the persecution of the Korean church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f you are still experiencing persecution, please take comfort in the Lord who appeared at the church in Smyrna. I hope you have courage and believe that He who is the first and the last, who died and rose again, is holding on to you. Here we see that the resurrected Lord is fully aware of your tribulations, your poverty, and your being slandered. However, he evaluated him as a truly wealthy person. Why? Because the Lord of resurrection is holding on to him. This is because the tribulations he is experiencing now become a passage through which he can refine his faith and finally enjoy an abundant life. That is why Peter said that refined faith is more precious than gold, which disappears even when refined with fire.

The Lord in today's text has clear knowledge about the tests that believers face.

He knows the trial period. You know what kind of test "10 days" is. He set the goal He wanted to achieve through the "prison test." "It is intended to enable you to enjoy an abundant life by having a refined faith." In a testing

environment, we must refine our faith and enjoy the blessings of pure wealth that the Lord gives us.

3. You can enjoy wealth by protecting the truth until the end.

Here in verse 2:10, it says that if you are faithful until death, you will be given the crown of life. What do you mean by loyalty? It refers to being faithful to the truth of the Lord. The truth is Him and His Word. So he said that the most blessed are those who meditate on the Word day and night (Psalm 1:) Who are the prosperous? He is said to be the one who puts the law of the Lord in his mouth and keeps it (Joshua 1:8). So, in Psalm 19, it is said that the word is something to be desired more than fine gold. This time, as Princess Diana died and held her funeral, many secrets became known.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we should be concerned that the ethics of this era are becoming revengeful or humanistic. Who are the truly wealthy? One who enjoys the abundant life of Christ. How do we enjoy this life? You can enjoy it when you stand right in the Lord. It is enjoyed when one has a faith that has been refined through the process of testing. And when you keep the truth until the end, you can enjoy an abundant life.

36. 예수그리스도의 계시 (계1:1-3) 1997.8.9 주

흔히 요한 계시록하면 장래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접촉하는 데 사실상 이 책은 복음의 승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책이다. 실락원이 복락원이 되었고,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고, 성소와 성전이 그리스도안에서 완성되고, 영생받은 참 인류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첫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 계시와 관련된 삶을 생각하려한다. 마11:39과 요17:3절과 관련시켜 볼 때 계시란 영생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함으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1. 계시를 잘 받음으로서

보통 계시하면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구분한다. 우리가 이미 잘아는대로 일반계시로 알 수 없는 구원의 길을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그런데 이 계시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달하셨다. 1절에 보면 계시의 전달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천사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전달되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전승방법으로 하셨다 왜 이 계시를 잘 받아야하나? 1)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2) 은 수천년을 거쳐서 전승된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3) 받는 개인에게 생명이기 때문이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계시를 잘 받아 순종함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 갈 수 있다. 에스라처럼 여호와와 의 율법을 묵상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란다.

2. 계시를 잘 이해함으로서

계시의 골자는 누구인가요? 예수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태초에 계신 말씀의 출현을 말한다. 2절에도 보면 요한이 다 증거한 것은 무엇이 라했는가? 1) 하나님의 말씀 2) 예수그리스도의 증거 3) 자기의 본 것이라 했다. 다시 말하면 계시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이해함으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는 예수께서 계시의 총화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잘 이해할 때 그는 계시를 바로 이해하게 되고 그 계시를 바로 이해함으로 그는 밝음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그러자면 성령의 조명이 요구된다.

3. 계시와 긴밀한 교통을 가짐으로서

요한은 먼저 축원하기를 복있는 자가 되기위하여 계시와 관련을 가질 것을 말한다. 이 예언의 말씀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 읽는자, 듣는자, 지키는자라고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설교를 잘 받을 때 복을 받는다는 말이다.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설교위에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임한다. 그러므로 설교의 자리에 다른 것들(경배와 찬양, 간증, 성경공부등)을 대치 할 수 없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서 계시와 긴밀한 관련을 가진 삶을 영위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계시를 먹고 사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인 계시를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하여 계시를 순종할 목적에서 잘 받고 계시를 받은 계시를 잘 이해하고 그 계시와 깊은 연락을 갖도록 힘써야한다.

36. Revelation of Jesus Christ (Revelation 1:1-3) 19978.9 week

When we think of Revelation, we often come into contact with curiosity about future events, but in fact, this book tells us how glorious the victory of the gospel is. We can see that Paradise Lost has become Paradise Regained, the devil has been imprisoned in the abyss, the sanctuary and temple have been completed in Christ, and the image of true humanity that has received eternal life has reappeared in Christ. For the first time, I would like to think about the blessed life of a Christian, a life related to revelation. In relation to Matthew 11:39 and John 17:3, revelation is eternal life and life. So how can we live a blessed life?

1. By receiving revelation well

Usually, revelation is divided into general revelation and special revelation. As we already know, God has clearly shown us through the Bible, a special revelation, the path to salvation that cannot be known through general revelation. However, this revelation was delivered to us as follows: In verse 1, the transmission of revelation is introduced in detail. God's revelation was passed on to Jesus Christ, to an angel, and to John, and was passed on to Christians through the method of transmission. Why should we receive this revelation well? 1) Because it is God's revelation. 2) This is because it is a clear truth that has been passed down over thousands of years. 3) Because it is life to the individual who receives it. I said my words are spirit and life. Therefore, you can live a blessed life by receiving and obeying revelation. I hope that you, like Ezra, will meditate on the law of the Lord and decide to obey and teach it.

2. By understanding revelation well

Who is the point of revelation? It is Jesus Christ. So, when John writes the Gospel of John, he speaks of the appearance of the Word in the beginning. In verse 2, what did John testify about? 1) The Word of God 2)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3) He said it was something he had seen. In other words, revelation is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refore, after obedience, we can live a blessed life by deeply understanding Jesus. This is because Jesus is the sum of revelation. When one understands the Bible well, one can understand revelation correctly, and by correctly understanding that revelation, one becomes a person who lives in brightness. This requires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3. By having close communication with revelation

John first prays to have a connection with revelation in order to become a blessed person. How does this relate to the words of prophecy? It is said that they are readers, listeners, and protectors. In short, this means that you will be blessed when you receive a good sermon. What is a sermon? Preaching is the word of God. The church is the means by which it grows. So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comes upon the sermon. Therefore, other things (worship, praise, testimony, Bible study, etc.) cannot be substituted for the sermon. By receiving the sermon as the Word of God, we must lead a life closely related to revelation. We Christians are beings who live on revelation. Therefore, in order to become a person who loves and protects revelation, which is the source of blessings, we must strive to receive it well, understand the revelation we have received, and have a deep connection with it for the purpose of obeying it.

37. 구름 타고 오실 이를 보라 (계1:4-8) 1997.8.17 주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하는가요?

1.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평강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4절에 보면 요한은 먼저 문안인사를 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데 이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오는 출처는 삼위 하나님이신데 다른 서신과 비할 때 다른 수식어가 붙었다. 성부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오실자로, 성령은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 성자는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자, 땅의 임금의 머리이신 분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모두다 종말 적 의미가 함축된 묘사들이다.

조용할 때는 조용한 방법으로 긴박할때는 긴장 감있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와같이 재림을 기다 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차 있어야한다. 속히 온다고 하니까, 모든 영적질서가 무너지고 빨리 만나고자하는 욕망으로 가득차서 현 실의 일들을 무시하는 그런 자세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도리어 마음 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 있어야한다.

삼위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한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인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 삼위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우리를 정적으로만 만들지 않는다. 우리를 동적있게 한다. 동시에 동적있게만 하지 않는다. 그 속에 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한 생활을 함으로 기다려야한다.

편지형식으로 시작한 요한은 이제 축원을 한다. 기원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며 영광을 돌리는 기원이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다시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는 것이다. 바로 요한과 같은 이런 구속이 감격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다.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였던 시므온과 안나를 보라. 그들 역시 온 세상을 속량하시는 분을 중심해서 모든 생활의 체제를 바꾸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활동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종말론적이어야한다.

3. 그리스도의 사실적 재림을 맞이 할 자처럼 준비하며 기다려야한다.

우리가 맞이할 재림은 인류역사의 최대의 사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뚜렷한 사실적 만남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긴장감이 감도는 만남이다. 요한의 응답(7)이나 성부의 응답이 나온다. (□ 그 내용 역시 너무 긴장감을 준다. 이것은 추상이 아니요, 사실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실적 재림을 맞이할자와 같은 긴장미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한다. 오늘날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을 추상적으로 믿는자들이 많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사실로 말한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역시 사실적이었다. 이 재림 사건은 최대의 사실로 드러낼 것이다.

그를 찢은자들고도 본다고 했다. 평강의 마음으로 구속을 중심한 삶을 살아가며 사실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자로서 정신차려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37. Behold Him who is coming in the clouds (Revelation 1:4-8) 1997.8.17
Week

How should we wait on the Lord?

1. Christians must wait with a heart of grace and peace.

In verse 4, John first says hello. I wish you grace and peace. However, the source from which this grace and peace flows is the Triune God, but compared to other epistles, different modifiers are added. The Father is and was and is to come, the Holy Spirit is the seven spirits who are before the throne, and the Son is the faithful witness, the firstborn from the dead, and the head of the kings of the earth. These are all descriptions with eschatological implications. The Lord wants us to move forward in a quiet way when things are quiet and in a tense way when things are tense. Likewise, the hearts of Christians waiting for the Second Coming must be filled with grace and peace. Just because they say it will come soon, all spiritual orders will collapse and an attitude of ignoring real events because of the desire to meet quickly is not what the Lord wants. On the contrary, your heart should be overflowing with grace and peace. Grace and peace from the Trinity must capture his heart. This is the attitude of those who prepare for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Do you have this feeling in your heart? The spiritual grace given by the Trinity does not make us static. It makes us dynamic. At the same time Don't just make enemies. There is a static element in it.

2. We must wait by living a life centered on the redemption of Christ.

John, who started in the form of a letter, now offers his blessings. The content of the prayer is a content praising Christ. It is a prayer that exults and glorifies the grace of our redemption related to Christ. In other words, we praise the redemption of Christ, who loved us and freed us from our sins through his blood and made us kingdoms and priests for his Father God. This type of redemption, like John's,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ose preparing for the Second Coming. Look at Simeon and Anna, who prepared for the first coming of the Lord. They also changed the entire system of life, centering on the One who redeemed the whole world. Everything we eat, drink, sleep, and do is focused on the redemption of Christ. In that sense, every Christian must be eschatological in and of itself.

3. We must prepare and wait as if we were to welcome the actual second coming of Christ.

The Second Coming we will welcome is the greatest event in human history. Therefore, a clear and realistic encounter will occur, like looking at God in a mirror. Therefore, it is a tense meeting. John's response (7) or the Father's response appears. (□ That content is also very tense. When we think about the fact that this is not an abstraction and is realistic, we must wait for the Lord with the same tension as those who will greet the realistic return of Christ. Today, this era is the Lord's There are many who believe in the second coming, but the Bible clearly states that the events of Christ's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to heaven are also seen as the greatest facts. I hope that you will live a life centered on redemption with a heart of peace and become a person who is alert and ready to greet the Lord realistically.

38. 요한이 본 인자 (계1:9-20) 1997.8.24.

요한이 본 계시는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가장 복되게 여길것이다. 요한이 본 계시자와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자.

1. 계시자의 모습

인자란 누구인가? 단7:13의 인자를 가리킨다. 인자의 모습은 무엇이었나? 9가지 묘사가 나온다. 1) 발에 끌리는 옷- 대제사장 직분시 2) 가슴의 금띠- 왕 혹은 대제사장직분 시 3) 흰 양털같은 머리- 의, 성결 4) 불꽃같은 눈- 감찰하는 눈 5) 빛난 주석같은 발- 연단된 발 6)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위엄, 압도하는 권위 7) 오른 손의 일곱 별- 능력의 손으로 주의 사자를 불드심 □ 해와 같은 얼굴- 위엄 9) 이한 검이 나옴- 분별력 바로 이 인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음 세가지 사실을 주목한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온전한 모습과 참사람과 참하나 님으로 재림하신 그 모습과 영적권위를 가지시고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인다. 인자의 보호를 받는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다(마16:16)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이다.

2. 계시의 내용

그 계시자를 보는 순간 요한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때 그는 무슨 메시지를 받았는가? 1) 그는 산계시를 맡았다. 산자라, 절대권세를 가진자, 처음과 나중 인자 (17-18) 2) 그는 재림의 계시을 받았다. 장차 올

재림의 내용이다. 3) 그는 교회의 계시를 받았다. 지교회의 비밀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계시를 아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한다. 1) 주목해야한다. 2) 두려워 떨어야한다.

(경외심) 3) 위로안에 거해야한다. 이 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있는가? 요한이 본 인자를 주목하시기를 바란다. 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시려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지금 교회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일하신다. 그 분은 삼중직을 지금 완성하신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 내용을 지금 자기 백성들 에게 알게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울이 예비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다 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알기위하여 계시의 정신이 풍성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빗모같은 고생 구덩이 속에 있다할지라도 그 계시의 빛안에서 의로를 받고 담대한 능력자가 되자.

38. The Son of Man seen by John (Revelation 1:9-20) 1997.8.24.

What was the revelation that John saw? When we understand its contents, we can become the happiest people in this world. And you will feel most blessed to be a member of the church. Let us think about the revealer that John saw and what the content of the revelation was.

1. Appearance of the Revelator

Who is the Son of Man? It refers to the Son of Man in Dan 7:13. What did the Son of Man look like? There are 9 descriptions. 1) Clothes that drag on the feet - when serving as a high priest 2) Gold stripes on the chest - when serving

as a king or high priest 3) Hair like white wool - righteousness, holiness 4) Eyes like a flame - eyes that observe 5) Feet like polished bronze - feet that are refined 6) A voice like the sound of many waters - majesty, overwhelming authority 7) Seven stars in the right hand - upholding the angel of the Lord with powerful hands □ A face like the sun - majesty 9) A sharp sword comes out - discernment From this very appearance of the Son of Man, we see Note the following three facts: It shows the complete appearance of a king, priest, and prophet, the appearance of the second coming as a true man and true God, and the image of the Lord who has spiritual authority and wants to reveal himself through the church. The church that is protected by the Son of Man is the happiest on earth (Matthew 16:16). It is the most blessed thing to live in one who holds the keys to life and death.

2. Content of Revelation

The moment John saw the revelator, it was as if he had died. What message did he receive then? 1) He was in charge of Sangyesi. The living, the one with absolute authority, the first and the last Son of Man (17-18) 2) He received the revelation of the Second Coming. This is the content of the second coming. 3) He received revelation from the church. He received the secrets of the local church. Therefore, we who know this revelation must have the following attitude. 1) You should pay attention. 2) You must be afraid.

(Awe) 3) We must remain in comfort. What greater comfort is there than this? Please pay attention to the Son of Man that John saw. This Lord works specifically toward death, resurrection, and now the church to give us the greatest gift of salvation. He is a living person who has now completed His threefold ministry. He is making the contents known to his people now.

Therefore, I hope that you have Paul's prayers for the preparatory church. I hope that the spirit of revelation will be abundant in order to know God. So, even if we are in a pit of suffering like Patmos, let us receive righteousness in the light of revelation and become courageous and powerful.

39. 첫사랑안에 거하라 (계2;1-7) 1997.8.31 주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요한은 이제 일곱교회에 보여준 그 계시를 말한다. 이것은 단지 일곱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칩니다(7). 그 중에 첫번째 나타난 에베소교회에 보낸 계시는 어떤 것이었나요? 첫 사랑의 감격안에 거하는 일의 중요성을 보인다. 그래서 이 시간 에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당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함으로 우리교회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간되기 바란다.

1. 에베소교회의 특징

주님의 칭찬에 외적인데 있지않고 내면적인 데 있는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 사람과 달리 보시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네 행위와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2)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희생과 수고를 받침했다. 3)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였다. 오래 참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4) 거짓을 드러내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다. 거짓 사도와 니콜라당의 교훈을 드러냈다. 우리교회는 이 런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교회는 이런 열매를 기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2. 에베소교회의 문제점

이렇게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처음 가졌던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은 어떤것인가? 무조건적 100퍼센트를 헌심한 사랑이다. 주님 자신만을

사랑하는 단순한 사랑이었다. 4.절에 보면 처음사랑- 처음행위하고 했다. 주님이원하시는 순수한 아카페의 사랑이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일곱별을 붙들고 일곱 초대를 왕래하시는 분이셨다. 사랑의 모델을 보인다(창1:2). 교회 는 본래 어두움에 있었다(엡2:2). 그런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부활하 셔서 뜨거운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이세상에서 가장 사 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를 멀리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 한 다. 교회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주님을 사 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교회의 기초가 되 어야한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야 할 것이다.

3. 에베소교회의 회복의 길

결과를 고치기 위하여 원인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 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첫사랑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는가? 회개해야한 다. 회개는 어떻게하는 것인가? 다음 세가지를 해야한다. 1) 어디서 떨어졌는 지를 생각하라(5). 2) 현재의 자리에서 돌이켜야한다(요일1:9). 3) 처음 행위를 취해야한다(무조건적 사랑, 단순한 사랑). 회복을 위하여 주님은 풍성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 그것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돌이킬 때 그에게는 풍성한 약속이 주어져있다(7). "하나님의 낙 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먹게하리라"고 했다. 이것은 아담도 맛보지

못한 은혜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 놀라운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 주께 나아가자.

39. Remain in first love (Revelation 2;1-7) 1997.8.31 Week

John, who received the revelation on the island of Patmos, now speaks of the revelation shown to the seven churches. This does not apply only to the seven churches, but to all churches on earth (7). Among them, what was the first revelation sent to the church in Ephesus? It shows the importance of dwelling in the emotion of first love. So, I hope that this time will be a time to clearly see the path forward for our church by thinking about what kind of church the Ephesus church was, what problems it faced, and what the path to recovery for that church is.

1. Characteristics of Ephesus Church

We are comforted because the Lord's praise is internal, not external. What does the Lord, who sees things differently from people, say about the church in Ephesus? 1) It was a church with a history of faith. It was a church with "your works and your labors." 2) It was a church that was a labor of love. Thank you for your sacrifice and hard work. 3) It was a church with hope and perseverance. Had patience. and 4) it was a church with the discernment to expose lies. The false apostles and the teachings of the Nicolaitans were revealed. How much fruit like this does our church have? Our church must become a church that expects these fruits.

2. Problems of the Ephesian Church

What is wrong with this beautiful church in Ephesus? It means losing your first love. I lost the pure love I first had. What is that love like? It is a love that

is 100% unconditional. It was a simple love that only loved the Lord Himself. In verse 4, it is first love - the first act. It was the pure acafe love that the Lord wanted. The appearance of the Lord in the church at Ephesus was the One who holds the seven stars and travels through the seven invitations. Shows a model of love (Genesis 1:2). The church was originally in darkness (Ephesians 2:2). He gave himself for such a church. He is resurrected and held on by His passionate love. Therefore, the thing that God loves most in this world is the church. Therefore, those who stay away from the church cannot be saved. Those who bless the church will be blessed, and those who curse will be cursed. To love the Lord is to love the church. This kind of loving relationship should be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We must always examine ourselves to ensure that we do not commit the sins of the Ephesian church.

3. The path to recovery of the Ephesian Church

Just as the cause must be removed to correct the effect, recovering that first love is important for those who have lost their first love. So how do you recover? You must repent. How do you repent? You need to do the following three things: 1) Think about where you fell (5). 2) We must turn from our current position (1 John 1:9). 3) You must take the first action (unconditional love, simple love). For recovery, the Lord prepares and waits for the abundant grace of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ll he has to do is believe it and get out there. And when he turns, rich promises are given to him (7). He said, "I will give you to eat from the tree of life, which is in the paradise of God." This is a grace that even Adam could not taste. It is a life that lives in the love of Christ. Let us come to the Lord now for the restoration of this amazing love.

40.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요3:14-17) 1997.9.28 주

요3:16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있다고 한다.

1.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죽지않는 생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성 경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사모의 대상인(전도서3:10) 영생을 조금 달리 설명하고 있다 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요17:1-2) 이라고 정의했다. 다시말하면 사람이 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것을 영생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가? 그는 영생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을 모르는가? 그는 영생을 가진 자가 아니다. 영생 받은 자에게는 보통 네가지의 놀라운 사실이 나타난다. 1) 참 용서(죄사함), 2) 참 평안 3) 참 목적 4) 참 능력이 그것이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변화를 보라. 죄사함의 경험, 예배하고 싶은 마음, 복음을 위하여 물동이를 던져버렸다, 그리고 담대한게 증거했다. 이 놀라운 인생 의 최대 경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

2. 죄는 이 영생의 삶을 체험하지 못하게 한다.

시릴 조오드 박사는 죄의 존재를 인정치 않았다. 인간에게 시간만 주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다. 1, 2차 대전의 참상을 바라보고 죄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죄 문제 해결이 오직 그리스도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그 후 그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었다. 성경은 죄의 은 사망이라고 했고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간격)을 만들었다고 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선행과 철학, 종교, 수도를 아무리 닦아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 왜냐 죄 때문이라고 말한다. 죄의 참상은 정말 심각하다. 미사일이 비행 기를 따라가서 추적하듯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했다. 죄의 증상들이 얼마나 많은가? 살인 간음 도적질 시기 질투도 죄악이지만 그런 것들은 증상에 불과하다. 진정한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다. 그런 인생에 계는 허무와 좌절과 공허만이 엄습할 뿐이다. 이런 죄가 조금만이라도 존재한다면 당 신은 영생을 맛 볼 수 없다. 마치 컴퓨터에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작동이 안되는 것 과 같다. 그러면 이런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3.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하나이다.

태양이 하나이듯이, 나 라는 존재가 하나이듯이 영생을 얻는 길이 하나라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요 3: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소망이 전혀 없는 죄인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봐 주는 척하지 말아야한다. 그를 하나님으로 믿든지 사람으로 믿든 지 둘 중의 하나이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 여지를

남겨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를 믿을 때 영생이지만 저를 믿지 않을 때는 정죄라고 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다. 그러므로 죄 문제 해결과 영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들여야한다. (요 1:12)

40. Do you have eternal life? (John 3:14-17) 1997.9.28 week

John 3:16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God’s ultimate purpose in generously sacrificing his Son was to gain eternal life. do.

1. What is eternal life?

Eternal life can literally be defined as eternal life, life that never dies. And the Bible explains eternal life, which is the object of everyone's common longing (Ecclesiastes 3:10), in a slightly different way. Eternal life was defined as knowing God (John 17:1-2). In other words, when a person correctly knows the true God, it is called eternal life. Does he really know God? He is the one who has eternal life. Does he not know God? He does not have eternal life. Four amazing facts usually appear to those who have received eternal life. These are 1) true forgiveness (remission of sins), 2) true peace, 3) true purpose, and 4) true power. Look at the changes in the Samaritan Sychar woman. She testified of her experience of forgiveness of sins, her desire to worship, her throwing down her water jar for the gospel, and her boldness. I hope this amazing and greatest experience of life happens to you.

2. Sin prevents us from experiencing this eternal life.

Dr. Cyril Jood did not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sin. He believed that if only man was given time, he could build a utopia. Looking at the horrors of World War I and II, he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sin, knew that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sin was only in Christ, and confessed Christ as his Lord and God. After that, he became a true witness of Christ. The Bible says that the silver lining of sin is death, and that your sins have created a gap between you and God. It is said that sin prevents us from reaching the glory of God. No matter how much you practice good deeds, philosophy, religion, and religious practice, you cannot reach God. They say it's because of sin. The horrors of sin are truly serious. Just as a missile follows an airplane, it is said that sin is always subject to God's judgment. How many symptoms of sin are there? Murder, adultery, theft, jealousy, etc. are sins, but they are just symptoms. The true essence of sin is to live as one pleases without God. Such a life is filled with nothing but futility, frustration, and emptiness. If any of these sins exist, you cannot taste eternal life. It's like if something goes wrong with your computer, it won't work. So is there no way out of this predicament?

3. You can have eternal life only when you accept Jesus as your master.

People say Christianity is exclusive. But almost all the things that really matter are one.

Just as the sun is one and I am one, isn't it only natural that there is one path to eternal life? John 3:16 says that God loved this world so much that He sent His Son to sinners who had no hope in Him. And the Son came to this earth, died on the cross, and was resurrected. He is still alive today. Since he has both humanity and divinity, we should not pretend to regard him as a great person. He either believes in him as God or as a man. This is because Jesus

himself did not leave such a room. So he said that when he believes in me, he has eternal life, but when he does not believe in me, it is condemnation. Eternal life can only be obtained by believing in Jesu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in and have eternal life, we must accept Christ as our master. (John 1:12)

41. 성결을 추구하는 교회 (계3:16) 1997.10.5주

사데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입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므로 그 교회의 실상을 너무나 세밀히 알고 계시는 분이셨다.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진단을 내리시면서도 소수의 무리가 옷을 더럽히지 않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한다. 사실상 오늘 날 우리는 이런 주님 앞에 설 때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정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성결을 추구하는가를 면밀히 살펴야한다.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성결을 잃으면 목숨을 잃은 것과 같다. 그래서 주님은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지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노라(히12:14)고 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상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성 결을 추구하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려한다.

1. 지상교회의 목표는 성결이어야 한다.

교회의 목표가 성결이라는 사실이 본문 어디에서 말하는가? 본문에 나오는 "흰옷 입은 자"(4, 5)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이미 칭의를 받아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이들 이 실제의 생활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상의 성결, 태도의 성결, 언어의 성결 그리고 삶의 성결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는가? 그는 불순종하였기에 버렸다. 이 불순종이 무엇인가? 주님은 불순종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삼상

15:22-23)고 했다. 그래서 성결에 실패했기에 사울은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다윗은 고 난의 환경에서도 성결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은 그런

고생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셨다. 왜냐 성결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신약의 교회가 성결을 추구하는 것이 날마다 길게 치르야 할 긴 전쟁이었다. 오순절로 시작된 교회는 점점 이것을 위하여 살아야만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보다 더 추구할 것이 성결인 줄 알아야 한다.

2. 성결케 되는 길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결할 수 있는가? 오늘 사데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밝히 보여주 셴다. 세가지 사실을 따라 감으로 우리는 성결을 유지 할 수 있다. 1) 일깨우라. 깨어있 는 삶이다. 영혼이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겻세마네 동산의 제자들 처럼 잠 자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온갖 죄를 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헛점을 보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2) 굳게하라. 지금 구루터기 같이 남아 있는 것을 굳게하라고 한다. 진리 자체는 강한 것 이다. 이것을 내게 잘 접목시킬 때 이것이 효력을 가져온다. 건물처럼, 나무처럼 견고하 게하라. 바울을 보라. 위기 속에서도 그는 굳게하였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다윗은 구약 시대 인물이지만 복음 안에 사는 자였다. 그는 시글락의 참변을 당하였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결을 추구했다. 3) 회개하라. 처음 받은 것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지키라고 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는가? 예수 믿고 그만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다. 우리교회, 우리가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무엇인 가? 성결을 추구하지 않으면
기복주의로 흘러가 마침내 참 복을 알지 못한 자가 된다.

우리는 깨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3. 성결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

성결을 추구하는 자에게 오는 행복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는 엄청난
약속이 주어져있다. 1)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며 2) 생명책에 그
이름을 분명히 하며 3) 하나님 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된다고 했다.

이것처럼 큰 행복이 어디있는가? 아버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명령은 이런 엄청난 약속을 포함한 것이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 된
자는 바로 이것이다. 성경의 무수한 자들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을
따라갔다. 우리 는 성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천금을 주어도
성결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발로 밟는 사람이 되어야한다.

41. Church Pursuing Holiness (Revelation 3:16) 1997.10.5 Week

The Lord who appeared at the church in Sardis was a person with seven
spirits and seven stars, and was a person who knew the reality of that church
in great detail. Although he diagnoses the church as being alive but in reality
dead, it is said that a small group of people walk with the Lord without
dirtying their clothes. In fact, can we be evaluated as alive today when we
stand before the Lord like this? We must closely examine whether we are truly
pursuing the holiness that pleases the Lord. If a church or Christian loses

holiness, it is like losing their life. So the Lord said that no one can see the Lord unless they pursue holiness and peace (Hebrews 12:14). So at this time, I would like to think about the question of how the church in the world pursues holiness.

1. The goal of the church on earth must be holiness.

Where does the text say that the goal of the church is holiness? The phrase “one dressed in white” (4, 5) in the text refers to this very thing. Those who have already been justified and recognized as righteous must live a righteous life in real life. More specifically, wearing white clothes means that the Lord requires holiness of thought, holiness of attitude, holiness of language, and holiness of life. Why did God abandon Saul? He was abandoned because he was disobedient. What is this disobedience? The Lord said that disobedience is the same as the sin of witchcraft and the sin of bowing to the idol of evil spirits (1 Sam.

15:22-23). So, because he failed to be sanctified, Saul was abandoned.

However, David lived in holiness even in difficult circumstances. God did not leave Him even in the midst of such hardships. Because he pursued holiness. The New Testament church's pursuit of holiness was a long battle that had to be fought every day. The church that began with Pentecost gradually had to live for this. Therefore, we must realize that holiness is something to pursue more than happiness.

2. The path to sanctification

So how can we become sanctified? The Lord appeared at the church in Sardis today and showed it clearly. We can maintain holiness by following three facts.

1) Wake up. It is an awake life. He does not live like a person whose soul is in a coma, but rather a person who clearly knows when to live. Like the disciples in the Garden of Gethsemane, they wake up from their sleeping state.

It means that it happens in a place where it shows the best possible loophole to commit all kinds of sins. 2) Be firm. He tells them to harden what remains like a stump. The truth itself is a strong thing. When I apply this well to myself, it becomes effective. Be strong like a building, like a tree. Look at Paul. Even in times of crisis, he was firm and did not waver. David was a person from the Old Testament era, but he lived in the gospel. Even though he suffered the disaster of Ziklag, he did not waver and pursued holiness. 3) Repent. He told me to remember what I first received, check it, and keep it.

What have you received? Believing in Jesus and following Him is the direction we must move in. This is the direction our church and our families should pursue. What does it mean to be blessed if you believe in Jesus? If you do not pursue holiness, you will drift into the doctrine of blessings and eventually become a person who does not know true blessings.

We must always strive to pray in order to live a awake life. How much do you pray?

3. Promise given to those who pursue holiness

What kind of happiness comes to those who pursue holiness? There is a tremendous promise made therein. 1) Walk with the Lord wearing white robes, 2) make your name clear in the book of life, and 3) become a person approved by God. Where can there be greater happiness than this? The command to be holy because the Father is holy includes this tremendous promise. This is the

happiest person on this earth. Countless people in the Bible followed this way of living. We are people who pursue holiness. No matter how much money is given to you, you must be the person who steps on it when told to give up holiness.

42. 열린 문을 두신 교회 (계3:7-13) 1997.10.12. 주

빌라델비아 교회에 계시하신 분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신 분으로 나타났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다(7). 이 분 이 빌라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니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형통의 역 사"를 보이는 표현이라고 보여진다. 다시말하면 "잘 되는 교회,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성령의 열매가 있는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교회, 교회로서의 제구실을 하는 교 회"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런 열린 문의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이다.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야 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 는 이런 교회로 계속 성장하도록 성령의 조명을 받는 시간 되기 바란다.

1. 열린 문을 두신 조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조건 두 가지를 밝힌다. 1) 작은 능력을 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우상으로 가득찬 지역에서 작 은 교회가 무슨 힘을 쓰겠는가? 그러나 작은 능력일지라도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한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한다. 그러나 작은 것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 이 하나님나라의 법칙이며 진리의 길이다. 기드온의 승리, 다윗의 승리는 모두 다 겨자씨 운동이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해서 낙심하지 말라. 바로 그것으로 주님의 말 씀을 붙들여라. 작은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는가? 2) 인내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곳은 이교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곳이기에 인내가 매우 필요한

곳이다. 이민 교회와 흡사하다. 칠 덕을 쌓아나가는 교회여야만 여기서 복음의 빛을 나타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은 끝까지 가 봐야 한다. 그래서 인내의 순종이 필요하다. 약1:1-3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다. 그때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된다고 했다. 인내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자가 쉽게 만나고, 언제나 만나는 시험의 내용이다. 우리교회는 이런 인내, 말씀 순종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이 없이 갑자기 형통한 자는 위험하다. 오직 형통의 길은 진실된 자 감당할 능력이 있는 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형통의 조건을 개발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란다.

2. 열린 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산상보훈에 보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했다. 이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 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다. 두가지 상급을 약속하셨다. 12절을 보라. 1)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일이다(12). 성전이란 교회를 말한다.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다. 교회의 직분은 성전의 기둥과 같다. 기둥은 받쳐 주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무너진다. 교회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존귀하게 여기라. 2)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된다(12), 10절에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하여 준다고 했다(10-11).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고 했다. 소유의 의미도 있고 보호의 의미도 있다. 나dana엘에게 약속한 주님의 약속을 보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스도안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삶이다. 여러분의 이민생활에 열린 문을 두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인내함, 우리의 수고함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자. 빌라델비아의 열린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두셨다. 절 대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앞에 두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자. 그러기에 인내하며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나아가자. 이런 형통의 역사가 함께하기 바란다.

42. The Church with Open Doors (Revelation 3:7-13) 1997.10.12. main

The One who was revealed to the church in Philadelphia appeared as the One who "opens and no one can shut and shuts and no one opens" and has the key of David, who is holy and true (7). This person left an open door in front of the Philadelphia Church. In other words, the church is seen as an expression of "the history of prosperity as a church," "a church that is doing well, a church that is spiritually mature, a church that has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a church that shows the image of God, and its role as a church." It can be said that it is a "church that does this." This promise of open doors was also promised to us. Although it was not a very large church, it was a church where God was with us. So today, we receive the Holy Spirit to continue to grow into this kind of church. I hope this is your time to be illuminated.

1. Conditions for leaving an open door

It reveals two conditions under which the Philadelphia church received the blessing of the open door. 1) Because they obeyed the word of the Lord despite having small abilities (□). What power can a small church use in an area full of idols? However, it is said that even small abilities can achieve

great things. People ignore small things, but achieving great things with small things is the law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way of truth. Do not be discouraged because you have small abilities. Hold on to the word of the Lord. How great can a small heart's desire accomplish? 2) It is because you obeyed the word of the Lord with patience. This is a place where paganism and materialism are rampant, so patience is very necessary. It is similar to an immigrant church. Only a church that builds up the seven virtues can reveal the light of the gospel here. You can only understand the word of the Lord if you go to the end. So patient obedience is necessary. In James 1:1-3, we are told to persevere to its perfection. It was said that by then, there would be no shortage whatsoever. Patience is a test that those with little ability can easily and always face. Our church needs this kind of patience, patience in obedience to the Word. Those who suddenly become prosperous without this process are dangerous. The only way to prosperity is for those who are sincere and have the ability to handle it. I hope that you will develop these conditions for prosperity.

2. Rewards given to those who walk the path of open doors

In the Sermon on the Mount, it is said that there is a narrow way and a wide way. What rewards are given to those who walk this path? It is life in Christ. He promised two rewards. Look at verse 12. 1) It is to become a pillar of the temple (12). The temple refers to the church. The most blessed thing on this earth is to become a pillar of the temple of God's kingdom. The offices of the church are like the pillars of the temple. A pillar provides support, but without it, it collapses. How important are church officials? Respect it. 2) Become one who has received God's seal (12), and verse 10 also says that it will save you

from times of testing (10-11). He said that he would write on it the name of God, the name of New Jerusalem, and my new name. It has a meaning of ownership and also a meaning of protection. Look at the Lord's promise to Nathanael. "You will see greater things than these." It is a life of ups and downs in Christ. I hope that you will enjoy the blessings of the Lord who has opened the door to your immigrant life. In order to ensure that our patience and hard work are never in vain, let us move forward with the determination to obey the Word. The open door of Philadelphia has been opened to us today. The one who has absolute authority has placed it before us. Let us live by claiming this amazing grace. Therefore, let us move forward with patience and gratitude even for small things. I hope this history of prosperity continues together.

43. 네 속에 있는 영열을 높이라 (계3:14-22) 1997.10.19 주

오늘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교회를 통하여 영열이 뜨거운 교회가 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새김으로 은혜받고자한다. 신앙의 열심이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그 열심은 어디서 떨어지기 쉬운가? 이 열심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1. 열심의 필요성

열심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열심은 그 자체가 산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열심으로 나타났다. 열심이 있다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창조의 근본이신 분 위에 서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마7:에 비 바람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을 갖는 것은 바로 그 기초가 주님께 게 서 있다는 증거이다. 열심이 있다는 것은 아멘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별명이 아멘이시다. 100% 순종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참교회는 영열을 절대 필요로 한다. 아니 그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삼킬 만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드렸다. 그러나 유대인의 지식이 없는 열심도 있다. 초대교회는 열심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는 알고있다.(행2:44-45) 15절에 열심 없는 신앙을 싫어하신다고 했다. "내 입에서 토해 내치리라" 열심은 하나님의 예정과 절대 은혜의 원리를 더 잘 표현하는 것이다. 도리어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더 열심을 내는 자이다.

2. 열심이 떨어지는 원인

그러면 왜 이런 열심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떨어지는가? 우리들의 열심이 왜 떨어졌는 가? 목표가 흐릿하거나 원수의 공격이 맹렬하거나 환경의 악조건이 그 원인일 수 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7절에 가련한 것, 부족한 것을 볼 줄 몰랐다고 한다. 자기의 실상을 바로 볼수 있는 자가 됨 으로 바른 열심을 갖는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수는 자기 속에 놓여있다. 겻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의 무지와 베드로의 무지는 십자가 길을 막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 를 올바르게 발견하는 노력을 기우려야한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는 중에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한다. 이럴때 우리는 바른 열심이 불탄다.

3. 열심을 회복하는 길

그러면 이런 열심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주님은 3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시련 을 통과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약1:), 현재의 고난이야 말로 바로 이런 기회인 것이다. 시련은 우리의 열심을 순수하게 해준다. 2) 말씀을 붙들어라(시19:). 하나님 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해 준다고 했다. 다윗의 기도를 배우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3) 자아의 문을 열어라(계3:20). 회개하라는 것이다. 구체적 인 회개가 필요하다. 이미 복을 받은 다윗의 영원한 복을 받겠다는 갈모가 우리에게 도 있어야하겠다. 우리. 교회는 이런 열심이 가득차기를 바란다. 좋은 토양 위에 세워 진 나무처럼 우리는 바로 커 나가기 위해 열심이 넘쳐야한다. 교회는 바른 열심으로 가득한 모임이다.

43. Exalt the spirit within you (Revelation 3:14-22) 1997.10.19 Week

Today, through the last church, the Laodicea Church, I would like to receive grace by remembering the Lord's voice to become a church with fervent spiritual energy. Why is religious zeal so important? And where does that zeal tend to fall? What is the way to restore this enthusiasm?

1. The need for zeal

Why is it so important to be a passionate church? This is because zeal is itself an expression of living faith. The evidence that the Canaanite woman's prayers were of faith appeared in her zeal. This is because zeal is evidence that the foundation of faith stands on the One who is the foundation of creation.

Matthew 7: Being unwavering and zealous despite the wind and rain is proof that the foundation is in the Lord. This is because having zeal is evidence of having faith in Amen. Jesus' nickname is Amen. He is said to be 100% purebred. Therefore, the true church absolutely needs spirituality. No, without it there is no life. Our Lord sought the glory of God with a zeal that consumed Himself. But there are also zealots without Jewish knowledge. We know how great the zeal of the early church was (Acts 2:44-45). In verse 15, it is said that God hates faith without zeal. "I will vomit it out of my mouth" zeal better expresses God's predestination and the principle of absolute grace. On the contrary, those who realize this grace are more zealous.

2. Causes of lack of enthusiasm

So why does this kind of zeal fall from Christians? Why has our zeal failed? The cause may be a blurry goal, fierce attacks from enemies, or adverse

environmental conditions. More importantly, we cannot see ourselves directly. Verse 17 says that he did not know how to see what was pitiful and what was lacking. By becoming a person who can clearly see one's reality, one has the right zeal. The greatest enemy of religious life lies within oneself. The ignorance of the disciples in the Garden of Gethsemane and that of Peter blocked the way to the cross. Therefore, we must make efforts to properly discover ourselves. We must discover ourselves while listening to a sermon or reading the Bible. At times like this, we burn with the right zeal.

3. How to restore enthusiasm

So how can we regain this enthusiasm? The Lord suggested three things. 1) Pass the ordeal. Buy gold refined in fire (James 1:). The present suffering is an opportunity like this. Trials purify our zeal. 2) Hold on to the word (Psalm 19:). It is said that the word of God is pure and brightens the eyes. Let's learn about David's prayer. What is the subject of the prayer given by God? 3) Open the door of self (Revelation 3:20). It is to repent. Specific repentance is needed. We must also have the desire to receive the eternal blessings of David, who has already been blessed. we. The church hopes to be filled with this kind of enthusiasm. Like a tree built on good soil, we must be eager to grow quickly. The church is a gathering full of righteous zeal.

44. 하나님의 보좌를 보라 (계4:1-3) 1997.10.26 주

사도요한은 주의 날에, 인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본 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은 벽옥,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 무지개 같다고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성결과 의와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과거도 그러했지만 오늘날도 이 보좌에서부터 모든 권위가 흘러나오며 모든 영광이 흘러 나온다.

이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최고 절대 권위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최대의 관심사가 법의 시은죄이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관심사도 바로 이 시은좌에 앉으신 분,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야 하는 줄 믿는다. 그 보좌에 계신 분을 향하여 주목하고 그를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모든 흑암이 빛으로 변하며 이 땅의 모든 무질서가 조화의 세계로 바뀌어진다. 왜냐하면 그의 보좌는 모든 능력이 흘러나오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보좌로 초청하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히4:30)고 하신다. 요한은 어떻게 그 보좌를 볼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1. 그 보좌는 계시로만 볼 수 있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것을 보았는가? 나팔 소리가 들리고 성령으로 감동될 때 그 보좌를 볼 수 있었다. 1-2절에 보면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나팔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 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은 동시에 역사한다(엡5:18, 3:16). 이시 때는

보좌가 열린시대이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는 시대이며, 이사야가 [열린 문을 통해 보좌를 본 것과 같고,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열린문을 향하여 본 것 같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열어주심으로 보게 된 것이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많이 필요하다. 성경의 수많은 경우를 보라. 엠마오 두제자의 눈이 뜨임은 성령의 조명으로 된 것이다. 구스내시의 눈 뜸이나 여리고 소경의 인자에 대한 눈 뜸은 바로 조명으로 인한 은혜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조명이 많아질 수 있느냐? 오직 겸손함으로서, 죄를 떠 남으로서 가능하다. 그러나 교만하면 다윗처럼 어두움에 살게된다.

2. 그러면 이 보좌는 무엇하는 곳인가?

(1) 그 보좌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이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부이시다. 24 보좌와 일곱 영이 나온다. 그곳은 온 땅을 통치하는 중심이다. 그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온다. 그로부터 모든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온다. 그로부터 치료의 강수가 흐른다. 우리는 이 요란한 세상을 지나면서 그 보좌로부터 만유의 모든 것들이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순종해야한다.

(2)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었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라 했다 (겔1:26-28). 이것은 각각 하나님의 성결과 의와 신실과 지혜를 가리킨다. 바로 이 성품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셨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직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볼 때만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고후3:18). 이 비하좌를 바라보아 큰 은혜를 받는 자가 되자.

44. Behold the throne of God (Revelation 4:1-3) 1997.10.26 Week

On the Lord's Day, Apostle John sees the image of the Son of Man, the image of the church, and the image of the One sitting on the throne. The appearance of the one sitting on the throne is said to be like a rainbow of jasper, sardine, and green gemstones. This can be interpreted as showing God's character of holiness, righteousness, and faithfulness. As it was in the past, even today, all authority and all glory flow from this throne.

This is because it is the seat of supreme and absolute authority ruled by God. Just as Israel's greatest concern is the law's mercy sin, I believe that today's Christians' greatest concern should be focused on the One who sits on this mercy seat, Christ. When we turn our attention to the One on the throne and look at Him, all problems are solved, all darkness turns into light, and all the disorder on this earth is transformed into a world of harmony. For his throne is the source from which all power flows. So God invites us to this throne through Revelation chapter 4. He tells us to come to the throne of grace to receive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Hebrews 4:30). How was John able to see the throne? And what did he see?

1. The throne could only be seen by revelation.

How did Apostle John see it? When the trumpet sounded and he was moved by the Holy Spirit, he could see the throne. In verses 1-2, it is said that he was moved by the Holy Spirit and heard a sound like a trumpet. Understanding the Word of God and being moved by the Holy Spirit work simultaneously

(Ephesians 5:18, 3:16). This era is the era when the throne is opened. It is an era in which we see angels ascending and descending, just as Isaiah saw the throne through an open door, and as Ezekiel saw it by the river Chebar toward an open door. Therefore, since we can only see through the opening of the Holy Spirit, we need a lot of illumination from the Holy Spirit. Look at the numerous cases in the Bible. The eyes of the two Emmaus disciples were opened by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The opening of the eyes of the Goose eunuch and the opening of the eyes of the blind man of Jericho are the grace of illumination. How can there be so many lights like this? This is possible only through humility and abandonment of sin. However, if you are proud, you will live in darkness like David.

2. Then what does this throne do?

(1) The throne is the throne of God who rules over the whole earth.

There is someone sitting on the throne, and he is the Father. 24 A throne and seven spirits appear. It is the center that rules over the whole earth. From him comes all power. From Him all love and grace flow. From him flows a river of healing. As we pass through this noisy world, we must remember that all things are ruled from the throne, and rejoice in and obey His rule.

(2) The appearance of the one sitting on the throne was the image of God's glory.

It was called jasper, sardine, and green gemstone (Ezekiel 1:26-28). These refer to God's holiness, righteousness, faithfulness, and wisdom, respectively. This very character was possessed by Christ Himself. So Christ is the image of God. Only through him can we truly know God. Only by looking at Him

who sits on the throne can we be transformed into His image (2 Corinthians 3:18). Let him look upon this seat and become a recipient of great grace.

45. 천상예배를 배우자 (계4:4-11) 1997. 11.2

우리는 천국과 천당의 양면성을 모두 믿는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천당은 현실적 장소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늘 우리는 천상에서 되어가는 완전한 예배의 그림을 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갱신을 일으켜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예배는 천당의 축제와 함께 경배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 바로 그 모델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 오늘 보이는 천상예배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1. 천상 예배에는 다양한 섬김이 있었다.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에는 다양성이 있었다. 4절 이하에 보면 보좌에 계신 분을 향하여 여러 부류의 봉사자들이 제 지위를 차지하면서 그를 찬양하고 있었다. 그 중에 우리는 몇가지를 발견한다. 1) 24장로의 섬김: 그는 천상의 장로이다. 아마 고급천사들인 것 같다. 그들은 보좌에 앉아 그 분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2) 네 생물의 섬김: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얼굴이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있다. 생물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그리고 가장 빠른 것을 상징한 것이다(Swette). 이것은 각각 6 날개로 날면서 보좌에 계신 분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칭송하고 있다. 그룹이 아니라, 스랍을 가리킨다(사6:9). 두 날개로는 자기를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고 찬송하고 있다. 3) 일곱영의 섬김: 일곱영은 보좌로부터 나온 영이라고 했는데 이는 성령님을 가리킨다. 완전한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사역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위로의 영, 성결의 영, 지혜과 모략의 영 치료의 영, 창조의 영, 완성의 영이시기도하다. 우리는 특히 주일날 예배하는 일에 다양성을 갖춘 예배로 주께 영광 돌려야한다. 오키스트라의 조화를 이루듯이 예배해야한다.

2. 천상 예배에는 통일성있는 섬김이 있었다.

무슨 통일성인가? 환경의 통일성: 보좌에 계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었다. 성경을 상징하는 유리바다가 있었다. 하나니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들렸다. 그리고 네 생물의 날개에 눈이 가득했고 예배의 찬송을 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한다. 다양성이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예배이다. 개인이 자기의 은사에 충실함으로서 그들이 모여서 그분을 향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다. 헐리웃 볼에 오키스트라의 지휘자의 지도를 받아 나가는 것 처럼, 우리의 예배는 위로부터 오는 분의 지휘를 받아 수종하여 나가면된다. 문제는 그 지휘를 무시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분명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것이다.

3. 천상예배에는 완전한 헌신이 있었다.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던졌다. 목표에 대한 헌신이 있었다. 자기들의 이익을 보자는 심리가 하나도 없었다. 조그만 영광을 감추었다가 자기 불장 보려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오직 영광 존귀 감사를 그분께만 돌려드렸다. "여기 던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자기의 소유가 이제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완전한 헌신이다. 우리는 예 때 나의 면류관을 그분께 드리는가? 마음의 면류관을 드리는가? 물질의 면류관을 드리는가?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는가? 우리의 예배는 이것이어야한다.

45. Let's learn heavenly worship (Revelation 4:4-11) 1997. 11.2

We believe in both heaven and heaven. Heaven refers to the reign of God, and heaven refers to a realistic place. Today we see a picture of perfect worship taking place in heaven. In that sense, we must bring about renewal in our worship through it. In short, our worship should be filled with the emotion of worship along with a heavenly festival. That very model appears in today's text. What happened in the heavenly worship service seen today?

1. There were various types of service in heavenly worship.

There was diversity in the heavenly worship that Apostle John saw. In verses 4 and below, various types of ministers were praising the person on the throne while occupying their positions. Among them, we find a few. 1) The service of the 24 elders: He is a heavenly elder. They are probably high-class angels. They are sitting on the throne and concentrating on worshipping Him. 2) The service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Who are they? Their faces have the likenesses of a lion, a calf, an eagle, and a man. It symbolizes the most precious, strongest, wisest, and fastest living thing (Swette). Each of these flies with six wings and praises the character of the One on his throne, saying, "Holy, holy, holy." It refers to seraphs, not cherubim (Isaiah 6:9). With two wings he covers his feet, with two wings he covers his face, and with two wings he flies and praises himself as holy. 3) Service of the Seven Spirits: The

seven spirits are said to be the spirits that come from the throne, which refers to the Holy Spirit. He is a perfect person who carries out God's work of governance. He is also the Spirit of comfort, the Spirit of holiness, the Spirit of wisdom and counsel, the Spirit of healing, the Spirit of creation, and the Spirit of completion. We must glorify the Lord through diverse worship, especially on Sundays. We must worship like an orchestra in harmony.

2. There was unified service in heavenly worship.

What unity? Unity of environment: Achieved centered on the person on the throne. There was a sea of glass symbolizing the Bible. Lightning, voices, and thunder were heard from the throne, symbolizing the glorious presence of Hanani. And the wings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were full of eyes, and while singing hymns of worship, they turned toward the One sitting on the throne. Church worship is where diversity achieves unity. Our worship is a witness to the fact that individuals are faithful to their gifts and that they are gathered together and united toward Him. Just as we attend a Hollywood Ball under the guidance of an orchestra conductor, our worship service can be conducted under the guidance of someone from above. The problem arises when the command is ignored. What is clear is that we can offer perfect worship when we receive grace from above.

3. There was complete devotion in heavenly worship.

The 24 elders threw down their crowns. There was dedication to the goal. There was no desire to look out for their own interests. He hid his little glory and had no intention of looking at his cheeks.

He returned glory, honor and gratitude to Him alone. What does it mean to “throw it here”? This means that it is no longer yours but the Lord's. This is complete dedication. Do we give Him our crown when we do? Do you give the crown of your heart? Do you offer a material crown? Do you offer a crown of glory? Our worship should be like this.

46. 우리의 완전한 구원 (계5:1-5) 1997.11.9 주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왜 하나님께 경배하였는가? 그들의 감동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본문의 그림에는 구속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준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중요한 성격을 발견한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벽한 구원이라는 것이다. 영혼구원과 육체의 구원은 모든 것의 구원이다. 건강으로부터의 구원,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인 곳에서 의 완전한 구원이다. 오늘 천상에서 보여진 구원은 어떤 것이었는가?

1.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었다

1절에 보면 "구원의 계획"을 책으로 비유했다. 어떤이는 계시와 구원과 심판을 가리킨다고 했다. 그러나 구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일인줄 안다. 오른 손은 전능한 손이요, 일곱인은 완전한 권위를 가리킨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가?

롬8:30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하시고 의롭다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작성된 구원이다. 창의, 성화, 영화를 거쳐 만아들을 본받게 하려는데 있다. 모든 일로부터의 넉넉한 구원이다. 귀신으로부터의 구원, 경제적 난관으로부터의 구원, 질고의 난관으로부터의 구원이다.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모든 죄악과 옛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런 구원을 얻은 자가 우리다. 주 에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선언은 얼마나 가치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등한히 여길때가 얼마나 많은가?

2. 그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2:4절에 보면, 천사의 요구사항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다. “누가 일곱인을 뿔 것이가?” 요한의 관찰에 의하면 하늘(천사)과 땅(사람) 아래(가상적인 인물)에는 그 인을 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보거나 펴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요한의 탄식은 인류의 탄식이다.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를 찾는 탄식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능력자가 누구인가? 인류는 이것 때문에 허덕인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부패의 가르침은 고마운 가르침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사람은 사람이된다. 성경 로마서의 가르침을 보라. 이방인 유대인은 모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의 경험을 보라. 야곱, 모세, 이사야, 바울 그리고 베드로의 경험을 보라.

3. 그 구원은 오직 예수만이 중보자가 되는 구원이다.

이렇게 탄식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친히 준비한 구원자가 있었다. 그는 누구인가? 5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라 했다.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란 뜻이다. 유다지파의 사자라 했다. 사자란 전능한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를 가리킨다. 창3:15절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하는 전능자라는 말이다. 특히 6절에 보면 어린양이라고 했다. 사자가 어린양으로 바뀌어졌다. 사자의 능력으로 이루시지만 방법은 어린양의 방법(십자가)로 하신다는 말이다. 요한이 본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요, 창22장의 여호와 이레의 어린양이요, 53장의 자기 백성의 죄를 책임진 어린양이시다. 바로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계획되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자신이 친히 준비한 참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
죽게하심으로 이루셨다. 그리고 성령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 이런 총동원의 사랑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적은
수고를 드려서 되겠는가? 아들을 내어 주신 이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46. Our Complete Salvation (Revelation 5:1-5) 1997.11.9 Week

Why did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the 24 elders seen by Apostle John in Revelation chapter 4 worship God? What caused their excitement? The picture in the text clearly states that it is because of restraint. Here we discover the important character of Christian salvation. That is, our salvation is not a temporary or partial salvation, but a complete salvation. Salvation of the soul and body is the salvation of everything. Salvation from health, complete salvation from economic, social and institutional aspects. What kind of salvation was shown in heaven today?

1. The salvation was complete

In verse 1, the “plan of salvation” is compared to a book. Some say it refers to revelation, salvation, and judgment. However, I know that if I am saved, everything is included. The right hand is the omnipotent hand, and the seven seals indicate complete authority. So how complete is Christ’s salvation?

Romans 8:30 "For he called those whom he predestined, and justified those whom he called, and glorified those whom he justified." It is a predestined salvation. It is intended to make us imitate the firstborn Son through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glorification. It is ample salvation from all things. Salvation from demons, salvation from financial hardships, and above

all, we are the ones who have obtained freedom from all sins and old man through faith in the Lord Jesus. How valuable is the declaration that we have received it? But how often do we neglect our salvation?

2. That salvation is impossible through human abilities.

In verses 2-4, the angel's requirements are God's requirements. "Who will open the seven seals?" According to John's observation, there was no one in heaven (angels) or on earth (humans) or under (imaginary characters) who could open the seals. There was no one who could see or open the seals. Lament is the lament of humanity. Who is the true savior? Who is capable of achieving God's complete salvation? This is why the teaching of humankind's total corruption is a thankful teaching. When a person becomes a person, look at the teachings in the book of Romans. Look at the experiences of Jacob, Moses, Isaiah, Paul, and Peter.

3. That salvation is a salvation in which only Jesus is the mediator.

During this time of lamentation, there was a savior prepared by God himself. Who is he? In verse 5, it is said to be the root of David. It means that he was born as a descendant of David and that he made an eternal covenant with David. He was said to be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The messenger refers to the Messiah who performs almighty power. It means the Almighty who bruises the head of the serpent in Genesis 3:15. Especially in verse 6, it is called a lamb. The lion was changed into a lamb. This means that although He accomplishes it with the power of a lion, He does it by the method of the Lamb (the cross). He is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that John saw, the Lamb of Jehovah Irae in Genesis 22, and the Lamb who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sins of his people in Chapter 53. He is Christ

Jesus. Complete salvation was planned in the hands of God. God achieved this salvation by having Christ Jesus, the true man whom He Himself prepared, die in our place. And our salvation is achieved in the Holy Spirit. Is it possible for us to give a little effort to our Lord who has shown such mobilizing love? How can he who gave his Son not also give us everything as a gift?

47.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136:1-16) 1997.11.23 추수감사절

본문의 시인의 감사는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는다. 이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이 그리스도안에서 절정을 이루다가 그리스도인인 안에서 그 열 매를 맺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감사주일을 당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를 자문자답하여 우리 속에 이 귀한 감사신앙을 불일듯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는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감사를 했는가?

1. 하나님의 존재하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감사했습니다.

1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신중 신, 모든 주의 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전능자라고 했다. 이 시인의 신앙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자체 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존재하신다고 하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신기루와 같은 것인가? 아니다. 그분의 선과 사랑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 활동을 통하여 느끼도록 하셨다.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 죽게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도록 밝히 알도록 가르쳐주셨다. 우리는 그분이 만주의 주가 되심을 인하여 찬양드려야 한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고 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안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2. 창조의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하신 것 자체를 묵상함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원한 사랑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사건 속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본다.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고 했다. 그리고 6절에는 땅을 지으신이, 7-8절에는 큰 빛들인 해와 달을 창조하신 분께 감사하라고 한다. 이 창조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채워진 사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1) 창조의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채워져있다. 2) 땅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도 있었다. 3) 광명을 만드실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거기에 충만했다. 해와 달이 낮과 밤을 주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오차없이 얼마나 오묘한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선하심을 느낀다. 정말 우리는 삼라만상의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폭포소리를 듣고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껴서 주의 폭포라고 할수 있어야한다. 닭소리, 당나귀소리를 듣고서도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한다. 우리는 감사주일에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을 느낄줄 알고 거기에 감사로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3. 구원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해야한다.

첫 창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발견한다면 재창조인 구원 사건 속에서는 그 사랑과 선하심이 절정을 이룬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이에게 감사하라고 시인은 말한다. 이것은 세상에 우리를 건지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을 상징한 것이다. 출애굽 사건에도 하나님은 사랑과 선하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채워주셨는데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구원에는 그 사랑과 그의 선하심이 절정을 이루어 마침내 열매를 맺고야 마는 것이다. 이런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47. Give thanks to God (Psalm 136:1-16) 1997.11.23 Thanksgiving Day

I believe that the poet's gratitude in the text should be the gratitude of you and me as Christians. This is because God's goodness and love reached their peak in Christ and bore their fruit in Christians. As we celebrate Thanksgiving Day today, I believe that we should once again ask ourselves what we are thankful for and use this as an opportunity to ignite this precious faith of gratitude within us. So what kind of thanks did David give?

1. I was thankful for God's love and goodness revealed in His existence.

In verses 1-4, the poet calls God the God of all gods, the Lord of all lords, and the Almighty who alone performs great wonders. Like this poet's faith, we must be thankful for God's existence itself. When you say that He exists, does that mean it is vague, abstract, and like a mirage? no. He allowed us to feel His goodness and love through various activities in those closest to us. He sent his Son to die in our place, and taught us to know clearly so that he could be moved among us by the Holy Spirit. We must praise Him for being Lord of lords. He said that the greatest fool is the one who says there is no God. It is our Lord who does not leave us like orphans, but comes back in the Holy Spirit and works among us.

2. We must be thankful for God's love and goodness revealed in the events of creation.

God's goodness and eternal love, which we feel by meditating on God's very existence, are seen even in the creation event that created all things. Verse 5 says, "Give thanks to him who made the heavens with wisdom, for his love endures forever." And in verse 6, we are told to give thanks to the God who created the earth, and in verses 7-8 we are told to give thanks to the God who created the great lights, the sun and the moon. In this event of creation, we cannot help but be surprised to see that we are already filled with God's goodness and love. 1) The method of creation is filled with God's love. 2) God's love was present even when he created the earth. 3) Even when creating light, God's love and goodness were full of it. When we see that the sun and moon rule over day and night, see how mysterious and error-free the order of God's creation is, and how it operates with God's love and goodness. We feel the fullness of God's love and goodness. Indeed, we should be able to see the hand of God through the movements of all things. Even when you hear the sound of a waterfall, you should be able to feel the hand of the Lord and say that it is the waterfall of the Lord. Even when we hear the sound of a chicken or a donkey, we must be able to hear the sound of God's rebuke. We must be able to hear the voice of the Lord through the events that happen around us on Thanksgiving Day, know how to feel the love and goodness of the Lord, and respond to it with gratitude.

3. We must be thankful for God's goodness and love shown in the salvation event.

If we discover God's goodness and love even in the first creation, we find that love and goodness reach their peak in the salvation event of re-creation. The poet says that the one who struck down the eldest son of Egypt should thank the one who brought him out of Egypt. This symbolizes the redemption of God who delivered us into the world and saved us. Even in the Exodus incident, God filled his people with his love and goodness, and in our salvation through Christ, that love and his goodness reach their peak and finally bear fruit. Praise and be thankful for the Lord's eternal love. Because God's goodness and his love are eternal.

48. 복음은 이긴다 (계6:1-8) 1997.11.30 주일

복음운동은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한다. 본문에는 여섯째 인까지가 나오는데 첫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복음운동의 승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이는 통일성을 보인다.

네 생물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대로 나간다. 우리는 복음 운동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바로 이해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혼신을 바쳐 살아 가야한다.

1. 복음 운동은 승리할 수 밖에 없다.

첫째 인을 떼실 때, 사자 모양을 한 생물이 오라할 때, 백마를 탄 자가 활을 받고 나가 싸워 이기고 이기었다고 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운동의 승리를 가리킨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1) 이는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다(행1:8).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라. 120명의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나는 기하급수적인 숫적 성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속에는 불이 있었다. 2) 이는 일곱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일곱마귀가 역사하여도 복음에는 일곱 영의 강한 역사가 있으므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에스겔의 환상 속의 모습을 보라.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자세히 보이는 것이다.

2. 복음운동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인에서 네째 인을 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환난과 기근과 전쟁들이 일 어났다. 복음이 반드시 환난을 통과함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보인다. 복음의 승리의 길에는 반드시 환난과 전쟁과 흉년과 같은 고난을 통과함으로서 승리하는 것이 특징 이다. 예수 안의 새 생명도 그냥 쉽게 얻어지지만 그것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할때 연단을 받아 진주와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박해사를 보라. "홀어진 무리"로 살았다. 12사도가 다 순교했다. 로마의 10대박해, 영국의 박해사를 보면 얼마 나 핍박을 당했는지 모른다. 전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그 나라에 들어 갔다. 우리 한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보라.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의 씨앗은 우리 나라에 꽃을 피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바른 진리 를 지키려다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좋아해야한다(약1:1-3).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 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율례를 그릇 행하였다는 다윗의 고백은 현재의 고난 의 자리가 복의 자리라는 말이 아니겠는가?

3. 복음운동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세째 인을 뽐 때 기근이 심하였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마치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를 보호하듯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보호의 약속이 있다. "포도 주와 감람유는 해치 말라"고 한다. 이것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를 절대 보호하신다는 말이다. 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가?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은 절대보호 를 이행하셨다. 사울의 손아래서, 압살롬의 손아래서 보호하셨다. 신약의 자기 백성에 게 하나님은 절대보호를 약속하신다(요10:38-19), 만유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안에서 이 복음운동에 참여한 자이다. 이 영광스러운 위치를 자랑하고 주장하시기 바란다. 복음은 반드시 이긴다. 복음을 따라 사는 자는 이 땅에 서도 절대 보호를 약속받는다. 우리는 이것을 다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않는다. 이런 보호의 약속을 누리시라.

48. The Gospel Wins (Revelation 6:1-8) Sunday, November 30, 1997

The gospel movement will definitely win in the world. The text includes up to the sixth seal, and from the first to the fourth seal, there is a unity that shows how the victory of the gospel movement progresses.

One by one, the four living creatures appear, receive God's command, and go out. We must understand exactly how the gospel movement will win and devote ourselves to this cause.

1. The gospel movement has no choice but to win.

It is said that when He opened the first seal, a living creature in the shape of a lion said to come, and a man riding a white horse came forward with a bow given to him, fought, and was victorious. This points to the victory of Christ and the gospel movement.

Why is the gospel we believe bound to win? 1) This is because the gospel itself is power (Acts 1:8). Look at the history of Acts. The first church of 120 people numbered 3,000;

There was exponential numerical growth, increasing to 5,000 people, but more than anything, there was fire within it. 2) This is because the seven spirits work. Even if the seven devils work, the gospel has no choice but to

win because it has the strong work of the seven spirits. Look at Ezekiel's vision. The fact that the work of life occurred wherever water touched is a detailed demonstration of the work of the Holy Spirit.

2. The gospel movement is bound to go through tribulation.

What happened when the fourth seal was opened from the second seal?

Tribulation, famine, and wars occurred. It shows that the gospel will definitely win by passing through tribulation. The path to victory in the gospel is characterized by victory by passing through hardships such as tribulation, war, and the Red Year. New life in Jesus can be obtained easily, but it must be refined through suffering and become a pearl-like faith. Look at the history of persecution of the early church. They lived as a "scattered flock." All 12 apostles were martyred. If you look at the history of the ten great persecutions in Rome and the persecutions in England, you cannot tell how much they were persecuted. Through the history of war, the gospel of God entered the country. Look at the martyrdom of our Korean missionary Thomas. Because of that, the seeds of the gospel bloomed in our country. Therefore, it is the same today. We must love the hardships and tribulations we face while trying to keep the right truth (James 1:1-3). Doesn't David's confession that suffering was good for me and that I had violated the law before I suffered mean that the current place of suffering is a place of blessing?

3. The gospel movement cannot help but be subject to God's absolute protection.

When the third seal was opened, the famine was severe. At such times, God protects his people. There is a promise of protection that He will protect us until the end, just as He protected Elijah in the days of Elijah. It is said, "Do

not harm wine or olive oil.” This means that God absolutely protects His chosen ones even in times of tribulation. How precious is this promise? In David's life, God provided absolute protection. He protected under the hand of Saul and under the hand of Absalom. God promises absolute protection to his people in the New Testament (John 10:38-19), and no one can snatch them from the hand of the Father of all. You are participants in this gospel movement in Christ. Please boast and claim this glorious position. The gospel will definitely win.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gospel are promised absolute protection even on this earth. We will never die until we do this. Enjoy this promise of protection.

49. 교회의 왕적권세의 회복 (계2:18-29) 1997.9.21 주

매번 각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교회는 항상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두아디라교회에 나 타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며 새벽 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새벽별이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안에서의 승리를 가리킨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란 그리스도안에서의 교회의 왕적권위를 가리킨다고 말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안에서 이 지상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새 생명이 온데서 왕노릇하게 하려함이라고 했다.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에 얼마나 이 영적권위를 사용하느냐에 놓여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이 영적권위를 사용함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개인의 관계의 삶에서 왕으로 사는 것 보다 패배자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어떻게하면 우리교회가 왕적권 위를 활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1. 바른 성장을 함으로서

19-20절 보면 주님은 두아디라교회의 영적성장을 칭찬하신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에베소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였다. 당시 가장 작은 도시였지만 비단 만드는 공장(자주장사 루디아)이 거기에 있어 상업이 성행한 곳이라한다. 많은 부자들이 나와서 봉사도하고 섬기기도 한 교회인 것 같다. "네 처음보다 나중이 많도다"고 말한것을 보아 그 교회는 첫 사랑의 감격을 가진 교회인 것

같다. 그러나 그 교회는 성장하는 중에 거짓교훈을 받아드려서 병들어 버렸다고 한다. 20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잘 용납했다고 한다. 행음과 우상제물을 먹는 일이 있었다.

이 교회는 바로 시작한 것 같은데 성장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바른 성장이 가능한가? 1)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서 시작된다(요1:12) 2) 말씀공급을 잘 받음으로서 세워 진다(마13:).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엡4:). 3) 영적분별력을 가짐으로서 이루어진다(롬12:1-2). 4) 고난을 통과함으로서 빛어진다.

2. 바른 회개를 통하여

성장하는 중에 교훈이 잘못 들어 왔을 때 두아디라교회는 넘어지는 자가 되었다. 성장이 잘못된 것이다. 교회는 이 교훈 때문에 음하게 되었고 우상숭배가 판을 치게 되었다. 그때 주님은 회개하라고 권면하셨다. 다윗의 경우처럼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왕권을 회복하나 사울처럼 회개하지 못하면 망한다. 22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세 가지 환난이 일어난다고 했다. 1) 병, 2) 환난, 그리고 3) 자녀를 죽인다고 했다. 우리교회는 회개를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고집을 부리지 말고 즉각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왕권이 세력을 얻는다.

3. 바른 확신을 가짐으로서

에베소교회에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다. 24절에 보면 처음 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다.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처음 것을 버림으로 새로운 것을 지니는 줄 알고 있다 히브리서 6:에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자리에 나아가라는 말은 기초적인 지식이 성장한 이후에는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을 기초로하여 완성된 자리에 나아가라는 말일 뿐이다. 그러므로 왕의 권위를 활용하는 자는 처음 받은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만 한다. 왕적권위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 그리스도의 승리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우리는 바른 성장을 해야한다. 더욱이 바른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처음 것을 굳게 잡는자가 되어야한다.

49. Restoration of the royal authority of the church (Revelation 2:18-29)

1997.9.21 week

When we look at what is given to those who overcome in each church, it clearly shows that the church always exists as a fighting church on earth. What did the Lord say when he appeared at the church in Thyatira? He said,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him authority over the nations, and I will give him the morning star." The morning star points to Christ and at the same time points to victory in Christ. And it can be said that the authority to rule over all nations refers to the royal authority of the church in Christ. God wants His church to reign on this earth in Christ. The Lord died for us and was resurrected so that we could reign in new life. The problem lies in how much this spiritual authority is used in the individual lives of today's Christians. Although many people are Christians, we do not know how many people use this spiritual authority to live as losers rather than as kings at home, at work,

or in their personal relationships. How can our church become a church that utilizes royal authority?

1. By growing properly

In verses 19-20, the Lord praises the spiritual growth of the Thyatira church. It was a church with business, love, faith, service, and patience. It was a beautiful church like the church in Ephesus. Although it was the smallest city at the time, it was said to be a thriving place for commerce because there was a silk manufacturing factory (Jajujangsa Lydia) there. It seems to be a church where many rich people come out and volunteer. Seeing that he said, “You are more at the end than at the beginning,” it seems that the church is a church with the emotion of first love. However, it is said that the church accepted false teachings while growing and became sick. He says in verse 20 that he tolerated Jezebel, who called herself a prophet. There was sexual immorality and eating food sacrificed to idols.

This church seems to have started right away, but problems arose as it grew. It shows us that the beginning is important, but the process is also important. So how is proper growth possible? 1) It begins by accepting Christ personally (John 1:12). 2) It is established by receiving a good supply of the Word (Matthew 13:). We must be one in what we believe and in what we know (Ephesians 4:). 3) It is achieved by having spiritual discernment (Romans 12:1-2). 4) It is created by going through hardships.

2. Through proper repentance

When the teachings were wrongly received during growth, the Thyatira Church fell. Seong Jang made a mistake. Because of this teaching, the church

became corrupted and idolatry became rampant. At that time, the Lord advised us to repent. As in the case of David, those who repent well will regain their royal authority, but those who fail to repent like Saul will perish. Verse 22 says that if we do not repent, three tribulations will occur. It was said to cause 1) illness, 2) tribulation, and 3) death of children. Our church must become a church that is good at repentance. Don't be stubborn and repent immediately.

Where there is repentance, the kingship of God gains strength.

3. By having the right confidence

He also told the Ephesian church to restore their first love. Verse 24 tells us to hold fast to the first things. The reason the church becomes weak is because they believe that they gain something new by abandoning the first. Hebrews 6: says to abandon the basics of Christ and move on to perfection, which does not mean that basic knowledge is not necessary after you have grown. It just means that you should move to a completed position based on that. Therefore, those who utilize the authority of the king must firmly hold on to the gospel they first received. In order to live in the grace of Christ's victory over all nations with royal authority, we must grow properly. Furthermore, we must become those who grasp the first things through correct repentance and faith.

50. 말씀이 크게 역사하는 교회 (계2:12-17) 1997.9.14 주

오늘날 사단의 역사는 최대의 인본주의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미 성경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부인하는 모든 활동, 모든 사건, 모든 동기를 죄악으로 취급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우리에게 사단의 체계의 상태가 어떠한지,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방법과 승리자에 게 주어질 약속된 축복을 보인다.

1. 사단의 체계의 상태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가 서 있는 교회라고 했다. 사단의 위가 있다는 말은 사단의 보좌,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란 말이다. 다시말하면 사단의 체계와 활동 이 극심한 곳이란 말이다. 1) 어떤 사단의 체계인가? 니콜라당의 교훈이다.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따르는 이단이었다. 그릇된 교훈 하나로 이스라엘은 죽음의 자 리에 떨어졌었다. 2) 어떤 열매인가? 두가지 뚜렷한 사망의 열매가 나타났다. 우 상숭배의 재물을 먹는 것과 행이었다. 오늘날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 현대 문명은 고대바벨탑 고대로마와 같이 발전되었지 만 우상으로 가득찬 문화이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엘의 우상숭배 요청을 받고 이 미 넘어간자도 있고, 넘어가려는 자도 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정절을 배우지 않 으면 안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는 사단의 위와 싸우다가 순교를 당했다. 너 자신 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경건이다.

2. 사단의 체계를 이기는 방법

사단의 위가 있는 교회를 향해 친히 나타나신 인자 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으시며, 그분이 주시는 방법만이 이길 수 있는 줄 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다. 양검으로 수술과 치료를 한다. 이 검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사탄의 궤계를 바로 분별하고 우리 주변에 범람한 사탄의 유혹을 공격하여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여러분되기를 바란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계를 이기는가? 이것이 실제의 경험인가? 요사 이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비교할 때 성도의 무기가 말씀이란 사실을 새롭게 배운다. 사울의 경우, 그는 겸손하였으나 시기와 분노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그는 자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는 마음의 시기를 이길 힘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고난을 당해도 용서한다. 도망다녔지만 자유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시119:의 주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주의 말씀은 노인보다, 스승보다,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고 했다.

3. 승리자에게 약속된 축복

버가모 교회가 사단을 이기는 것은 자기 생존을 위해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길 때 마다 주님은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두가지이다. 하나는 감추인 만나이고 다른 하나는 새이름이 적힌 흰돌을 준다는 것이다. 1) 감추인 만나란 놀라운 양식이다.

이스라엘이 40년간을 광야에서 먹고 생계를 유지한 것 처럼 환난 중에 있는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음으로서 살아간다는 말이 다. 감취었던 선물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주님은 그 때 그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해 주시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2) 그리고 흰돌 을 주신다. 이것은 점점 더 의롭게 되는 확증을 가진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다. 하루아침에 영적거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기는 것으로 점점 더 큰 용사가 되는 것이다. 영적생활에 있어서 벼락부자란 없다. 티끌모아 태산이 라는 원리가 경건생활에 있어서는 절대진리의 길이다. 이 영적거인이 되는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가리킨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영적거인으로 사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이다.

50. A church where the Word works greatly (Revelation 2:12-17) 1997.9.14 Week

It is not surprising that Satan's work today is marked by maximum humanism. The Bible already knew this, so it treated every activity, every event, and every motive that denied God's mastery as sin. The Lord who appeared in the church at Pergamum shows us the state of Satan's schemes, the method of victory over Satan, and the promised blessings to be given to the victor.

1. The state of Satan's schemes

The church in Pergamum was said to be a church where "the throne of Satan" stood. The place where Satan's throne is means that it is Satan's throne and the place where Satan's authority is located. In other words, it is a place where

Satan's control and activities are extreme. 1) What kind of Satan's commandment is this? This is the lesson of the Nicolaitans. It was a heresy that followed the teachings of the prophet Balaam. With one wrong teaching, Israel fell to its deathbed. 2) What kind of fruit is it? Two distinct fruits of death appeared. It was an act of eating the wealth of idolatry. The church today seems to be located where Satan's throne is. Modern civilization has developed like the ancient Tower of Babel and ancient Rome, but it is a culture full of idols. In today's church, some have already turned over to Daniel's call for idolatry, and some are trying to turn over. Therefore, we must learn from Daniel's chastity. Daniel made up his mind to refuse the king's delicacies so as not to defile himself. Antipas of the church at Pergamum was martyred while fighting against Satan. The greatest piety is to keep yourself uncontaminated by the world.

2. How to overcome Satan's tricks

I know that only the Son of Man, who personally appeared to the church where Satan is based, can overcome this, and that only the method He provides can overcome this. The Lord who appeared in the church at Pergamum appeared as "one with a two-edged sword." He performs surgery and treatment with a double sword. This sword is the living word of God. I hope that by combining your faith with these words, you will be able to correctly discern Satan's schemes within you, attack the temptations of Satan that are flooding around us, and capture all theories and make them obey Christ. Do we really overcome Satan's plans with the word of God? Is this a real experience? When we compare the cases of Saul and David, we learn anew that the weapon of believers is the word. In Saul's case, he was humble,

but his jealousy and anger showed in his actions. He tries to kill David. He tried to kill him by any means necessary, even though he knew it was wrong. He did not have the strength to overcome the envy of his heart. In other words, he could not use the sword of God's word. But David's case was different. He forgives even when he suffers. He ran away, but he was free. This is because the word of God captured him. I knew the power of your word in Psalm 119: It is said that the word of the Lord makes us wiser than an old man, a teacher, or an enemy.

3. Blessings promised to the victor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Pergamum church to overcome Satan for its survival. Despite this, every time we won, the Lord promised us abundant life. There are two things. One is hidden manna and the other is a white stone with a new name written on it. 1) Hidden manna is an amazing food. Just as Israel survived by eating in the wilderness for 40 years, the church in tribulation survives by eating the grace given by the Lord. How thrilling is it to see a hidden gift revealed? The Lord helps us understand His words at each time, and we live in this world with that power. 2) And he gives you a white stone. This means that we can live as those who have the assurance of becoming more and more righteous. You do not become a spiritual giant overnight. By winning one battle at a time, you will become a greater warrior. There is no such thing as getting rich overnight in spiritual life. The principle of gathering dust into a mountain is the path of absolute truth in living a pious life. This life of becoming a spiritual giant refers to “a life of walking with God.” God's expectation for the church is to live as a spiritual giant like Enoch and Elijah.

51.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응답 (계5:1-6-11) 1997.11.16 성례주일

지난번 우리는 천상의 세계는 예배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보았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활동의 마지막 완성의 모습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은 구속이었음을 보았다.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인하여 감격의 예배를 드린다.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한 반응으로 헌신과 찬송이 나오는데 그것은 한가지 공통적 주제인 어린양의 구속이었다.(9, 12, 13) 이 시간에는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 두가지를 생각하려합니다.

1. 구원 사역의 특징

주님의 구원성취는 성령의 사역이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로들 사이에 어린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기의 일곱영은 성령이시다. 주님의 구원은 전적인 성령의 사역이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만 보더라도 그의 잉태, 사역, 십자가 지심, 부활, 승천 그리고 높은 신분으로서의 사역이 모두 성령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주님 없는 성령 사역이나 성령 없는 주님의 사역을 결코 생각할 수 없다. 이는 성령은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좌정하신 성령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인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십시오. 바로 주님은 성령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2. 구원사역에 대한 우리의 반응

구원을 바로 이해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두가지 반응이 따라 온다. 1) 첫째, 기도 하게 된다. 8절에 24장로가 가진 금대접은 기도를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 그리고 드 리는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은 그 기도를 향기로 생각하시고 흠향하신다. 성소의 향단과 같다. 계속 올라 가는 향을 흠향하시듯이 성도 속에는 이런 향기가 나야한다. 정미로운 가루를 뿌려서 나게 했다. 여러분 마음에는 이런 향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아니면 사망의 냄새가 나지 않 는가? 금번 우리의 기도가 정미롭게 되기를 바란다. 기도하지 않고는 전혀 아무일도 없겠다는 일념이 있기를 바란다. (2) 둘째로 찬송하게된다. 천상 장로들은 다른 한 손 에 거문고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새노래를 부른다. 9-10절에 보면 새노래가 나온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작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속의 방법: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되었다. 피로서 샀다. 2) 구속의 결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셨다(벧전 2:9). 어떻게 찬송하였나요? 찬송하는 방법은 거문고와 입술의 찬송이었다.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같은 찬송이 마음에서 나와야한 다. 에베소서를 쓰던 바울의 마음에 일어난 구속의 찬송이 일어나야한다(1:3), 여러분 은 이런 놀라운 구원이 내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가? 24장로의 정미로운 기도와 감격스러운

찬양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감사의 절기에 우리는 구원에
감겨스러움으로 감사넘치는 삶을 살아가자

51. Our Response to Salvation (Revelation 5:1-6-11) 1997.11.16 Sacrament Sunday

Last time we saw that the heavenly world was centered around worship. This is said to be the final completion of all our activities. And it appears that the center of that worship was redemption. We offer a worship service filled with emotion because of the grace that has been granted to our people through the death of Christ. Devotion and praise come out in response to the grace of redemption, but one common theme is the redemption of the Lamb. (9, 12, 13)
At this time, I would like to think about two ways we should respond to this amazing salvation.

1. Characteristics of salvation ministry

The Lord's accomplishment of salvation wa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Verse 6: "And I looked, and behold, between the throne and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between the rods, stood a Lamb as if it had been slain. It had seven horns and seven eyes, which are the seven Spirits of God sent out into all the earth. ". The seven spirits here are the Holy Spirit. The Lord's salvation was entirel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Even if we only look at the life of Jesus, his conception, ministry, carrying the cross, resurrection, ascension, and work as a high status are all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erefore, we can never think of the Holy Spirit's work without the Lord or the Lord's work without the Holy Spirit. This is because the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the Lord. Please do not offend the Holy Spirit who is enthroned in your heart

today. Acknowledge him and be sensitive to his guidance. This is because the Lord guides us into the truth in the Holy Spirit.

2. Our response to salvation ministry

For Christians who correctly understand salvation, two reactions inevitably follow. 1) First, pray. In verse 8, the golden bowl held by the 24 elders is said to be a vessel for prayer. And it was said that the incense offered was the prayers of the saints. When believers pray in the name of Christ, God considers their prayers as a fragrance and fragrant them. It is like the incense altar in the sanctuary. Just as God smells the ever-rising incense, this kind of scent must come from within the believers. I sprinkled refined powder on it and made it grow. How much of this scent arises in your heart? Or does it not smell like death? I hope our prayers this time will be refined. I hope you have the determination to never do anything without praying. (2) Second, we praise. It is said that the heavenly elders have a harp in their other hand. And he sings a new song. In verses 9-10, a new song appears. He was worthy to take the book and to open its seals. He was worthy to be slain, and to have purchased with His blood men from every tribe and tongue and nation for God, and to have made them a kingdom and priests before our God, and they will reign on the earth. " Th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Method of redemption: It was through the death of Christ. Purchased with blood. 2) Result of redemption: God purchased the people and gave them to God. The status of God's people is me.

-He made Ra a priest and king (1 Peter 2:9). How did you sing praises? The method of singing was with the harp and with the lips. Praise, like Paul in the Philippian prison, must come from the heart. The praise of redemption that

arose in Paul's heart as he wrote Ephesians must arise (1:3). Do you know that this amazing salvation is mine? Are the 24 elders' refined prayers and moving praise coming from their hearts? In this season of thanksgiving, let us live a life full of gratitude by being wrapped up in salvation.

52. 천국을 받드는 자 (막10:13-16) 1997.5.4

오늘 저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천국을 받드는 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복잡한 때에 부모들이 예 수님의 안수를 통하여 축복을 받으려는 욕심에서 주님에게 열심히 나왔다.

그때 제자들은 꾸짖었다고 했다. 그러자 주님은 도리어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선언하시면서 곧이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가 들어간다는 놀라운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예수님은 하나님나라의 왕이시다.

하늘나라에 들어 갈 수 있다 없다고 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나라의 왕이 시다. 하나님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그 나라는 이미 와 있다.

그 나라의 통치가 계속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고 있다. 아직 오지않았다는 말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왔는 지를 분명히 말해준다. 창1:2의 하나님의 신의 운행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 인다. 출20:의 성막의 영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사인이다.

행2:의 오순절성령강림은 바로 이 통치를 구체적이게 했다.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자들이다. 그 왕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 땅을

다스 리신다. Pearl Harbor 의 역사적 현장에서 저는 하나님의 기이한 숨씨를 생 각했다. 2차대전때의 일본의 공격으로 2천여명의 미해군이 죽었다. 그 일은 미국으로 전쟁에 적극 가담하는 계기가 되어서 일본에 원자탄을 터트렸고 그 일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였다. 안이숙여사가 하루전에 8.15해방 하루 전에 풀려났다. 하나님의 통치의 손은 얼마나 기이한지를 다시 느껴보았다.

2. 그 나라의 왕은 그 통치안에 살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무명의 부모님의 열성을 보라. 바쁜 중에서도 체면 불구하고 찾아온다. 왕 에게 나가는 것이 제일 첫째 일이고 급선무였다. 제자들이 막을 때 주님이 진노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주님은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는가? 이 시간 주님은 당신 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의 통치권 아래서 준비된 그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 라고 하신다. 문제는 나아가지 않는데 있다. 나아가라. 거기에는 위대한 축 복이 있다. 성령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다. 오늘도 주님은 집 나 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그의 통치를 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초청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한다.

3. 그 나라의 통치는 어리아이처럼 받드는 자에게 효력이 있다.

여기 받든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다. 겸손이 필요하다. 자아부인이 필요하다. 어린아이가 샘플이라고 했다. 왜냐? 세가지 이유때문이라고 보여진다.

1) 무사기성 2) 단순성 3) 겸손 (작함)이 그것이다. 이 세가지 요소는 천국 백성의 공통된 성품이다. 그 나라는 이런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통치이다. 그 나라를 받는 자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연단된 사람이어야한다. 우리모두 계 속되는 그 나라 왕의 통치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과 진실로 받아드려 그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자.

52. Those who support heaven (Mark 10:13-16) 1997.5.4

Today, as we celebrate Family Month and Children's Sunday, I hope that you will have a blessed attitude to live as a supporter of heaven. In difficult times, parents eagerly came to the Lord out of a desire to receive blessings through the laying on of Jesus' hands.

He said that the disciples scolded him at that time. Then, the Lord instead rebuked him and declared that he should not forbid the child from coming to me, and then categorically stated that only those who worship him like a chil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Here, I would like to think about the amazing definition that the kingdom of God is entered into by those who serve it like children.

1. Jesus is the king of God's kingdom.

The one who said he could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is the king of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refers to the reign of God. That country is already here.

This means that the rule of the country continues. And the kingdom is coming. That means it hasn't arrived yet. The Bible clearly tells us how the kingdom of

God progressed. The operation of God's spirit in Genesis 1:2 shows God's reign. The glory of the tabernacle in Exodus 20 is a sign that God rules over Israel.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in Acts 2 made this reign concrete. Now we are the ones who are ruled by this country. That King was and still is the ruler of this land. At the historic site of Pearl Harbor, I thought about God's wondrous workmanship. More than 2,000 U.S. Marines died in the Japanese attack during World War II. This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the United Stat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war and detonate an atomic bomb on Japan, which led to our liberation. Mrs. Ahn I-sook was released a day before the August 15 liberation. I felt again how strange God's hand of government is.

2. The king of that country is still waiting to live in that reign.

Look at the enthusiasm of the unknown parents. Even though he is busy, he comes despite his reputation. Going to the king was the first and most urgent task. When we see the Lord's anger when his disciples stop him, how much does he not want us to be the rulers of that kingdom? At this time, the Lord is waiting for you. He asks us to receive his love and blessings prepared under his dominion. The problem is not moving forward. Go ahead. There is a great blessing there. He said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Even today, the Lord is waiting for us to receive his rule, just as he is waiting for the prodigal son to return from home. I pray that you will be the one who responds to this invitation.

3. The rule of the country is effective for those who follow it like a child.

The word to receive here means to receive. Humility is needed. Self-denial is necessary. The child said it was Sampul. because? This appears to be due to three reasons.

1) Fraudlessness 2) Simplicity 3) Humility (goodness). These three elements ar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of heaven. The kingdom is a government made up of these elements. Those who receive the kingdom must be people who have been refined with this kind of heart. Let us all accept the continued rule of the king of that country with humility and truth like a child and live a life worthy of the people of that country.

[The End of Living Stream Book 4 (1997)]

Soli Deo Gloria

